

옹진문화

2023

제 6 호

옹진문화원



Vol. 06

2023 Culture of ongjin

옹진문화



옹진문화원



옹진문화

발간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모집

■ 옹진문화원 회원이 되면

- 인문학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각종 책자 및 소식지를 제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각종 문화 행사와 교육 등에 우선 초청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조하는 삶을 살며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합니다.

■ 회원 가입 절차

- 신 청 :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회 비 : 연회비 12만원(월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891-2131-61(예금주 : 사단법인 옹진문화원)

원고모집

우리 옹진군민들의 '마음의 꽃밭' 옹진문화지에 님의 꽃씨를 심어 화사한 꽃이 만발하기를 소망하면서 귀하의 글=꽃씨=한편 투고 바랍니다.

- 글 장르 가리지 않음 : 시, 소설, 수필, 생활체험기, 기행문, 설화, 향토사, 인물사, 역사기록물 등
- 응모기한 : 2024년 1월~2024년 10월까지 옹진문화원에 투고
- 위 응모작품은 2024년도 《옹진문화》 제7호에 등재 발표할 예정임.
- 옹진문화에 등재된 작품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함.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음)
- 내 이름 석자로 된 문장 하나는 장미꽃 피운 것 같아 내 인생의 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의 접수 및 응모처

주소 :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4층 옹진문화원
전화 : 032)891-2131, 032)891-1754 팩스 : 032)891-8131
E-mail : ongjin@kcc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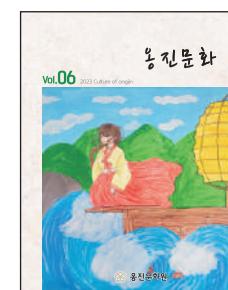
심청 효행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입선작

앞표지 : 고등 최우수상 김주은(백령고)

뒷표지 : 초등 저학년 최우수상 오주하(영흥초), 초등 저학년 우수상 손영원(백령초), 초등 고학년 최우수상 김하솜(백령초),

초등 고학년 우수상 창우현(북포초), 중등 최우수상 문지은(대청중), 중등 우수상 김륜아(대청중),

고등 최우수상 김주은(백령고), 고등 우수상 김예은(영흥고)



옹진문화 제6호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옹진문화원장 태동철

편집인 사무국장 윤삼용

진 행 대리 박소현

발행처 옹진문화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전 화 032.891.2131

이메일 ongjin@kccf.or.kr

디자인·인쇄 영동인쇄

* 이 책은 옹진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화비전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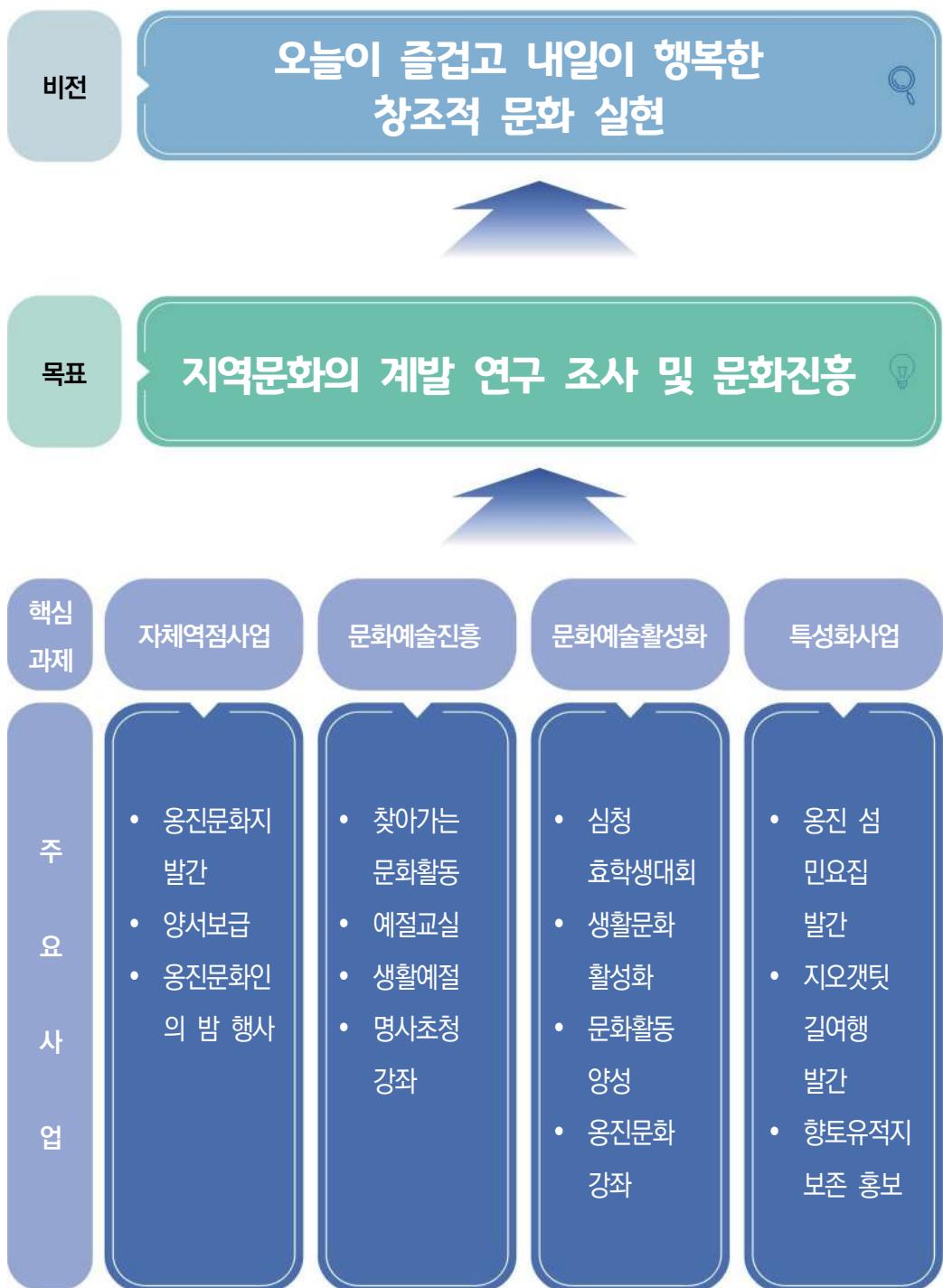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문화원 임직원 일동



온진문화원 비전



2023 옹진문화 CONTENTS

제 6 호

문화 비전 선언문	001
옹진문화원 비전	003
옹진 향토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006
옹진군민의 노래	008
발간사(태동철 원장)	009
축사(김영진 옹진군의회 부의장)	010
문화원 이모저모	011
옹진군 소식	012
옹진군의회 소식	014
2023년 옹진 축제	015

I. 문예마당

AI

황훈의 길동무 - 강도영	024
조각배 - 강명한	025
풍경은 그림이다 - 고경옥	026
아버지의 내비게이션 - 김정연	027
영홍도 - 김경식	028
기억의 질주 - 김수원	029
이 섬에 내가 있네 - 김춘연	030
유채꽃광장의 증언 - 김현주	031
가오리연 - 류인채	032
백령도 흰 날개의 섬 - 박용만	033
서해西海를 품고 싶다 - 유회숙	034
내 안의 흐르는 핏물이 말한다 - 이서연	035
한 개의 형용사 - 임경남	036
갈매기 - 장순실	037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잔상) - 장정돈	038
거품꽃 - 정미소	039
팔미도 - 정철진	040
시인부락 - 한연순	041

수필

앉은뱅이의 기적 - 김성태	042
서로를 바라보며 교감했던 꽃의 시간들 - 김시림	045
초가지봉 - 김용준	048
소상공인 - 김현기	050

청룡기青龍旗 야구野球의 전설神話 - 김홍규	052
6·25 남침전쟁의 전말 - 류청영	060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 - 서경희	074
남은 인생을 한번 잘 살아봅시다! - 이문주	076
2023년 옹진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자월도 다례 교육을 마치고 - 이미라	077
만수산 등정기 - 이상은	080
내 삶의 과정에서 - 이충환	082
안녕, 안녕 - 임경남	086

자유기고문

백령권 섬의 지질유산 소개 - 김기룡	088
주역周易과 기독교 - 장종철	099
백령권 섬의 문화유산 산책과 인문학적 삶 - 태동철	115

감상문

영혼을 위한 노래 『갈매기의 꿈을 읽고』 - 김수원	129
영화 「파도가 지나간 자리」를 중심으로 - 류종호	133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 이명수	136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 - 앙투안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 차운옥	138

기행문

스페인 · 포르투갈 패키지여행을 다녀와서 - 광인화	147
체험학습장을 다녀와서 - 이순자	157
부석사 기행 - 임선철	159
백령도 기행 - 최준호	167

작품

서각 - 김희동	176
서각 - 박춘수	176
서각 - 조재식	176
서예 - 장성호	177
서예&캘리그래피 - 김경환	178
서예&캘리그래피 - 김기경	179
서예&캘리그래피 - 김영희	180
서예&캘리그래피 - 박용만	181
서예&캘리그래피 - 박화순	182
서예&캘리그래피 - 윤주희	183
콜라주&페인팅 - 전미선	184
캘리그래피 - 길정연	185
캘리그래피 - 김연희	186
캘리그래피 - 신미현	187
캘리그래피 - 육광자	188



옹진의 아름다운 풍경

II.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북도면 - 시도矢島 석총石塚	198
연평면 - 일본인이 탐내던 명당明堂인 사당祠堂터	200
백령면 - 향교지鄉校地	202
대청면 - 대청도 망향비望鄉碑	205
덕적면 - 선단여仙丹嶼의 전설傳說	207
자월면 - 고려말高麗末의 이작도伊作島는 왜구倭寇의 근거지根據地	209
영흥면 - 송정부崇政大夫 임세재林世載 사당祠堂	212

III. 옹진의 따뜻한 복지 행정 현장 탐방

• 영흥면 생활개선회, 옹진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220
• 백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떡·한과 전달	220
• 덕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명절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221
• 북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이웃에 곰탕세트 전달	222
• 민·관 협력 옹진군 승봉도 무료 진료 실시	222
• 옹진군, 모든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223
• 옹진군(덕적, 자월, 영흥) 면허 어장 내 비자락, 동죽 종자 170톤 살포 - 패류 지원 증강 및 어업 소득 증대 도모	224
• 옹진군, 찾아가는 주민 건강 검진 실시	224
• 옹진군,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225
• 연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선물 전달	226

IV. 옹진 섬마을 학교 사랑

• 즐겁고, 행복한 연평초등학교의 일상 디깅(Digging) - 이승갑(연평초 교사)	228
• 옹진 섬마을 선생님 일기 / 백령도, 영흥도 - 김상윤(영흥중 교사)	231
• 우리 학교는 짱이야 - 김진광(연평초 5학년)	236

V. 옹진문화원 일꾼들

• 인연은 아름답다 - 사무국장 윤삼용	240
• 옹진, 사람, 그리고 문화 - 팀장 강문관	243
•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옹진 - 대리 박소현	245
• 옹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 사원 서혜인	247

VI. 문화원 주요 사업

1. 문화원 자체 역점 사업	250
- 옹진문화 제6호 발간	250
- 문화유적탐방	251
- 홈페이지 유지 보수 사업	252
2. 문화 예술 진흥 사업	253
- 찾아가는 예절교실	253
- 찾아가는 힐링 문화생활	257
3. 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	259
- 심청효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259
- 생활문화센터 문화체험 프로그램	260
- 찾아가는 다도·다례 강좌	263
- 옹진섬 민요집·음원 CD 재발행	265
4. 도서지역 양서 보급	266
5. 위탁사업	267
- 제50호 군민의 날 기념 문화 행사	
6. 공모사업	268
- 2023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7. 특성화사업	269
- 향토 유적지 표지판 제작	

VII. 2023 심청 효행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 작품

글짓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심청 - 조이안	272
어버이날 감사 표현 - 유다경	273
부모님께 드리는 큰 기쁨 - 계수민	274
나의 효도 저금통 - 김도경	276
부탁 - 김민성	278
우리 부모님께 - 서정원	280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 박혜빈	282
효행에 대한 고찰 - 정창현	284

그림

오주하, 순영원, 김리현, 김혜린, 김하솜, 홍다희, 창우현, 황유림, 문지은, 김륜아, 김미슬, 이나원, 김주은, 김예은, 김미령, 김미나	286
--	-----

VIII. 임원 및 회원명단

.....	290
-------	-----



옹진 향토 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연평도 충민사 - 향토 유적 제1호



백령도 패총 - 향토 유적 제2호



백령도 두무진 - 명승 제8호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66호



신도 노랑부리백로, 괭이갈매기 번식지
- 천연기념물 제360호



옹진 향토 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백령도 사곶해변 – 천연기념물 제391호



백령도 콩돌해안 – 천연기념물 제392호



백령도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 천연기념물 제393호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 천연기념물 제507호



소청도 분바위 – 천연기념물 제508호

옹진군민의 노래

윤석중 작사
손대업 작곡

행진 빠르기로



1. 서해에 널려 있는 수많은 섬들
2. 이웃섬 이웃사촌 정다운 마을



파도와 싸우면서 나라지키네
산과 물 다스려서 살찌는 고장



푸른섬을 거느린 옹진군민아
황금어장 차지한 옹진군민아



우리는 빛이 되자 등대가 되자
힘모아 마음모아 잘살아보자

《옹진문화》 제6호 발간사



향토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옥고를 염려해 《옹진문화》 6호를 발행함에 즈음하여 발간사를 쓰게 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한여름 폭염, 폭우, 폭풍을 이겨낸 오곡들이 황금 들녘을 장식하듯, 우리 일상 속에서 진솔한 삶의 진국을 글로 써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내는 결실은 옹진문화원 사업의 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의 정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시안을 기승전결(起承轉結)에 맞게 글을 정리하면 올바른 생각과 바른 표현에 도움이 되고 깊이 힘이 됩니다.

《옹진문화》에 글을 올립은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한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지금의 의식 구조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반영입니다.

글쓰기는 흘어져 있는 생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지적 활동의 범위와 수준은 생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본 《옹진문화》 6호에 실린 시, 수필, 자유기고문, 독후감, 기행문 등 그 모두가 깊은 생각의 결실이며 자기표현의 꽃입니다.

장종철 회원의 '주역 속에 녹아든 사랑, 자비'와 김홍규 교수의 '청룡기 신화'는 옹진군 관내 덕적고등학교의 야구부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글의 기록 전승(Archiveing)도 중요하지만, 청룡기 신화 속에 녹아든 지도자의 정신세계는 만인의 귀감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인천이 야구의 도시로 부활하는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옹진문화지의 발전과 무게는 곧 회원님들의 지적 향상의 무게와 비례함을 인식하며 날로 날로 발전함을 자축하며 많은 독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문화의 힘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옹진문화원장 태 동 철

축사



《옹진문화》 제6호 발간 축사

《옹진문화》지 제6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의회 부의장 김영진입니다. 《옹진문화》 제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옹진군은 7개 면이 모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특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섬들은 각각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섬의 많은 분들이 자신이 속한 섬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노력들이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옹진문화》가 이러한 아쉬움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옹진문화》는 각 섬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박물관이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볼거리로 번성하길 기원합니다.

《옹진문화》 제6호 발간을 위해서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옹진 군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태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옹진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 역시 옹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옹진문화》가 제6호, 제7호를 넘어서 100호까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의회 부의장 김영진

문화원 이모저모 Ⅰ

leaf 2023년 제1차 이사회(2023. 1. 31.)

- 서면의결로 대체

leaf 2023년 제6차 정기총회(2023. 2. 28.)



제6차 정기총회

leaf 2023년 제2차 이사회(2023. 8. 31.)



제2차 이사회

옹진군 소식



옹진군수, 7개면 신년 인사회로 소통 행보 시작

계묘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하여 화합과 소통의 군정 운영을 꾀하고자 민생현장 방문



일년 농사 첫걸음, 옹진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별 핵심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교육



옹진군 소청도 어업인 복지 회관 준공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수산업 발전 논의 공간 활용 및 귀어인들의 교육지원센터 역할과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옹진군 소청도에 어업인 복지 회관 건립



옹진군 신시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진수식 개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면허(양식) 어장 관리, 불법 어업 감시, 어장 청소 및 해적 생물 제거 등 양식장 보호 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에 투입하고자 '신시호' 건조

옹진군 소식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소야랑' 착공

기존 소야도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총 3개 동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시 공간, 체험 공간, 공유 주방,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



옹진군, 2023년 조림 사업 추진

군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에 보다 경제적이며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고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하여 추진



옹진복지재단 출범식 개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시설 수탁 운영, 민관 협력 지원, 복지 기부금 모금 및 배부,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위해 재단 출범식 개최



옹진군 덕적도 '도우 해상 보행교' 조성 추진

수도권에 인접한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덕적도에 수려한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 해상 보행교' 조성 추진

옹진군 의회 소식



옹진군의회 김택선 의원,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옹진군의회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가 옹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옹진군의회, 연평면 현장 방문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현장 방문으로,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면정 보고 및 주민 간담회를 통해 연평면 주민의 여론 및 건의 사항과 지역 현안 사항을 수렴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자월면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현장 점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응원 차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시설물 확인, 관계인 안전 관리지도, 관계자 애로 사항 청취



옹진군의회, 자월면 현장 방문

자월분교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장 실태 확인 및 점검을 하였으며,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주민 여론 및 건의 사항을 정리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군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계획

2023년 옹진 축제

- 제3회 영흥도 알리기 등산 문화 축제
- 제11회 장봉도 벚꽃 축제
- 제1회 연평꽃게 체험 걷기 축제
- 주섬주섬음악회
-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

2023 웅진 축제

제3회 영흥도 알리기 등산 문화 축제

4월 15일 영흥면 실내체육관에서 전국에 영흥도를 알리기 위해 웅진군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웅진군이 후원하는 ‘제3회 영흥도 알리기 등산 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등산 애호가 500여 명과 지역주민들은 국사봉 등산과 웅진군 특산물 판매, 축하공연, 그림전시, 공예체험 등의 문화축제를 즐겼다.



제11회 장봉도 벚꽃 축제



4월 16일 제11회를 맞은
장봉도 벚꽃 축제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어 지역
축제에 목마르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1시간 정도 소요되는
4km 걷기 코스를 바다와 벚
꽃을 비롯한 진달래 등 봄꽃
의 경치를 감상하며 장봉도의
봄날을 맘껏 즐겼다.



이번 축제에서 식전 행사로 진행된 장봉풍물패의 모듬북 공연과 장봉부녀회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운영한 먹거리장터 및 관내 업체의 후원 하에 진행된 경품 추첨 등
주민과 지역 업체가 함께한 풍성한 행사가 열려,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지역축제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

제1회 연평꽃제 체험 걷기축제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연평면 함상공원 일대에서 연평 꽃제의 우수성과 연평도의 숨은 자연 경관을 알리기 위해 주민 및 관광객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린 ‘제1회 연평 꽃제체험 걷기 축제’가 연평면 봉사단체인 연가지기가 주최하고 옹진군이 후원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참가자들은 첫날,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연평도 꽃제로 장을 담그는 체험 행사로 꽃제장 담그기 및 인천남사당놀이 등의 문화공연을 체험하고, 다음 날 오전에는 함상공원을 출발하여 등대공원, 매드라끼리, 아리끼리 해안도로 등 연평도 둘레길을 걷는 걷기 대회가 이어졌다.



주섬주섬음악회

7월 29일 옹진군은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제7회 주섬주섬음악회’를 개최했다. 서포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덕적면 주민들이 준비한 난타 공연과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 ‘부활’의 리드보컬 박완규를 비롯해 모불, 이글루 베이 등의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으며, 공연 후에는 서포리 청년회에서 준비한 캠프파이어가 진행되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했다.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

9월 20일 옹진군은 인천남동체육관에서 100여 명의 내빈과 2,0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군민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제50회 옹진군민의 날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어 옹진군민에게는 더욱 뜻깊은 자리이며 군민들과 출향인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음 축제로 진행됐다.







I

문예마당

- 시
- 수필
- 자유기고문
- 감상문
- 기행문
- 작품(서각, 서예, 서예&캘리그래피, 콜라주&페인팅, 캘리그래피)
 - 옹진의 아름다운 풍경

황혼의 길동무

강도영

별써 십 년 넘게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속골산책길
언제부턴가 이 길 오르기가 힘이 들고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지는데
오늘은 반갑잖은 찬바람까지 부는구나
휘이잉 쏴아
산길을 훕쓸고 지나가는 바람
날듯이 굴러가는 가랑잎들
얘들아
너희들 무에 그리 바빠서 날 앞서 달려가냐?
가봤자 산딸기 덩굴이라도 만나면
더 못 가고 계가 너네들 무덤일 텐데
나하고 손잡고 동무삼아
쉬엄쉬엄 가자구나



조각배

강명한

저 멀리 바다 위에 조각배 하나
소리 없이 흔들리는 조각배 하나
갈매기를 부르듯 조각배는 춤추고

누구를 기다리나 조각배는 침묵하네
작은 몸을 흔들며 어디론가 가고 있네
잔잔한 바다 위에 새털 같은 조각배 하나

석양에 슬퍼하는 조각배
마음속 깊이 숨겨둔 그리움을
석양은 붉은빛으로 가리네



풍경은 그림이다

고경옥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을 걷는 건
하늘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 같다

침목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을이 몸서리를 치면 한 겹 더 물든다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셔터를 눌러 몸서리를 저장한다

몇 발자국 더 떼자 한 폭의 수채화가
소리를 내고 있다
나뭇가지에 악보를 집게로 고정시켜 놓고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본 적 없는 숨 막히는 풍경이다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단풍처럼 불그레한 볼이 살랑 보인다
달아나려고 애쓰는 가을의 옷깃을 끌어다
나뭇가지에 매단 풍경은 그림이다
악보는 맹강맹강 몸을 흔든다
귀를 맑게 해주는 풍경소리가 귓가로 스민다
오가는 사람이 없는 빈 철길 한쪽에서
소녀는 선율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나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발뒤꿈치를 듦다
바이올린은 소녀가 켜는데
음표는 내가 된다
발자국을 뗄 때마다
햇살이 내려와
침목 위에 선연하게 곡을 쓴다



아버지의 내비게이션

길정연

열여섯 내가 살던 마을은
어느덧 내비게이션에서도 사라졌다

아버지의 피난 시절 그 마을도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주민들로 가득하다

나에게도 이제는 아버지가 쓰시던
내비게이션이 작동한다
주안 오거리 내가 살던 그 집을 목적지로

어린 시절 꿈꾸던 곳
꿈에라도 보고 싶은 부모님과
웃음 짓던 곳



영홍도

김경식

길마섬
오늘도 묵념하듯
고요로운 날
작열하는 태양
끝 구름
숨바꼭질 여유롭다
서녘으로 익은 태양
스멀스멀 잔파일러
출렁이면
붉은 꼬리뼈 속 만선
귀항 서두를 때
일찍 나온 별님 속삭임에
불빛, 물빛과 노니는
쇼핑 나온 전어 떼
잔치 중이다

가을바람 어느덧
포도송이
향 불러
별 세는
섬



기억의 질주

김수원

기억은 본능과 무관합니다

구르는 성질은 앞만 보고 달려도 빠끗할 때가 있죠
속 터지는 날도 몇 번 있었지만
도착지도 모르고 달릴 때가 있지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조력자의 신분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굴렸으니까 바깥쪽 바퀴가 더 반들거리죠

바퀴의 여성에서 생각이 복잡할 땐 달리는 게 최고죠
속도에 이끌려 속도에 취하면 느낄 수 없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해요
어떤 속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릴 때
뒤도 보고 옆도 보라는 당신의 말이 기억나요

출발은 같지만 도착은 운명이죠
후진은 직진을 위한 도움닫기여서
산다는 게 달리는 일이니까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돌아오려고 달렸지만
최저의 속도로 멈춰서 숨고르기를 하는 바퀴입니다

버림받을 줄 모르고 한창때는 날아다녔죠
무서운 속도로 폐기되는 줄 알았다면 속도를 유지할 걸
속도를 잃고 나서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지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달리다가 기억 속으로 사라지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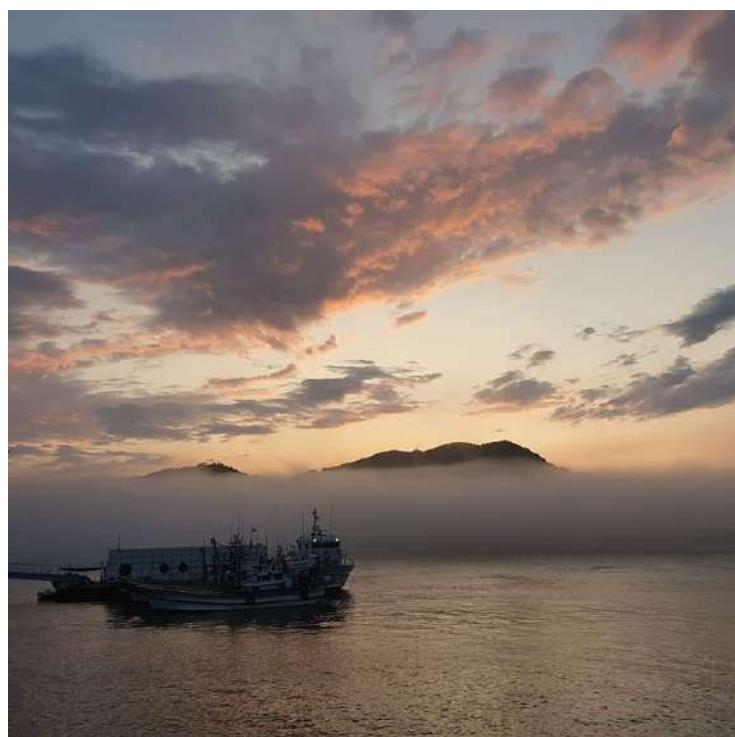
이 섬에 내가 있네

김춘연

어스름히 해는 지고 쓸쓸한 겨울 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다
갈매기 울음조차 멀어져 가고
오늘도 까마귀는 울어댄다

겨울 찬바람을 몰고 올 기세로
진 회색빛 구름떼가 서산에 머물고
앞바다엔 건너 마을의 불빛만이 흐느적거린다

나는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왜 이곳에서 이 쓸쓸함을 바라만 봐야 하는지
이제는 내 머리 위에도 세월의 서리가 내려앉고
늙으막까지 함께 살아온 40년 지기의 고향
조금은 낯선 섬 이 섬에 내가 있네





유채꽃광장의 증언

김현주

구만 평의 유채꽃광장에
거구의 트랙터 한 대 고개 숙이고 있네

바람의 소요를 경청하는 자세로
꽃피는 죄를 물어야 하는 번뇌로

상춘객들을 위해 죽이소서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위해 체벌하소서

슬픈 계절은 꽃들이 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창궐하는 바이러스 앞에 유채꽃들은 더욱 심심해지고
들판의 비명은 더욱 샛노래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별과 나비들만 윙윙 날고

아, 이 괴로움은 이천 년 전에도 있었네,
아, 나는 저들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겠네

우유부단한 빌라도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봄
꽃들의 순교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예감에

질병을 대신 지고 사라진, 역사적인 꽃들에게 경배하고 싶은
잔인한 사월,
갈보리언덕의 성자처럼
검은 트랙터 한 대 고개 떨구고 서있네



가오리연

류인채

꼬리가 반쯤 잘린 채 몸통이 접힌 것이 플라타너스 가지 끝에 걸려 가지가
휘청거릴 때마다 떨며 흐느낀다

아버지는 마름모꼴로 자른 한지에 대나무 살을 구부려 붙여 가오리연을 만들어
주셨다 긴 꼬리연을 묶은 열레를 잡으면 감긴 실이 술술 풀렸다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감싸 쥐고 연줄을 풀어주셨다 바람의 세기를 보며 조금씩 열레를
돌리면 연은 꼬리를 흔들며 솟아올랐다 새보다 높이 구름보다 아득히
바람만 잘 타면 나도 창공을 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가 실을 말아 연을 거두면 까만 점이 된 것이 점점 커지다가
문득 가오리가 되어 내 발밑에 다소곳이 엎드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먼 하늘이
새콤하게 따라와 코끝을 간질였다

커서는 혼자서 연을 날렸다 연은 공중곡예를 하다가 곤두박질치다가 감나무
꼭대기에 걸리곤 했다 자꾸 눈물이 났다

누가 그때 그 가오리연을 풀어줄 수 있을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
내 손을 맞잡는다

백령도

- 흰 날개의 섬 -

박용만

알알이 쌓인 넓은 광야
 검은 발자국 스쳐 지나간 자리엔
 누군가 볼세라 잔잔한 물결로 감추고
 청송 푸른 숲 숨통 트고 길손 채비 바쁘다¹⁾

그 웅장함 그 술한 나날 해풍에 닳고 얹혀
 그 자리 아직 우뚝 서서 지난 세월
 지금 오고 가는 길손
 손 벌려 내려다보누나²⁾

서로 맞부딪혀 일군 바위 새끼 마당
 넓은 바다에 얼굴 묻고
 수줍음 고이 간직한 채
 얼굴 붉히고 일어서질 않는구나³⁾

어느 자리 어느 곳
 우리 선조 우리 숨소리 들리고 어우러져
 푸른 하늘 반짝이는 수많은 별
 하얀 날개 이제 비상한다⁴⁾

1) 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사변(천연 비행장)

2) 대한민국 명승 제8호 옹진 백령도 두무진

3)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4)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국내에서 관찰할 수 없는 북한의 지질 특성을 간직하고 있어 2019년 백령 대청 지질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인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해西海를 품고 싶다

유희숙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을 진 바다에 가고 싶다
한없이 앉아
서해를 품고 싶다고

사람들이 맨 처음 찾는 곳
그들이 두고 간
바다, 노을 진 서해가
갯벌에 박힌
처음이라는 끝이라는 말을 되뇌며
남몰래 우는 걸 보았어요

바다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어요
사라지는 모든 것은 붉기도 하지
세상 한쪽에서 그들과 섞여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고
그 사이에 사실이 살아 숨 쉬는 거라고

가끔은 서해가 작은 여자 같아요
그들을 안고 울먹울먹
풀잎처럼 일어나는 파도소리 파랗게 젖어오는
물의 끝에서 바다를 벼렸어요

서해, 그녀를 만나러 지금 바다로 가요

내 안의 흐르는 핏물이 말한다

이서연

내 안에는 실향인의 핏물이 흐른다
 별진 대낮에 가족과 생이별한 핏물이 흐른다
 눈앞에서 비명조차 없이 사라진 혈육
 생사조차 깜깜한 세월에
 얼굴조차 감감한 기억이 서러워
 통한의 숨을 쉬었던 핏물이 흐른다

내 안에는 숨겨진 태생적 상처가 있다
 뿌리처럼 텃줄로 이어진 가여운 상처가 있다
 낯선 곳에서 하루도 안녕할 수 없던 기억
 생가죽 벗겨지듯 모질게 아픈
 뼈마디 끊어지듯 몹쓸게 슬픈
 그 핏줄로 엉켜진 질긴 상처가 있다

내 안의 흐르는 핏물이 말한다
 내 안의 태생적 상처가 말한다
 숨 끊어지는 날까지 내 소원은 통일이라고
 육신을 벗은 영혼의 소원조차 통일이라고

한 개의 형용사

임경남

사랑은 해변을 당겨 뒹는 일
따뜻해진 내가

너의 날씨를 이불의 감정으로 이해하는 일이라서

이불 속에서 키스를 나눌 때마다
해변의 불빛들이 켜졌지

불빛을 찾아 밀려드는 물고기들이 있어서
사랑은 바다를 분홍으로 번역하는 일이어서

바다 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이불이 분홍으로 물들었지
그때쯤 바다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던 거야

이별은 모래사장에서
이불 속 입술을 찾아내는 일
문어둔 입술이 많아
방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졌지

일몰이라는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

밤바다는 지퍼를 닫고
나는 지퍼 앞에서 오래오래 서성거렸어
지퍼를 다 올리지 못해
몇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이별을 건너가고 있었어

당겨 뒹을 해변이 사라진 밤의 해변에서
침낭을 머리끝까지 채우면

사랑은 감쪽같았어

갈매기

장순실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

갈매기 떼가 날아와

지난밤 무서운 태풍이 불어
 어느 무인도 바위틈에 몸을 숨겼다가
 아침 햇살 받아 날개 펼럭이며
 바람 잔 물결 위에 사뿐히 내려앉네

끄윽, 끄으윽

갈매기 소리와 춤추는 날갯짓 따라
 덩달아 파도도 춤을 추네

아빠 갈매기
 엄마 갈매기
 아기 갈매기
 춤추는 파도를 맴돌며
 함께 노래 부르네

그 모습 바라보며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잔상)

장정돈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꺼내야 책을 볼 수 있다.

나이가 먹어서 책을 많이 보면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 나서게 되니,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눈을 나쁘게 했나 보다.

이런 자세라면 청력과 시력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끼고 돋보기를
쓸 것이다.

보청기와 돋보기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젊어서 듣지 못했던 소리,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까지 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고마운 물건이다.

나이 들이 두려운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력 저하다.

하루 종일 사라진 기억을 생각해 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수십 년 뇌 속에 쌓아 왔으니 용량이 꽉 찼을 것이다. 이젠 나의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입력시키지 않을 뿐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창 때의 젊은이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나이의 미덕이다. 생각해
보라 나이 들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
바빠 서두를 것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천천히 해도 혼낼 사람이
없으므로 마음 푹 놓고 하면 된다.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넉넉해지는 재산은 시간이다.

나이 들면 좋은 점은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책임도 의무도 줄어든다. 시간이 늘어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섬세해
진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어난 시간에 하나씩
해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좋다.



거품꽃

정미소

거품은 거품을 불러 모으며 서로 갈아탄다.

거품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끓어오른다.

거품은 아침에 솟았다가 저녁이면 사라진다.

거품은 거품 물고 달아나는 놓게 물 타기다.

거품은 우물 안 개구리가 베어 먹는 뜬구름,

거품은 나그네새가 두고 간 허공발자국이다.

거품은 가맛바람이 큰센바람 몰고 달아난다.

거품은 물이 피웠다가 물이 거두어 가는

물의 꽃이다.

팔미도

정철진

한 줌의 흙으로 태어난 불멸의 전사여
한 세기에 역사의 증인이 되어
오늘도 도도한 너의 자태는
우리의 또 다른 희망이구나!

너의 짧은 팔은 그 어떤 이의 큰 팔보다
더 커 보이는구나!
인천을 품고 세계를 향해
긴 팔 벌려 달려가 보자
긴 마루의 시작점에서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르자





시인부락

한연순

영홍도 십리포에 가면
삶이 휘어지도록 아파 본
소사나무가 있네

속살까지 늙은
그 시인들이
꽃대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노래하네

고뇌의 뿌리에서 올라온
바람의 각을 나부끼며
물결 위에 시를 쓰고 있네

앉은뱅이의 기적

김성태

영흥면 내4리에 가면 절고랑이라는 곳이 있다. 또 고개 너머에 가면 어벌이라는 곳도 있다. 그곳에 경주 김 씨가 살고 계시는데 그곳이 우리 어머니 친정이시다. 우리 외할아버지 생질이 김경환 씨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고는 사촌간이시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외 오촌간이시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께서 절에 가끔 다니셨는데 나도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그런데 갈 때마다 스님은 안계시고 오촌께서 절을 관리하고 계셨다. 나는 생각에 절은 스님이 관리를 하는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6·25가 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큰 풍파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내가 군대에 가게 되어서 군 생활을 삼 년 마치고 나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외출했다 집에 오니 외 오촌께서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 오촌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보러 왔다.”

“너 우리 집 와서 나하고 먹고 자면서 논과 밭을 좀 갈아주고 그러니 않겠니?”

그래서 나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여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저녁때 넘어갔더니 기다리고 계셨다. 저녁밥을 먹고 사랑채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절 생각이 나서 여쭤보았다.

“절은 스님이 관리하는 게 정상인데 왜 오촌께서 절을 관리하셨어요?”

“절을 내가 맡아보는 지는 4대째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 김 씨가 절을 모시게 된 것이 백 년이 넘었지. 처음 시초는 우리 김 씨네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느냐.”

오촌은 절 이야기를 다하자면 한참 걸린다 하고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서 아기 행동이 이상하더란다. 아기들이 어려서 울면 손과 다리를 같이 움직이며 우는 게 정상인데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생각하기를 커지면 나아지겠지 하고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어느덧 돌이 되어 돌상을

차려 놓고 돌상 앞에다 앉혀놔도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더란다. 그래서 앉은뱅이가 틀림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때부터 약을 구해다가 먹여도 보고, 궂도 해보고, 침도 놔보고, 별짓을 해도 소용이 없었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앉은뱅이를 고쳤다는 사람은 만나 보지를 못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를 못하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녔는데 하루는 강원도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저쪽에서 노인들이 대 여섯이서 앉아 놀고 있더란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인사를 하고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손주 병을 고쳐보고자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말을 했더니 한 노인께서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강원도 어느 산꼭대기에 절이 하나있는데 거기 스님이 병을 고친다고 들었노라”

하시며 그 산을 알려 주셨는데 그 산이 얼마나 악산인지 올라가기가 무척 힘이 든다고 했단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찾아가기로 하고 길을 가는데 해가 저물어 더 가지니 산은 안 보이고 동네도 없고 힘도 들고 하여 길옆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웬 스님이 말을 걸어왔다.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왜 여기 앉아계시나요?”

그래서 동네서 한 노인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산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 산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다 해도 거기 스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셔서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집안 식구들과 잘 의논하여 절을 짓고 부처님을 정성껏 모셔보세요”

라고 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발을 돌려 마을을 찾아서 하룻밤을 지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경주 김 씨 가족을 전부 불러 모아 놓고 팔도강산을 다 돌면서 강원도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스님께서 말해주신 절을 짓고 부처님을 정성껏 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손의 일인데 두말없이 한 번 해보자고 가족들의 의견 일치를 보고 절터를 보러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의 절고랑에다 절을 짓기로 하고 절을 지을 재료를 구입하여 절을 지었다. 절을 다 지어놓고 도배를 하려고 종이랑 재료를 다 준비하고 가려는데 앉은뱅이가 따라가겠다고 심술을 부려 할 수 없이 지게에 지고 가서 도배를 하려고 풀칠을 하는데 손자 녀석이 말했다.

“내가 한번 벽에 붙여 볼게요!”

아이는 풀칠한 종이를 들고 벽으로 가서 벽을 바르기 시작하여 아래를 다 바르고 그 위에도 바르고 또 그 위를 바르려니 다리가 조금 퍼져 또 그 위를 바르고 또 그 위를 바르려니 조금도 퍼지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좋아서 기뻐했다. 지게에 지고 갔던 사람이 걸어서 오니까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기뻐했다. 생각해 보면 중간에서 만난 스님이 산에 사는 스님이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부터 김씨 집안 장손이 절을 이어받아 가며 살았는데 6·25 전쟁 때문에 절이 없어졌다고 오촌은 말씀하셨다. 6·25가 나면서 남로당이 들어와서 남의 집 머슴 살이 하던 놈들이 팔에다 완장을 차고 서류를 들고 다니며 남로당에 가입하라고 매일 찾아와서는 절부터 부수라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할 수 없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언제 때려 부수었는지 모르게 부서졌다고 한다. 그 후로는 가보지도 안 했다고 한다. 백여 년이나 섬기던 절을 잃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절이 있었기에 절고랑이라는 지명도 있었지 않았나 싶다.

서로를 바라보며 교감했던 꽃의 시간들

김시림

우란분절을 앞둔 능소화의 계절이다. 불두화를 타고 올라간 능소화의 주홍 꽃송이가 방울방울 빗방울 사리를 품고 있다. 지난 계절 부처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한, 공만 하던 하얀 꽃잎들이 진 자리에 그물 수세미 같은 둥근 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불두화와 능소화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황도훈 전 해남문화원장님을 생각한다.

오래전 도심의 담장 밑을 지나다가 발밑에 수북이 깔린 능소화를 만난 적이 있었다. 비에 촉촉이 젖은 채로 낙화한 꽃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꽃이,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며 나팔 화관 입으로 생사生死를 얘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오는 길에 능소화가 떨어져 있었어요.”

무심히 원장님께 드렸던 노을빛 꽃송이는 오래도록 액자에 담겨 그의 책상을 지켰다. 꽃송이를 주고받던 두 마음이 책갈피 사이에 나란히 누워 납작하게 마른 후 액자 속에서 그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었다.

꽃 한 송이도 그냥 편 것은 없다. 모두 각자가 시절의 인연을 만나 짹을 퇴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죽는다. 그 한 송이를 위하여 우주 만물은 너나없이 상호 작용을 한다. 제 몸을 통째로 내어준 저 불두화와 능소화처럼 원장님의 황혼 무렵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교감했던 꽃의 시간들은 그 얼마나 숭고한 것이었던가.

찔레꽃이 만발하던 오월 ‘우보 황도훈 선생 추모제’가 열린 해남엘 다녀왔다. 원장님께서 가신 지 17년, 해남의 예인들이라면 너나없이 그가 그리워지리라. 해남의 문화 지킴이로, 향토 사학자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원장님. 나는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존경하던 원장님과 사별한 후 세상이 무너진 듯 막막하기만 했었다.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시게 되면 받는 이가 없는 편지를 쓰거나 단축 다이얼을 눌러 그를 부르게 될까 봐 미리 했던 이별 연습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평생을 다하여 지켜 온 해남의 문화! 늦은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추모사, 도살풀이, 오구굿이 이어졌다.

선영숙 선생이 부른,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가야금 병창은 원장님 생전에 함께 들었던 것이라서 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리...) 가야금 선율이 묘소 앞 신우대를 흔들고, 추모제에 모인 분들이 그와 얹힌 사연의 보따리를 한가득 풀어놓았다.

조광영 선생은 “후배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 주시고, 목포 대학교를 오가며 함께 공부하던 시절이 다시금 그립다”라며 면 곳을 응시했다. 김선재 선생은 “해남의 고대역사와 신석기, 해남군사 등을 발굴하기 위해 밤낮없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시고,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향토사의 큰 어르신의 발자취를 기리자”라고 했다.

오래전 동짓달, 끓어오르는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여 한달음에 해남엘 간 적이 있었다. 그때 해남문화원에서 원장님을 처음 봤었다. 해남 군청 지하, 탁상용 전등이 책상을 비추고 있을 뿐, 조명이 없는 허름한 사무실 한편에 야월 대로 야원 노신사가 형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이나 고향엘 못 왔습니다.”

바닷가 외딴곳에 있던 우리 집, 밀풀과 썰풀은 하루에 두 번씩 집 둘레를 찾아 왔었다. 파도는 새 학년 첫날 키 번호 정하듯, 백사장에 조개껍데기들을 층층이 세워 놓곤 했다. 바람새들은 물길 닿지 않은 자갈밭에 여린 발로 모래를 밀어내 오목한 둉지를 틀고 조약돌 같은 새알 서너 개씩 낳아 놓았다.

보리가 익어가며 누런 물결이 일렁이면, 새알 줍는다고 갯가를 쏘다니기도 하던 오빠들의 발자국을 찾으러 온종일 고향의 서리 밭을 뒤지다가 혀탕치고 오던 길이었다.

“이미 그 고향은 아닌데.....”

파이프 담배를 들고 있는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그리움의 본향을 찾아 미친 듯 달리고 있는 특이한 개성에 대한 경외와 함께 가고 또 가도 대답이 없는 삶의 진실을 찾아 단거리 경주를 하는 듯한 시림의 모습에, 내 하찮은 생애의 발자취가 투영되면서 가슴에 맺히는 무거운 눈물이 말문을 닫게 하더라”고 나중에 회고했었다.

원장님께서 사셨던 해남읍 부흥리 초입의 실개천 가에는 갈대와 자운영이 모여 살았다.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 겸 살림집의 앞마당에는 영산홍이 저 혼자 고왔다. 사방 벽면이 책으로 빙 둘러싸인, 중앙의 커다란 책상에서 밤늦도록 작업을 한다고 하셨다.

2002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대형 문화 프로젝트인 해남의 <패총마을-군곡리 문화, 역사 만들기 사업>에 관한 『마한 소위건국 국중대회 재현』 대본들이 수북한 가운데 컴퓨터 커서가 명멸하고 있었다.

‘군곡 패총문화의 중심연대는 원삼국시대-역사적으로 삼한 시대에 해당하는 마한 문화로 되어 있다. 그 배경이 되는 백포만 일대의 선사문화의 양상과 원삼국문화-마한문화 자체인 군곡 패총문화의 내용과 편년 문제, 그리고 해남지역 마한 세력과 백제와의 관계’ 등의 내용이었다.

나는 『환단고기』의 내용을 판소리화 한 작사를 맡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함께했던 최상화 교수의 작곡과 박병천, 안숙선 선생님과의 판소리 작업은 지금도 기쁨으로 남아있다.

다음 해 칠월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남문화원 주관으로 내 출시집 『그리움으로 자전거 타는 여자』 출판기념회를 했다. 해남문화원 가야금 교실 학생들의 고산가사 가야금 병창과 아쟁산조, 한영자·정순이 선생의 <시인 찬가> 입춤, 축하 무대는 해남을 옮겨 놓은 것 같다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원장님께서는 “꿀덕개 마을의 작은 아기, 시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바칩니다”라는 인사말을 통해 “먼 훗날에도 우리 속에서 사랑하고, 울고, 웃고, 흑천등 치는 폭풍 속에서도 지금 시집가는 처녀같이 그리움을 안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시인의 나라 한국, 2003년 여름 해남대회”를 개최하시고 서울과 해남의 문인들을 초대하여 녹우당으로부터 보길도 세연정까지 고산 윤선도의 발자취를 따라 문학기행의 기회를 주셨다.

인생은 짧고 예술을 길다고 했던가. 원장님께서 가신 지 17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떠나기 3일 전에 쓰신 시를 통해 그를 만난다.

인연이란/ 이렇게 사무치는 것일까?/ 인연은 생명이니/ 인연이 다한 끝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굴러 내릴 실 끝을 걸어 놓고// 나는 생명이니/ 내 안에 있고/ 물속에 있고/ 나무에 있고/ 푸른 생명 안에 있고/ 조막만 한 참새 속에 작약 한다.

- 황도훈, 「기세사棄世詞」 전문

돌아오지 못할 이름을 만진다는 것은 피 울음으로도 어찌지 못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파이프 담배와 녹차를 즐기시고, 형형한 눈빛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생전의 원장님 모습을 오늘도 조막만 한 참새 속에서 발견한다.



초가지붕

김용준

눈보라가 휘날리던 어느 날 뜻단배 한 척이 세찬 바람에 뜻대를 펄럭이며 모래 백사장 위에 정박했다. 배 위에는 벗짚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벗짚을 나르기 위해서 지게와 뜬리를 들고 와서 이고 지고 벗짚을 나른다. 흰 눈은 머리에 수북이 쌓이고 눈썹에도 눈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나도 지게에 얹혀 실어 언덕길을 깅낑거리며 벗짚을 나른다. 아버님은 벗짚을 꼬아 새끼줄도 만들고 이영도 만들어 날을 잡아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헌 지붕을 걷어내고 새 지붕으로 단장을 하면 초가집이 만들어진다. 일하다 힘들면 잠시 지붕에서 내려와 막걸리 한잔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깔깔 웃으며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시던 아버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밤이면 동네 꼬마 녀석들 손전등 들고 밤길을 걸으며 백설기 같은 눈을 뾰드득 뾰드득 소리를 내며 발자국을 그림으로 남긴다. 손이 시려 호호 불고 귀가 시려 어루만지며 흘러내리는 콧물을 팔소매에 쑥 문질러 흔적으로 남기고 가다가 어느 한 녀석이 오줌을 누면 덩달아 누면서 누가 제일 많이 가기 시합을 한다. 네가 일등 내가 이등 등수를 자랑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나뒹굴고 그래도 재미있어 웃으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참새를 잡으러 다녔다.

한 녀석의 어깨 위에 올라가 손전등으로 초가집 처마 밑을 비추면 새가 불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재빨리 손으로 새를 잡는다. 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도망 가려 애쓴다. 처마 밑에 길게 뻗어 있는 고드름 하나를 따서 우두둑 씹었다. 추위에 떨어가며 새를 잡아 아궁이 이글거리는 장작불에 참새를 구워 먹으면 소고기 보다 더 맛있게 먹었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장마철 여름이 되면 방 안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한다. 방바닥에 양동이, 바가지, 밥그릇을 군데군데 놓고 시멘트 봉지로 방바닥을 깔아놓아도 빗물에 째지고 벗겨지곤 하였다. 양동이에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온 식구가 새우잠을 자야만 했다. 우기가 끝나면 다시 시멘트 종이를 조가조각 오려서 구멍 난 천장에 밥풀로 더덕더덕 붙이곤 하였다.

밤길을 거닐며 눈 위에 오줌으로 그림을 그리던 친구, 코 질질 흘리며 팔소매에 흔적을 남기던 친구 어깨동무 하고 밤길을 거닐며 손을 호호 불며 쳐마 밑에 참새를 잡던 꼬마 녀석들, 얼음판에 나뒹굴어도 아이 좋아라 콧노래 부르던 동무들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고 싶다.

동심으로 돌아가면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아련히 멀어져 가는 옛 추억으로 기억되어 초가지붕을 상상으로 내 마음속에 그려본다.

소상공인

김현기

2010년 3월 영흥상공인협회 창립 준비모임 후 6월 14일 창립총회로 창립회원 13명으로 출발했다.

2011년 6월 해피타운에 제과 제빵기기(550만) 설치 기증 및 영흥중학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9월에는 영흥면 노인회 회원 213명을 모시고 대부도 동춘서커스 관람 행사(700만) 후 식사 접대까지 진행하는 봉사 활동을 창립 1년 만에 진행하면서 2012년 6월에는 옹진군 장학회에 500만 원 전달하기도 했다.

영흥면에서 최고의 단체로 발전해 가면서 매년 환원 사업 및 봉사 활동을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제1회 영흥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군수님(조윤길)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사진 공모전 사업을 옹진군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는 영흥상공인협회 창립 발기인으로 출발하여 총무 4년 부회장 2년을 거쳐 2018년 회장에 취임하면서 처음보다 침체된 협회를 어떻게 하면 초기처럼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알게 되었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홍종진 회장님과 상담하면서 옹진군소상공인연합회가 백령도 최윤경 2기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옹진군소상공인연합회 최윤경 회장님을 소개받아 같이 옹진군소상공인연합회 활동하기로 하고 수석부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약 1년 이상 활동 후 2019년 6월 옹진군소상공인연합회 3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소공인연합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1기와 2기 때는 초기라 회원구성도 없이 임원진 몇 분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3기부터는 CMS 회원 가입이 시작되면서 회원확보에 전념을 다 했다. 내가 취임한 2019년 6월 70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매년 성장해 갔다.

2019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힘겹게 진행하였다. 이 어려운 과정을 도와준 김필성 대표님과 최현영 대표님 외에도 모든 임원진들의 도움으로 2021년 회원 500명을 돌파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부로 선정되기도 한다.

2022년 4기 회장이 되자마자 바로 1월 13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겸직하게 되면서 인천시 회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해 8월 31일 인천광역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용진군 회장은 최현영 회장에게로 위임했다.

어느덧 인천광역시 회장 임기 만기도 다가온다. 2024년 1월이다.

2010년 상공인협회로 출발하여 2023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까지 소상공인을 위하여 봉사해온 지 13년이 지나간다. 과연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 리더였는지 되돌아본다.

청룡기 靑龍旗 야구野球의 전설 神話

- 球都 인천의 야구 Archiveing -

김홍규

1950년대 전반, 6·25 전쟁의 상흔이 도시 도처에 아픔으로 서려 있고, 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워 희망이 요원한 시절이었다. 시절이 아무리 힘겨워도 젊은 2세들의 향학열과 자식에 대한 희망은 뭉개구름같이 피어나던 시절.

인천에는 역사 깊은 창영, 송림, 서림, 축현, 신흥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었다. 중학교는 인천중, 동인천중 동산중, 해성중, 대건중, 인천여중 월미여중, 박문중, 고등학교는 인천고, 동산고 인천공고 인천여고, 박문여고, 월미여상, 상고 등 미래의 꿈나무들이 시가를 누비며 등하교하는 발걸음이 미래의 희망이었던 시절이었다.

조선일보사는 1947년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를 창설 개최 하여 전국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로 자리매김하며 전국고교야구경기의 메카로 우뚝 서 있었다.

1953년 제8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최고의 인기리에 동대문야구장에서 관중 3만에 이르는 빅 이벤트로 열리고 결승은 인천고와 선린상고로 5:1로 인천고가 승리하고, 이듬해 1954년 제9회도 인천고와 선린 상고의 결승에서 5:2로 인천고가 승리하여 전후 복구에 암울했던 인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의 시가행진에 시민들은 함께 신이 나 있었다. 활기가 살아났다.

그런데 1955년도 6월 제10회 결승에는 한 고장 인천고와 동산고가 결승에서 한판의 명승부를 갖게 되었다.

당시 지역 예선에서 인천고는 동산고에 절대 우위에 있었기에 세평은 인고가 3연승 받아 든 밥상이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교육의 참 뜻을 배워야 한다. 야구의 진미를 이 경기에서 맛보아야 한다. 아니 인생의 여정을 왜 야구에 비견하는 가를 배우자. 당시 1955년 6월의 서울 양진영의 교육현장을 되돌아보자.

인천고는 청룡기 2연패連霸의 저력에, 지역예선에서의 우위를 생각하며 결승은 받아 놓은 밥상인양 샴페인을 미리 마셔 벼려 우승에 취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자세가 흐트러졌다 보면 바로 잡아주는 덕장이, 스승이 없었다고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반면 동산고 숙소는 기회는 왔다, 이긴다, 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는 긴장 속에 결의를 다지며 결전에 모두가 한몸 한마음, 투지로 끌끌 뭉쳤다. 이기자 이긴다, 박현덕 감독님의 결의는 선수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 졌다.

결승전이 시작 됐다. 투지에 찬 동산고, 1학년 신인식의 공은 회가 거듭할수록 살아나고 동산 팀의 사기는 충천하고 인고팀은 “아니 뭐냐?” 교만의 그림자는 흔들리기 시작하여 혗방망이질로 회가 거듭 갈수록 침울함에서 절망으로 결국 9회 1:1 동점에서 연장전 돌입, 연장 3회에 인고 투수의 폭투에 힘입어 동산고는 천금 같은 1점을 뽑아 그날의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이 야구의 진미며 인생 여정의 교훈이리. 인천고는 교만 때문에, 덕장이 부재하여 다 잡은 청룡기 3연패의 역사적 쾌거를 놓치고, 동산고는 겸허한 자세로 투지를 일깨운 덕장의 훈육이 새 역사를 쓰는 청룡기 3연패의 기초를 다지고 그 슬하의 학생 모두가 졸업 후 이 투지의 정신 아래 사회 각 층에서 청룡기의 정신을 살아가니 조선일보의 청룡기 대회의 뜻과 교육 현장의 훈육의 참뜻이 빛을 보는 야구장이 인생 훈육장이 되었다.

이로부터 동산고는 1956년 11회, 1957년 12회 대회 3연패의 쾌거를 이룩하여 청룡기를 영구 보전 하는 영광과 역사를 만들어 간직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인천은 내리 5년간 청룡기의 주인으로 명실 공히 구도 인천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었다. 여기에는 야구사에 길이 남겨야 할 지도자의 훈육과 열정을 반드시 기록하여 후대에 이어져야 하겠기에 여기에 기록으로 남긴다.

동산고 박현덕 감독님의 리더십

어린 선수들을 조련하여 기적 같은 청룡기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박현덕 감독님의 리더십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1. 전후 악조건에서 동산 야구를 성장시켰다

1950년대 초 전쟁 중에 동산중고등학교 교사校舍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당시 동산중고는 신흥동 신흥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쓰던 때였고, 동산 야구팀은 주말에 동산고 교정에서 미군들과 야구시합을 가져 야구 시합을 통하여 야구의 기초와 스포츠맨십을 체득하고, 특히 실전에서의 경기력을 키웠다. 또한 경기 후 미군이 주는 야구 장비로 실력을 키우게 된 것은 동산고 야구의 행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선수로 잘 키워 놓으면 외부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하여 뽑아 가곤 했다. 박현덕 감독님의 아픈 마음을 해아리게 된다.

2. 한국 야구의 간판스타인 박현덕·박현식 형제

이들 형제는 자랑스러운 동산 야구의 동맥과 정맥 같은 존재다. 자신의 형제들이 겸비하고 있는 천부적 야구 실력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주었다. 그 중 박현덕 감독은 1948년에 상업교사로 부임하여 야구 감독을 맡으면서 1977년 정년퇴임 시 까지 30여 년 간 후학들을 정성으로 가르쳤고, 미군으로부터 되찾은 동산 야구장은 야구장으로 최고의 입지 조건이었다 이 야구장에서 오후 방과 후 열심히 지도하는 박현덕 감독님의 열의에 찬 모습이 동산인들의 눈에 선 하다.

3. 선수들이 기억하고 있는 박현덕 감독님의 훈육의 말씀

- 3-1 용장 밑에 약졸 없다. 나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나다.
- 3-2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팀이 강한 팀이다.
- 3-3 독하게 참으며 훈련한 것이 실력으로 꽂피게 된다.
- 3-4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것이다.
- 3-5 (청룡기 1승 후) 모든 팀들이 우리를 노린다.
- 3-6 모든 고교팀들이 우리 팀을 분석한다. 새롭게 변신하자.
- 3-7 큰 무대에서 강한 동산고, 승부근성과 투지가 동산 야구다.
- 3-8 (청룡기 2승 후) 너희들은 졸업하면 행운의 7회다.
- 3-9 Lucky Seven, 7회가 동산의 역사를 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4. 매일 아침 남상협 교장선생님의 격려 전문을 읽다.

청룡기 3승을 목표로 본선 경기 때, 아침 식사 후 교장선생님께서 보낸 그 격려 및 독려의 전문을 읽어 주던 때의 결의 찬 감독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당시의 선수들을 회고한다.

감독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의 전보는 그 의미가 매일 다르다.
“기필코” “드디어” “마침내” “결국” “동산의 러키세븐” “영광의 7회” “보배 같은 우승의 주역” 이라는 용어를 바꿔 사용하며 열의 찬 전보를 보내셨다고 선수들은 기억하고 있다.

남상협 교장 선생님과 동산고 야구 사랑

당시 선수들이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의 야구 사랑은 다음과 같다.

1. 선수의 유니폼을 맞추어 입을 정도로 야구 사랑이 각별하였다. 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교무에도 임하고 유니폼 입고 야구 경기장에 나와 감독 옆 벤치에 앉기를 자주 하여 야구 사랑 열정이 대단하였다.

2. 새 학기 교장선생님 훈시는 학생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러분은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다. 땀 흘리며 운동하는 자세로 학업에도 충실하기를 바란다.”

3. 대회 출전 때 훈시 동산인으로서의 스포츠 맨십 당부

“여러분은 평소 연습을 위해 손에 물집이 잡혀 피도 흘렸을 것이고, 피곤해서 코피도 많이 쏟았을 것이다. 또한 운동하기 힘들어서 비 오기만을 기다린 날도 많았을 것이다. 그뿐인가 땀과 눈물은 얼마나 많이 흘렸을지를 이 교장은 잘 안다. 그 흘린 액체의 양만큼 실전에서 실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훈련의 법칙이고 진리다. 최선을 다 하되 동산인으로서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명심하고 부디 부상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기쁜 소식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박수로 여러분의 출전을 응원한다.”

4. 청룡기 3연패 도전할 때의 선수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4-1 청룡기 3년 우승 목표로 본선에 진출했을 때는 매일 밤과 아침에 교장선생님의 격려 전문이 도착했다. 게임이 있는 날 밤에는 “선수 여러분 축하의 박수와 함께 참말로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전보가 도착하였다.

4-2 아침 식사 후 감독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의 격려 및 독려 전문을 읽어 주었는데 선수들이 기억하는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필코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 파이팅!

2. 드디어 선수 여러분은 동산고의 명예를 드높인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3. 마침내 청룡기 3연패의 꿈을 꾸었습니다. 내 꿈은 틀린 법이 없습니다.

4. 결국 자랑스러운 청룡기를 보배 같은 우승 주역 여러분의 이름이 교장실에 영구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5. 여러분은 졸업하면 7회, 동산의 러키세븐 7회가 영광의 역사를 이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시 동산고 투수였던 신인식에 대한 세평은 아래와 같다.

신인식, 혜성처럼 등장한 초고교급 투수이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전문가들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빠른 직구, 혜성처럼 등장한 고교 1년생 투수
 2. 동산고 전성시대를 예고한 초고교급 투수
 3. 전국 고교의 강타자들, 신인식 앞에선 헛스윙
 4. 특유의 강속구, 상대의 기를 꺾은 배짱, 노련미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동산고 마운드
 5. 투수 혼자 한 개의 안타도 허용치 않고 승리를 이끈 노 히트 노련의 주인공
= 1957년 11회 청룡기 대회 우승 때
 6. 고교 야구의 역사적 존재, 전설의 존재, 두둑한 배짱, 강인한 체력, 투철한 승부근성
 8. 무적의 오른팔, 무서운 강속구, 결국 청룡기를 동산고에 영구 보존케 하다.
 9. 재일 동포 선수단, 신인식 투수에겐 치욕의 패배
 10. 재일 동포 선수단, 단 2개의 안타, 11개의 삼진을 당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 당시 전문가의 관전평이다.
 11. 청룡기대회 두 차례의 고교 투수왕, 최우수상, 홈런 상, 타격 10점 표창 받다.
 12. 청룡기, 황금 사자기, 화랑대기, 4 도시 대항전, 전국체전 등 모든 경기 석권
 13. 1학년 때부터 클린업 트리오 강타자, 3년 동안 상대팀 타자들을 놀라한 투수
 14. 보통 한 게임에서 평균 15개 정도의 삼진, 노 히트 노련 기록 수차례 성취
 15. 남다른 투지와 열정적 선수, 투수가 잡지 않아도 될 케쳐풀리이나, 1루 쪽 플라이까지 달려가 잡은 정력적 투수
 16. 신인식 때문에 피어 보지 못하고 사라진 그 많은 투수들이 신인식 그늘에 가려 (1955-1957)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 아깝다.
 17. 고교 3년간의 과로, 혹사한 몸, 그 후유증(어깨부상, 손목부상)으로 너무 일찍 야구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한국 야구계의 손실이며 비극이었다.
- 이들의 바탕 위에 지금의 류현진, 김광현, 박진만 같은 걸출한 야구인재들이 세계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 당시 현역으로 청룡기 3연패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던 동산고 염종운(88세), 박기련(86세) 두 분의 추억담을 들어본다.

염종운 : 당시 물자 부족 시대라 야구 용품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미군들과 어우러져 시합하다 그들이 버린 야구 방망이를 우리 키에 맞게 잘라 다듬어 사용하고, 부러지면 못질하여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했다. 야구공도 실밥이 다 터지고 없어지면 굵은 실 구해서 밤새 꿰매고 손질하여 다시 쓰고 크립도 터지면 실로 꿰매서 쓰곤 했다. 참 어려운 살림살이었다. 헬멧도 없어 면으로 만든 운동모자 쓰고 야구공 맞으면 한동안 머리가 명해졌다. 목숨 걸고 운동했다. 한창 먹고 자랄 때라 운동 후 짜장면 한 그릇이면 최고의 보약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때가 행복했다.

박기련 : 당시 1957년 청룡기 제10회 대회 개최는 부산에서 했다. 동대문야구장을 성인 아시안 야구경기장으로 쓰기 위해 수리 중이었다. 서울에 그에 대신할 야구장이 없어 부산으로 갔다. 통일호 타고 12시간 걸려서 갔는데 참 지루 했다. 지금은 4시간 거리를 그때는 12시간 걸렸다. 참 많이 좋게 발전 했다. 감동스럽다.

부산 여관에 들면 일절의 외출이 금지되었다. 엄격했다.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내와 절제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오직 그날의 승리에 집중했다.

감독님의 성심 어린 격려, 응원, 목표 의식은 지금도 큰 배움으로 몸에 익어 있다. 또 하나, 당시 재일 교포 야구단이 방한하여 우리와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우리의 실력에 감동하여 우리 동산고 야구팀을 일본으로 초청 순회 친선 경기를 갖으려 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 감정으로 국교 수교가 없어 그 초청이 무산되어 우리 야구팀의 명성이 국내에만 머문 것이 참으로 아쉽다.

청룡기 3연패 출전 선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청룡기전국고교 야구대회 제10회 1955년 6월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천고 대 동산고 동산고 2:1 인천고 연장 12회

공격 타순에 따라

1. 좌익수 이규정
2. 포수 임준호
3. 1루수 이윤영
4. 유격수 박하성
5. 투수 신인식
6. 2루수 박의양
7. 3루수 고덕영
8. 중견수 김완형
9. 중견수 꽈인성, 중견수 이길용

청룡기 제11회 대회 1956년 6월 서울 동대문운동장

동산고 대 중앙고 동산고 1:0 중앙고

1. 좌익수 이규정
2. 우익수 조병국
3. 1루수 이윤영
4. 유격수 박하성
5. 투수 신인식
6. 2루수 박의양
7. 중견수 김완형
8. 3루수 고덕용
9. 포수 이길용

청룡기 제12회 대회 1957년 7월 부산 공설운동장

동산고 대 인천고 동산고 3:1 인천고

1. 포수 정인성
2. 중견수 박기련
3. 투수 신인식
4. 유격수 박하성
5. 우익수 이강용
6. 3루수 염종운
7. 2루수 김응희
8. 1루수 허명호
9. 좌익수 조한수, 포수 김성문

참고삼아 청룡기 역대 우승팀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3년 연속 우승팀 동산 고교 (1955-1957)

덕수 상고 (2012-2014)

2년 연패 우승팀 경남고 (1947-1948)

인천고 (1953-1954)

경복고 (1967-1968)

(1974-1975)

부산고 (1978-1979)

경남고 (2006-2007)

동산고 신인식 투수의 강속구는 역사에 남을 투구였다.

1955년 10회 대회 시 인천고 상대로 2:1 승리 1점만 내주고

1956년 11회 대회시 중앙고 상대로 1:0 승리 한 점도 안 주고

1957년 12회 대회시 인천고 상대로 3:1 승리 한 점만 내주고

두 번에 걸쳐 MVP 상과 두 번에 걸쳐 노히트 노런의 투구

위와 같은 구도 인천의 씨앗들 중 옹진군 출신 김진영(1935-2020) 선수도 있다.

동산중학교에서 야구 배워서 인천고 유격수로 꽃을 피우고 실업팀의 감독 등
야구계의 레전드로 명성이 높았다. 그분의 아들 김경기 또한 야구인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 외 동산고의 김응희, 김천해, 김태홍도 옹진군 사람들이다. 옹진군의 인재는 야구뿐 아니라 레슬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953년 아시안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 한 임배영 선수 또한 옹진군 출신이다. 동산고 육상 선수로 당대의 장거리 3,000m와 5,000m 마라톤에서 기록 갱신 하며 우승한 장종철 교수도 옹진군 북도면 출신이다. 그분은 지금 신학박사로 후학 양성에 공로가 크며, 본 옹진문화지에도 좋은 글을 많이 기고하며 옹진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체육행정의 기틀을 다잡아 준 체육행정가 최세진 교수도 옹진군 사람이다.

구도 인천의 과제는 옛 초등학교에 야구 명문이었던 축현, 창영, 서림, 초등학생들의 야구 특활이 활성화되어 중학교로 이어지고 중학교에서 고교로 이어지는 꿈나무 양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진정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 정신을 올곧게 가르쳐 줄 제2의 박현덕 감독이 요망된다.

여려서 그 소질을 발견하고 꾸준히 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구도 인천의 명맥을 이어가는 길이 아닌가 하며 옹진군 덕적고등학교의 야구부 결성과 그 육성에 기대하는 바 크다.

특히 덕적고교의 야구부 결성 존재로 옹진군이 각 도서가 품고 있는 체육 기능자들의 진학 기회가 넓어졌고, 유관단체의 후원과 격려 응원의 기회가 높아서 구도 인천의 명성을 되찾을 기틀이 마련되었다.

앞서 말한 바 같이 야구는 인생 여정의 그 자체이므로 선택하고 집중하며 열심히 룰에 충직하면 만루 홈런의 역전기회를 반드시 맞이한다. 배우는 학생이나, 현역 야구인이나, 일반 그 모두가 야구의 묘미와 스릴을 함께 느끼며 사는 삶, 영광 있으리라.

옹진군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새싹이 꽂피우도록 성인들이 관심 속에 길을 찾아야겠다.



6·25 남침 전쟁의 전말

류청영

김일성의 6·25 남침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을 막아낸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명한다.**

2차 대전 기간에는 미·소가 협력 관계였으나, 전후 국제 질서 패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6·25 남침 시 국제 정세는 미·소간에 이념 대결을 하고 있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잘살고 있어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잘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정책이었고, 소련도 공산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로 잘 살고 있으므로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정책으로 미·소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이념 대결을 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남침에 공산국가인 소련, 중국이 지원하고,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방어에 나선 것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 22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3개국과의 전쟁이었다(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야당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고, 정부 비판 언론이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 3가지가 없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 수 있다).

6·25 남침 시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알타회담 합의에 따라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주둔했다가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자, 소련군은 철수를 하였고, 미군은 6·25 남침 1년 전인 1949년 6월 29일에 철수하였다(만약 미군이 1개 연대 병력만 남아 있었다면, 소련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미·소·영의 대통령에 의한 알타회담은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온 회담이었다.

6·25 남침이 일어난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이 에치슨라인을 선포하였다. 에치슨라인 선포는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에치슨라인 선포는 공산주의 세력에게 공격하라는 초대장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즉, 미국 방위선이 남한과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미국이 방위한다는 에치슨라인 선언이었다.

또한 남한에 정치인 이승만, 김구, 조봉암, 여운영, 박현영 등이 있었는데, 박현영이 월북하여 부수상으로 있으면서 남침하면 남한 인구의 80%가 더 되는 농민의 봉기로 쉽게 남침에 성공할 것이라며 남침을 부추겼다(6·25 전쟁 후 박현영은 김일성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는 미국이 한국 방위를 하지 않는다는 에치슨라인 선포로 김일성은 남침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하면 성공에 자신 있음을 설명하자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확산한다는 자신의 정책과 맞아 남침을 지원하여 남한에는 한 대도 없는 탱크 142대와 대포, 중화학무기 등을 지원받고, 마오쩌둥의 남침 지원 약속으로, 남침 일자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로 정했다. 국방부에 간첩을 침투시켜 간첩의 활동으로 6·25 남침 전날에 맞추어 38선에 배치된 국군 3분의 1 이상을 휴가 보내고, 외박 외출을 대량으로 실시했다. 남침 15일 전인 6월 10일 군 수뇌부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6·25 남침 당시 대부분의 사단장이 부대를 장악하지 못하였다. 남침 전날인 6월 24일 서울에서 장교 구락부 신축 축하 파티에 채명덕 참모총장 등 국방부 중요 간부가 참석해 축하 파티를 즐긴 후, 군 중요 간부를 연합신문 주필 정주은(휴전 후 간첩으로 처형되었다.)이 다시 국일관으로 초대해 새벽 2시까지 독한 술을 먹여 중요 군 지휘관들이 술에 끓어떨어진 새벽 4시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였다. 그런데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는 동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서는 서부전선에서 국방군이 침투하여 국방군을 몰아내기 위해 전투를 한다며 작전명 폭풍으로 진격 명령을 내렸다. 전차 142대와 전투기 170대로 공격을 시작했다(대한민국은 훈련기 20대가 있었다).

군의 중요간부들이 술에 끓어떨어져 새벽 4시에 비상을 발령해도 비상소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 휴가, 외박, 외출 등으로 텅 빈 38선을 넘어 남침하였다.

남침에 성공한 것을 확인한 김일성은 11시에 평양방송을 통해(당시에는 TV가 없었음) 국방군이 해주를 침공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선전포고를 하였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남침 6시간이 지난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 남침일이 일요일이었는데 프란체스카 대통령 부인은 경호문제로 일요일에 치과에

가고, 대통령이 경회루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김일성이 남침하여 9시 현재 개성과 춘천이 함락되었지만 국지전이고 국방군이 응전하고 있으므로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신성모 국방장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로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는 투쟁 의지를 표시하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미국대사에게 트루먼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남침을 알리고 지원요청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장면 미국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김일성의 남침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남침을 알리고, UN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를 통해서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므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장의 초청으로 남침 다음날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발언권을 얻어 4분간 김일성의 남침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은 UN에게 달려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6개국(현재는 비상임이사국 수가 12개국, 한국은 내년 1월부터 비상임이사국이 됨), 전체 11개국이었는데, 공산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이 불참하고, 나머지 9개국의 찬성으로 안보리 82호가 가결되었다.

82호 결의안은 북한의 남침은 평화를 파기한 것이며,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북한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었다.

26일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서울시장 이기붕이 같이 대통령에게 다시 가서 잠시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국민을 여기 두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며 완강히 반대하자 이기붕이 수원까지만 잠깐 가시면 작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작전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27일 새벽 3시에 서울에서 기차를 탔는데, 수원역에는 정차도 안 하고 대구까지 직행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 까지 간 것에 화를 내며 다음날 대전으로 올라왔다.

한국군은 전쟁 발생으로 군 지휘 체계를 전시 지휘 체계로 바꾸었고, 한국군 용산 전쟁 지휘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군은 27일 안에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여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포기하고, 28일 새벽 3시에 철교와 대교를 폭파했다. 철교는 폭파에 실패했다(현재는 철교 4개, 대교 27개로 31개의 다리가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 땅 일리노이주 인디펜던스에서 휴가 중이었고, 남침 시간이 미국에서는 저녁시간이었는데 저녁 늦게 된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김일성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이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은 딘 에치슨 미국무장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휴가 중이고 귀찮아서 그 보고를 묵살했다면, 20일도 안 되어 한반도는 공산화되는 것이 확실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방위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정책을 바꾸어 참전을 결심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트루먼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반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묵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운 남침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공산국이 되면 공산주의 국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자유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미 의회의 결의로 출전하는 안이 있고, 둘째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미국도 UN군으로 출전하는 안이 있었다.

첫째 안의 경우 미국은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지만, 외국에 파병하는 데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미 의회에 파병요청서를 보내고, 의회에서 가부에 월가 월부하다가는 파병하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통한 파병을 포기하고, 둘째 방안으로 신속히 파병을 결정할 수 있는 5년 전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미국도 UN 회원국의 일원으로 참전해야겠다고 판단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였다. 6·25 전쟁 5년 전인 1945년 10월 24일에 설립된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없었다면,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인민군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함락될 것으로 판단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참전하기로 결심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UN 회원국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군 남침에 UN군이 참전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UN 회원국에게 참전을 설득할 수 있고,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UN 회원국이 참전할 수 있었다.

첫째, UN 회원국이 참전해야 할 이유로 미국과 영국, 소련의 대표가 알타회담에서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38선 남북으로 나누어,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남북으로 분단시킨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남북이 건국하기 전인 1947년 12월 10일 UN 총회의 결의로 남북이 인구 비례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단일 국가를 건국하라고 결의를 하였다. 김일성은 인구 비례로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8선 이북의 인구가 남쪽의 반도 안 되어 북한 대의원 수가 3분의 1도 안 되므로 김일성이 구상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건국이 어렵다고 보고 UN 결의안을 거부했다. 반면 남한은 이승만 등 정치인들이 UN 결의안을 받아들이고 UN에서 파견한 선거감시단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총선으로 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선거를 진행하자, 소련 공산당이 김일성에게 남한의 총선거 방해를 지시했다. 남한이 총선거로 건국할 경우 대한민국이 UN에서 한반도 합법 정부로 승인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소련 공산당이 남한의 5월 10일 총선거를 파산시키라는 지시로 김일성이 남로당을 파견하여 선거를 방해하고 테러를 하면서 4월 3일 제주도 폭동을 일으키었다.

제주도 북제주군의 선거구 2곳에서 국회의원 2명은 폭동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200명 중 198명의 국회의원을 5월 10일 선거로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유진오 박사가 초안한 대한민국 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 20일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7월 24일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려 했는데, 한 나라를 건국하려면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당시 국토와 국민은 있으나 주권이 없었다. 일제하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일본이 갖고 있어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우리의 주권을 미군이 갖고 있었다. 이에 미군 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으로 부터 주권을 인수받아, 1948년 8월 15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했다(북한은 1948년 9월 9일 건국했다). 전국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었고, 그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성공으로 2차 대전 후 건국한 140여 개국이 6.6%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360배 성장하여 우리만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 UN군이 참전해야 할 이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인데, 그해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한 제3차 UN 총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승인의 건이 당시 UN 회원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 6개국의 반대, 1개국 기권, 3개국 불참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다. 소련이 제출한 김일성이 건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승인의 건은 48개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 내용을 UN 회원국들에게 참전해야 할 합당한 이유로 설명하였다. UN이 승인한 합법 정부를 UN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 정부가 침략하여 성공하면 UN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무너진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내용으로 UN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고, UN 회원국이 참전의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둘째로 UN 회원국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시 6개국의 비상임이사국과 5개국의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 강대국이었는데, 소련의 불참으로 UN 회원국이 참전 결의를 하였다. 소련의 불참 이유는 1950년 6·25 남침 당시의 UN 상임이사회 회원국인 중국은 장개석 민주주의 정부가 마오쩌둥에게 밀리어 6·25 남침 10개월 전에 대만으로 피난 간 국민당 장개석 정부였다. UN 창설이 1945년으로 장개석 정부가 6·25 전쟁 5년 전부터 상임이사국이었다. UN 주재 소련 대사가 쫓겨난 장개석 대만정부가 갖고 있는 UN 상임이사국 지위는 강대국에 부여된 상임이사국이므로, 중국 본토 정부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미국이 응하지 않자, 소련대사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UN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을 때였다. (대만은 그 후 29년간 자격을 유지하다가 29년 후인 1979년 대만 대신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대만은 UN 회원국에서 축출되어 현재 UN 회원국이 아니고, 10여 국과 국교를 맺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한 해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있어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부결이 되는 상황인데, 소련 대표의 불참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김일성의 남침에 UN 회원국이 참전하는 안이 남침 3일째인 6월 27일 결의되었다. UN 회원국의 참전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거부권이 있는 소련대사의 불참으로 남침 3일 만에 신속하게 27일 한국전 참전이 결정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서 전후처리 책임자로 있는 맥아더 장군을 UN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파병을 명령하면서 일본에 주둔 중인 스미스부대와 보병 24 사단에게 한국으로의 출전 명령을 내리어 일본에 있던 스미스부대와 미국 보병 24 사단은 7월 1일에 부산에 도착했고, 미국 본토의 육군은 군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남침 28일이 지난 7월 23일에야 미군 선발대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인민군과 미군의 첫 접전은 남침 10일째인 7월 5일 일본에 있던 스미스부대가 오산에서의 첫 접전이었으나, 인민군의 탱크에 스미스부대가 밀리었으나, 오산에서의 스미스부대의 교전으로 대전까지 남침속도를 15일간 지연시켰으며, 남침 25일이 되는 7월 20일에 대전에서 미 24 사단 병력과의 접전이 있었으나, 24 사단 병력이 밀리었다. 하지만 대전에서 낙동강까지 13일간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어 남침 38일째인 8월 3일에 낙동강 철교를 폭파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대전 전투에서 24 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휴전 후 포로

교환 때 나타났다.

천혜의 장해물인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미 8군 사령관의 이름을 딴 워커라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신속히 출병하여 인민군의 남침 속도를 늦추어 시간을 벌어 낙동강 전선에 16개국 지원병이 모일 수 있었다.

낙동강 전선의 한 지역명인 다부동지역의 전선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었는데,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미국 선발대가 7월 23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이곳에 투입된 미군의 불평이 나왔다. “승선 명령에 따라 승선했고, 하선명령에 따라 하선해서 트럭으로 이동하여 도착한 곳이 이곳 다부동 전선이었다. 적군의 포탄에 쓰러지는 함께 온 동료 병사를 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난생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 식민지로 36년간 있다가 건국한 지 1년 8개월 밖에 안 되는, Korea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동방의 작고 가난한 나라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우리는 1등 국민이다.”라는 불평이 나왔다.

이때에 워커 8군 사령관은 “여기서 후퇴는 없다. 후퇴하는 자는 내가 장례식을 치러주겠다. 여러분들의 불평을 나도 들었다. 내가 답한다. 우리 UN군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침략당하고 있는 Korea는 신생국가이고, 가난하고, 작은 나라이지만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침략자 북한은 UN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정부이다. 불법국가가 UN이 승인한 합법정부를 침략하여 성공하면 정의는 죽는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운다.”라고 외쳤다.

북한군은 남침 38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지만, 30여 일이 지나도록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자 김일성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서 9월 안에 전쟁을 끝내라고 하며, 총공세를 지시했다.

한국군 1군단 1 사단장 백선엽 장군 방어지역 다부동 전선에 북한군 3개 사단 2만 여 명의 총공세로 1시단 8,000여 명의 병사들이 후퇴하려 하자, 백선엽(7대 육군 참모 총장, 19대 교통부장관) 1 사단장은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다부동 전선이 무너진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는 나를 쏘라.”하며 백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권총을 빼들고 앞으로 뛰었다. 부하들이 적진으로 돌격하여 빼았긴 위락산 고지를 탈환하여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선을 지켜냄으로써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의 기회가 생기었다.

이때 맥아더 UN군 사령관은 30여 일이나 교착상태에 있는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9·15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항으로 상륙지를

정하고 조사를 해보니 간만의 차가 심할 때는 9m에 이르고, 사리 물때에는 4km의 갯벌이 있고, 상륙지가 높고 수로가 좁아 군함 한두 척만 침몰되어도 작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등으로 상륙작전의 성공률이 5,000분의 1로 평가되는 상륙 작전에 위험한 항구였다. 미국 군 수뇌부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반대하고, 동해안의 주문진이나 군산으로의 상륙을 권유했다.

맥아더 장군은 주문진이나 군산으로 상륙할 경우 상륙작전이 성공해도 상륙작전의 효과가 없다. 인천항으로의 상륙이 어려워도, 인천항으로 상륙해 김포공항과 서울을 탈환해야 낙동강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일거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미국 군 수뇌부의 지시를 어기고 인천으로의 상륙을 밀어붙였다.

맥아더 장군은 군산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군산시민은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비행기로 전단지를 살포하고, 상륙작전 3일 전인 9월 12일 500여 명이 군산항으로 상륙을 하였다. 철저히 인천상륙작전을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작전명을 크로마이트로 정하고 상륙 전날인 9월 14일 덕적도 앞바다에 162척의 군함에 상륙군 7만 명을싣고 대기하였다가 9월 15일 아침 5시 20분에 일본제 상륙정 20여 대로 미군 해병대가 선봉에 서서 함포사격과 비행기 폭격을 하면서 월미도를 그린 지역, 인천항을 레드지역, 송도 방향을 블루지역으로 나누어 7만 명의 상륙군이 3개 방향으로 진격하여 1시간 13분 만인 6시 33분에 인민군 108명을 사살하고, 상륙군 13명 전사로 상륙작전이 완료되었다.

UN군은 서울 방향으로 계속 진격하여, 상륙 13일 만인 9월 28일에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을 인도하였다. UN군의 서울 탈환으로 낙동강의 인민군은 보급로가 차단되어 낙동강에 있던 인민군은 각자도생으로 북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민간인을 닥치는 대로 무차별 살상하고, 포로와 대전 교도소 수용자 전원을 사살하고, 북으로 도주하기도 하고, 길이 막혀서 지리산으로 올라가 빨치산이 되기도 하였다.

UN군은 9월 29일에 38°선에 도착했다. UN군의 참전 목적이 김일성이 38°선을 불법 남침한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 참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UN군의 참전 목적 이 달성되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UN군은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지휘부를 불러놓고, “한국군의 지휘권이 이 나라 대통령인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맥아더에게 있느냐? 내 말을 들을 것이냐? 맥아더의 말을 들을 것이냐? 명령한다.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라.” 하였다. 사실은 6·25가 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서면으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남침 19일이 지난 7월 14일 한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넘긴 상태였다. 법적으로 한국군의 지휘권은 맥아더에게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 명령을 따르라.” 하며 38°선 이북으로 진격 명령을 하였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군단 3 사단장에게 정일권 대장이 10월 1일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 명령을 하였다.(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후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맥아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므로 UN군도 북으로 진격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38°선 북으로 진격 명령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맥아더 장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UN군은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였다.

UN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으로 진격하자, 10월 1일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간청하여 중공군 30개 사단이 서부전선에 18개 사단, 동부전선에 12개 사단이 배치되었다. 서부전선에서 UN군이 10월 19일에 평양에 도착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공격으로 청천강까지 후퇴하였다. 10월 27일에 원산에 상륙한 미 해병대 1 사단은 11월 19일 개마고원 장진호까지 진군하였다. 11월 27일 해병대 1 사단 병력 15,000명 등 UN군 3만여 명이, 동부전선에 배치된 중공군 12개 사단 12만 명과 접전이 있었다. 날씨가 영하 35°에 달하여 윤활유가 얼고, 험한 산악지형에 총에 손이 달라붙는 강추위에서 장병들이 동상으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중공군은 12만 명 중 21,000명이 전사했으나 10만 명이 남아 있었고, 미 해병대 15,000명과 UN군 3만 명 중 7,000명이 전사하여 23,000명이 남아 있었다. 수적 열세로 중공군에 의해 포위당해 전멸 위기에 몰리었다. 군 지휘부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후퇴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올리브 스미스 미 해병 1 사단장은 미 해병대의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었다며, 무기와 대열을 유지하고, 포위망을 뚫고 후퇴를 시작했다. 종군기자가 후퇴하는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진격한다고 하였다. 110km를 걸어 12월 7일 흥남항에 도착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본 대로 미군과 피난민이 흥남항에서 미군 철수 함정 빅토리호에 함께 타고 후퇴를 하였다. 미군 철수를 위해 흥남항에 온 매리디스 빅토리호에 김백일 한국군 제1군 단장이 알몬드 미군 제10 군단장에게 피난민 승선을 간청하여 피난민 승선이 이루어 어졌다. 함경남도 흥남지역 민간인 10만여 명을 자유지역으로 철수시켰다.

서부전선에서도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리어,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23일 워커 8군 사령관이 사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려 지프를 타고 가던 중 서울시 도봉구에서 마주 오던 한국군 6사단 소속 트럭과 충돌하여 전사했다. 후임에 리치웨이 장군이 8군 사령관이 되었다. 서부전선도 동부전선도 밀리어 맥아더 장군은 서울을

내주고 1951년 1월 4일 후퇴를 했다. 소위 1·4 후퇴다.

맥아더 장군은 단번에 50km나 후퇴를 하였다. 마오쩌둥은 계속 추격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공군의 총 지휘관 평 더 화이는 생각이 달랐다. 계속 추격 하면 보급 거리가 멀어지고,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함정에 빠질 것이 염려되어 수원에서 진격을 멈추었다.

맥아더 장군은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50km나 되는데, UN군은 평택, 원주, 강릉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중공군과의 일전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1월 말경 1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정찰대를 조직하여 진격해 보니 수원에서 중공군을 만났다고 한다.

맥아더 장군은 전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진격하여 1951년 3월 25일에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인민군의 남침 38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었다가, 남침 90일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고, 1·4 후퇴 시에는 중공군이 수원까지 왔고, 1·4 후퇴 80일 만인 51년 3월 25일에 서울을 재탈환했다.

서울을 탈환한 맥아더 장군은 자신감이 생기어 북진 태세를 갖추고, 중공군의 보급로만 차단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압록강 넘어 중국 땅에 원자탄을 사용하면, 방사능으로 중공군의 보급을 차단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정중히 원자탄 사용을 건의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만일, 트루먼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통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 6·25 남침 1년 6개월 전인 1949년 1월에 소련이 원자탄을 개발했는데, 만일 중국 땅에 원자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이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소련의 개입으로 인한 세계 3차 대전 방지를 위해, 원자탄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맥아더의 요구를 거부하자, (중국은 1964년 원자탄 개발) 맥아더는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길 수 있는, 갖고 있는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며, 처음도 아니고 이미 사용했던 무기, 즉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9일에 나가사키에 사용했던 무기, 두 번의 폭격으로 강대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그 좋은 무기 원자탄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듯 트루먼을 무시하는 듯한 언사로 원자탄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이 명령 불복종으로 맥아더를 51년 4월 11일 해임했다.

해임 통고를 받은 맥아더는 혼잣말로 “이 녀석이 내 목을 쳤단 말이지. 마음에 들어.”라고 중얼거리며 개인 집이 있는 일본을 통해 귀국 길에 올랐다. 일본을 떠날 때

수십만 명이 일장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대적인 환송을 하였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적국 장수이지만 전후처리 책임자로서 전후처리를 원만하게 한 것이 고마워서 대대적인 환송을 했다고 한다. 핵심전범 7명만 교수형에 처하고, 수많은 전범은 관대히 처리하고, 히로히토 천황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천황제도를 인정하고, 일본이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고마워 수십 만 명이 환송을 하였다고 한다.

일본을 거쳐 미국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은 상원, 하원 양원 합동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였다. 고별 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사라졌다. 고별 연설에서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민족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전쟁은 맥아더 장군 퇴임 후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이 UN 사령관이 된 후부터는 중공군과 UN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사라지고, 상당한 기간 소강상태로 이어져갔다.

38°선을 전후로 일진일퇴를 하고 있었다. 이때 1951년 6월 23일 UN 주재 마리크 (Malik) 소련 대사가 양진영이 전쟁 전 상태인 38°선으로 복귀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참전한 중국보다는 참전하지 않은 소련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 1950년 6·25 당시에는 소련이 지금과 달리 강대국이었다. 15개국이 연합된 소비에트 연방으로 강대국이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만, 6·25 남침 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으로 소련에 속해 있었으나,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우크라이나로 독립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핵미사일 170기와 핵탄두 2,000기가 있었으나, 미국·영국·소련의 안전보장 각서를 받고,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모두 소련에 주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침공을 받게 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6·25 전쟁 시 소련은 원자탄이 있었고, 6·25 남침 시 중국은 건국하여 10개월 밖에 안 된 신생국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천문학적 전쟁 비용과 많은 인명 피해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UN 주재 마리크(Malik) 대사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 1951년 7월 10일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양진영의 핵심 의제에 이견이 커서 진전이 없었다. 1952년 3월 21일 이승만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만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쓴 편지를 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1953년이 되었다. 양진영의 내부에 큰 변화가 생기었다. 즉 미국의 아이젠하워, 2차 대전에서 1944년 6월 6일 0시에 노르망디상륙작전의 총지휘자로 승리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영국 몽고메리 장군, 독일 루멜 장군) 히틀러가 궁지에 몰리자 애인과 함께 지하실에서 자살함으로써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인기로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1953년 1월에 34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소련도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양진영의 내부에 큰 변화가 생기어 휴전 회담이 급진전되었다. 1953년 6월 17일 양진영이 휴전에 잠정 합의를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북의 포로가 되어 강제로 공산군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UN군에게 포로가 된 반공포로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을 북으로 보낼 수 없다며 6월 18일부터 3일간 8개 포로수용소의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남침 전쟁에서 UN군,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며 국익을 추구하였으며, 전후 미국의 원조로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맞서기를 서슴지 않는 행동을 보여준 강력한 지도자였다. 트루먼은 포로 무단 석방으로 이승만 제거 작전을 검토했으나, 미 의회에서 반공투사 이승만 제거에 반대해 작전이 취소되었다. 양진영이 현 전선에서 2km씩 후퇴하여 중간에 4km의 DMZ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휴전에 합의하였다.

3년 1개월간의 남침 전쟁을 끝내고, 남침 1129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의 휴전 조인식에 한국 대표도 참석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휴전 조인서에 한국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국토가 쑹대밭이 되고 한국군 30여 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는데, 분단 상태에서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구걸이 아니다. 무기를 달라.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주겠다.”라고 외쳤다. 이승만은 그 시대의 젤렌스키였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제안하고, 1953년 8월 8일 한미 외무부장관이 가조인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10월 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이승만이 요구한 2억\$ 원조와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설, 강화하는 안을 수용하고, 이승만은 휴전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덜레스 휴전 당시 미 국무장관은 그런 종류의 조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일성의 남침은 3년 1개월, 1129일 만에 끝이 났다.

휴전 협정문에 휴전 후 3개월 내에 외국 지원군은 철수한다는 조항에 의거 철수한 중공군이 티베트 국경으로 이동하여 티베트를 침공하였다. UN군도 철수했으나,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철수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군이 연인원 180만 명이 참전하여 전사자가 43,808명(미국에 건립한 추모의

벽에 기록된 전사자 수)과 부상자가 10만여 명에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부담하고, 김일성의 불법 남침을 막아주었다. 30여만 명의 한국군 전사자와 부상자가 있었다. 참전 16개국도 많은 전사자를 내고 미국을 도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공산화를 막아주었다.

미국 장교의 자식 142명이 참전하여 전사 또는 부상당한 수가 35명이었다. 워커 8군 사령관이 전사하고, 마무리 휴전협정을 주관한 클라크 UN 사령관의 아들이 중대장으로 전사했고, 밴 프리트 8군 사령관의 외아들이 중위로 전사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서 전사했다. 1953년 1월에 미국 34대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취임 2개월 전인 1952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한국전 시찰을 와서 보니 아들이 최 일선에서 전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미 8군 밴 프리트 사령관에게 내 아들이 전사하면 가문에 영광이지만 만일 포로가 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 후방배치를 부탁했다는 말을 아이젠하워 아들이 전해 듣고 후방배치를 거부했다. 자기가 포로가 되면 자결해서 아버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동료들을 두고 자기만 후방 배치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일선에서 전투 중에 전사했다.

미국의 초일류대학 하버드대 학생으로 지원한 학생 중 18명이 전사했다. 불법 침략을 보고만 있기에 양심에 가책이 되어 스스로 참전하여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앞날이 창창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공산화를 막아주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점이 있다. 내가 아이젠하워 아들이었다면, 내가 하버드대 학생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끝으로 맥아더 장군이 미국 국방부 수뇌부의 지시대로 주문진이나 군산으로 상륙 작전을 하여 상륙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공산화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승복했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없었을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었으면, 휴전협정에 따라 미군이 철수했을 것이고, 미군이 없었으면 김일성의 제2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딘 에치슨 미 국무부장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고, 휴가 중에 귀찮아서, 워싱턴으로 복귀해도 시간이 걸리어 보고를 받고 알았다 하고,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남침 20일도 안 되어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6·25 남침 5년 전인 1945년 10월 24일에 설립된 UN이 없었다면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군의 참전에 시간이 걸려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북한군에 의해 합락되었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트루먼 대통령과 UN 때문이다.

더글拉斯 맥아더 장군의 9·15 인천상륙작전의 공로를 기려 자유공원에 동상을 세웠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공로는 맥아더의 공로보다 수백 배 더 크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트루먼 대통령의 공로를,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화를 막아주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국가에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배에는 선장이 중요하다. 배의 선장을 잘못 만나면 배가 좌초되어 배에 탄 사람이 큰 고생을 하는데, 북한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북한 주민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

악독한 독재자, 국민을 노예로 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의해 우리 동포, 북한 주민은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김일성 사진을 손가락으로 지적했다고 공개처형하는 악독한 정권이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우리도 북한 주민과 같은 노예가 될 뻔 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감수하고 참전함으로써 우리를 북한 주민과 같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 준 트루먼 대통령께 감사하다.

워커 8군 사령관의 전사, 클라크 UN 사령관 아들의 전사, 밴 프리트 8군 사령관 아들의 전사,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의 전사, 미국의 초일류 대학인 하버드대 학생들도 자진 참전하여 18명이 사망했다. 미군 연인원 180만 명이 참전하여, 43,808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수많은 UN군 병사가 전사하고, 한국군 30여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국이 지구상의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는 젊은 이들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6·25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이 UN을 통해 신속한 참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이 길어짐에 따라 인기가 22%로 하락하여 1952년 11월 3선 출마를 포기하였다.

전쟁이 끝난 1954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퇴직하여 고향에 가 있는 트루먼 대통령을 방문하여 6·25 남침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은 이겨서도, 겨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6·25 전쟁이 38선에서 멈춘 것은 그 때문이었다.”라고 하며 6·25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전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도처유상수 人生到處有上手

서경희

인생 어디나 고수高手들이 있다는 ‘인생도처유상수’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남이야 알든 모르든 나 흘로 경지에 오른 고수들이 세상 곳곳에 조용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싱그럽고 뿌듯하다.

내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을 ‘인생도처유상수’의 한 증인이라 생각해 본다. 그는 시골에서 자라 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데 도대체 음식이라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일상 음식은 물론 양식집 고급 요리도 한 번 먹어보면 돌아서서 척 만들어낸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부르는 곳마다 달려가 음식을 맡아 놓고 하는 그가 혹 학교 공부를 했더라면 천연의 능력이 퇴보했을까? 비료 주고 물 많이 주어 자유로운 영혼을 꺼뜨려버렸을까?

뭐든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나는 존경한다.

그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을 낫추어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똑같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보고픈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타고난 인자가 70%, 노력이 20%, 나머지 10%는 주위 환경이라고 어느 연구자가 말했는데, 나와 통했다.

우리 고전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명씨’라는 이름이 많다.

처음에는 무명씨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 무명씨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없는 작가야말로 존경해 마지않을 이 땅의 ‘인생도처유상수’의 꽃이 아니겠는가.

무명씨가 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오래 되어 이름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불이익이 무서워 이름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성이어서 이름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춘향전이나 심청전·홍부전 같은 고대소설도 ‘작자미상’의 무명씨 작품이다. 이런 소설은 대부분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엮은 것이라 하지만, 완성의 꽃을 피운 빼어난 작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이름이 없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나게 노는 가면극처럼, 이름을 가리고 한가락 용감하게 시대를 외치고 비틀어보고 싶은 무명씨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이름이 없는 까닭 중에는 이름을 낼 수 없는 여성이 많았다. 「조침문」이나 「규중 칠우쟁론기」 같은 고전문학은 빼어난 여성작가의 글인데, 이름이 없다. 「조침문」은 그나마 '순조 때 유 씨 부인'이라는 조그만 이름이 있어 고맙다고나 할까. 유려하고 섬세하며 완성도가 뛰어난 이 명품 작품을 대할 때마다, 나는 지성과 감성이 흘러 넘쳤던 그때 그 선인들을 그리며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인생도처유상수’는 지금 세상에도 많다.

요즘 방송사마다 큰돈을 내걸고 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놀라운 노래꾼들이 모여든다. 저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저렇게 무대 위에 뛰어올랐나. 이 땅엔 무대 아래에 훨씬 많은 실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세상은 이제 월드와이드웹(www)이라는 한 그물 안에 갇혀 있다. 모두가 그물에 갇혀 퍼덕이는 물고기가 되어 있다. 숨을 곳이 없을 만큼 사회연결망도 단단하게 묶여 있다. 온갖 것이 발가벗겨지고, 뛰어봤자 거기가 거기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인생도처유상수’의 은신처가 있을까? 순간이 빛으로 가닿는 이 찰나 세상에도 빛이 들지 않는 토굴이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토굴 속에는 고뇌하는 구도자들이 더 많이 있을지 모른다. 사실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도력道力を 키우는 구도자이다. ‘인생도처유상수’는 따지고 보면 평범한 것이다. 살다보면 평범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의 상수上手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득도는 깊은 산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계곡에서 하는 것이다. 모두가 나보다 한 수 위이다.

정들면 미운 얼굴이 없듯이, 알고 나면 어수룩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한 가지씩 특장特長을 지니고 살아가고, 누구나 몰래 지구 한 귀퉁이를 쓰는 미덕을 가지고 살아간다. 모두가 위대하고 고귀하다. 이게 진정한 ‘인생도처유상수’가 아니란가.



남은 인생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문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여기저기에서 아기들이 태어난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을 더 살고 싶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외모나 성격, 그리고 지능 등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김승국 칼럼).

사람이 키가 작아도 좋다. 좀 못 생겼어도 좋다. 건강이 최고이다.

이는 아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경험에서 오는 고백이요 간증이다.

사람은 건강해야 사는 맛이 나고 삶이 행복하다. 건강의 가장 최고의 적은 술과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날려버리는 비결을 안다.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술과 담배에 점령당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자들이 적지 않으니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고민이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날강도 도둑놈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대물림해 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바르고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며 강적이라도 벗으로 바꾸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대충은 짐작들을 한다. 인생은 재사용이 없다. 일회용 인생이니 이웃을 한번 돌아보자.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한번 옮겨보자.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바르게 한번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실천에 옮겨보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2023년 옹진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자월도 다례 교육을 마치고

이미라



여름이 다가오는 5월 12일부터 무더운 여름인 7월 17일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소중한 10주 간의 시간…….

다례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나에게는 생소하고 낯설면서도 의미가 있고 즐거운 교육 중 하나였다. 성격이 다소 급하고 텔렁거리는 나는 다례 교육을 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정적이고 차분해지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교수님의 만남

다소곳하고 차분한 그리고 고상한 교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고상한 이미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소리마저 천상 여자인 교수님은 수강생 모두에게 매 수업시간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차의 종류와 분류, 향 그리고 맛, 차이, 역사부터 지금의 현재 생활다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런 교수님의 차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정말 남다르셨다.

수업을 통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의 일상 소통은 물론 자연스레 차를 마시며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매주 만남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집안 사정 이야기 그리고 개인 고민거리도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



을 기다리는 것은 나뿐만이 아닌 수강생 모두에게 해당이 되었다.

한 주 한 주 수업 시간에 발표할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다리며 다례 수업은 나 또한 마음의 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은 물론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을 직접 만들고,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나만의 힐링 차도 만들어 보고, 양말목을 이용하여 차 받침대를 만드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 과정은 매우 즐겁고 소중했다.

또한, 다구를 처음 사용했을 때에 무겁고 사용법도 어렵고 다법 순서도 어려워 많이 헤매고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깨지 않기 위해, 다구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시간은 참으로 정성을 쏟아 다구를 만진 기억이 생생하다. 내 생전 그 무언가를 조심히 다룬 기억이 없다. 그만큼 ‘다구는 차분한 마음으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다.

차는 물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며 물을 붓는 방법, 차의 분량 그리고 다법 순서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었다.

10주간의 다례 수업을 통해 생활 다례 순서를 익히고 차를 대접하기 전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법도 배우고 차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차 분량을 적게 넣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차는 결코 쉬운 음식이 아니란 것을 느꼈다.

수업을 통해 ‘다례는 차를 대법 하는 의식이다’라고 배웠다.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법을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받는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

‘차 문화보다는 커피로 익숙한 현재의 우리는 어쩌면 차를 우려내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삐 일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이다. 기다림의 미학을 차를 통해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는 차 문화를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우리의 전통차의 맛도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강좌와 차에 대한 사랑을 갖는 많은 이들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희망해 본다.

다례 수업을 통해 차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생긴 나를 보며 옹진문화원에서 제공하는 다례 수업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를 높이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옹진문화원에서 주최한 다례 수업은 수강생이 조기 마감될 만큼 인기가 좋았던 것은 물론 열심히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안겨 주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해 주었다. 나 또한 장례상 수상의 기쁨은 나에게 일어난 일 중 매우 기쁜 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쁜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옹진군 곳곳에 옹진군민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의 혜택이 많아지길 바란다. 또한, 이로 인해 옹진군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





만수산 등정기

이상은

오래된 오해가 풀린 건 며칠 전이다. 얼마 후에 밤송이 관찰 수업이 계획되어 있었다. 가시가 있는 그대로의 밤송이가 필요했다. 이 도시 언저리 어디에서 밤송이를 구한단 말인가. 찾다가 없으면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 언니에게 갈 요량이었다. 거기라도 가야 밤송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먼 길이었고 몸살도 있던 터라 미적미적 시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호구지책으로 집 앞에 있는 산에 가보기로 했다. 거기에 뭐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었다. 그곳은 우리 집과 바투 붙어 있는 곳이었다. 기실 산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냥 둔덕이라고 생각했다. 언덕쯤 되리라 생각했다. 나무 몇 그루만 있는.

여름이면 창문으로 보이는 잎사귀들이 보기 좋았다. 비가 오면 자귀나무 꽃이 분홍 실타래를 빗속에 피워 놓는 것도 좋았다. 저녁이 되면 자귀나무 잎사귀가 닫히는 그 시간도 좋았다. 겨울이면 눈 내리는 것도 창문을 열고 손에 눈송이를 담았다. 가을이 되면 마른 잎사귀 속으로 새들이 부스스 부스스 숨어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은 봄밤이다. 나무 몇 그루가 주는 봄밤의 향기는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사치다. 여기까지가 앞산에 대한 생각의 전부였다.

듬성듬성 사람들 발길이 찍힌 길을 따라 들어갔다. 몇 발짝 올라가자 밤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다 빈 껍질이다. 이것도 산이라고 밤나무가 있긴 있구나. 오만한 생각이었다. 이제는 더 올라갈 길도 없을 텐데. 좁게 길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닌 흔적은 아니다. 산책하듯 오르면서 밤나무를 찾았다. 군데군데 밤나무는 있었지만 밤송이는 보이지 않았다. 땅에 떨어진 오래된 껍질뿐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길이 길로 이어져 있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도대체 이 야트막한 언덕이 어디가 끝인지 가보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올라갔다. 오르다 보니 어느새 밤송이는 잊고 있었다. 밤나무를 찾는 시늉은 했지만 오로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했다. 어라? 이것 봐라? 하는 식이었다. 길은 가파르지 않고 평坦 했지만 여기저기 길이 나 있는 것으로 봐서 산세가 넓게 되어 있어 보였다.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

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들이 열매를 떨구고 높이 솟아 있었다. 칡넝쿨이 축축 걸쳐진 것이 마치 원시림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걷는 내내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곳이 집 가까이 있었단 말인가. 내가 매일 창문으로 보는 풍경이 이 산의 한 편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계속 자책을 하면서 오롯이 숲을 느꼈다. 생각보다 숲이 우거져 있었다. 군데군데 털깃털이끼도 군락을 이루며 숲의 빈 곳을 채우고 있었다. 모양이 싱그러웠다. 길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내려오다 길을 잃을 것 같기도 했다. 평소 산으로는 생각도 못한 곳을 오르며 길 잃을 걱정을 하다니.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오르니 사람 소리가 났다. 정상이다. 정상에는 두 사람 정도가 있었다. 운동기구도 두어 개 있고 깃대를 꽂는 깃대봉이 있었다. 만수산. 내가 오늘 오른 산은 만수산이었다. 높이 113미터. 결코 높은 산은 아니지만 나는 오늘 소중한 숲을 발견한 것이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 울창했다. 나무가 드리운 그늘만큼, 잎사귀가 바람에 쓸리는 소리만큼이나 내 마음도 울창했다.

산은 높아도 산이고, 낮아도 산이다.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특별활동부로 산악회에 들어갔었다. 그때 독도법도 배우고, 산악대회에도 참여해서 노산 이은상 선생님을 뵈 것도 산과 이어진 인연이었다. 그 후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한국산악회에서 주최하는 등산학교에서 기본 훈련을 받았다. 자일 뮤는 법, 암벽 하는 법, 암벽에서 떨어지는 법 등을 배웠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산악회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토요일만 되면 북한산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20kg가 넘는 배낭을 메고 남들은 집으로 가는 저녁에 북한산 인수봉으로 향하곤 했으니,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즈음 인수봉 밑에는 각각 산악회에서 쳐놓은 텐트가 즐비했다.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덜그럭 거리는 암벽 장비를 챙겨 들고 인수봉을 올랐다. 바위를 오르느라 손톱이 남아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았다. 위험한 것마저도 위험한 줄 몰랐다.

“산은 언제나 조심해야 해. 낮은 산이라고 얍보면 안 되지. 자연은 항상 자연만의 그 무언가를 품고 있으니까.”

어느 날 산을 내려오면서 후배에게 내가 했던 말이다. 오늘 만수산을 내려오면서 그 말이 다시 생각났다. 얼굴이 확 뜨거웠다. 내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도 몰랐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을 내뱉은 것일까. 이리로 이사 온 지가 몇 년이 지났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았다. 가끔 창문을 내다보면 펽이 보인 이유를 오늘 알았다. 가끔 고라니가 보였던 이유도 오늘 알았다. 어느 날 아침에는 산까치들이 폐로 날아와 창문에 어른거리기도 했다.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았다. 머지않은 곳에 여여한 시간이 살고 있었다.

내 삶의 과정에서

이충환

“이 양반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내가 지인들을 만나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아내의 말은 사실이다.

나는 37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 끝에 내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사셨고 내가 태어나 어린 시절 꿈을 키워 왔던 그리움이 가득한 그곳 고향으로 귀향을 결정하였다. 물론 아내가 이해하고 함께하여 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1951~60년대의 어린 시절 내 고향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는 마을 뒤편에 새우 어장이 있었던 관계로 마을 앞 500여 m 해변에 새우잡이 안강망 어선이 꽉 차 있었으며, 새우가 넘쳐 나서 마을은 번성하였고 초등학교 학생이 120여 명이 될 만큼 많은 주민들을 포함한 외지인들로 북적대었다.

당시는 새우젓을 담는 드럼통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때라서 충남 서산 방아개리에서 흙을 실어와 직접 대규모 옹기 요장窯場을 두 곳이나 지어 이곳에서 새우젓을 담는 독과 항아리 등 용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렇게 만든 독(옹기) 등은 타지 어선들에도 공급하였으며 마을은 넘쳐 나는 새우젓으로 인심이 좋았고 활기찼다.

아직도 독공장 가마터 중 하나가 한월리 해변 근처에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대형 가마터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박사님께서 확인을 해 준 바 있어 앞으로 문갑도 숙원 과제 중 하나로 가마터 복원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 당시 문갑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히 높아 많은 연배의 선배님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였다.

나의 부모님 역시 교육열이 높으셔서 현재 89세이신 나의 큰 누님은 인천여고를 졸업하였고, 나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인천으로 전학을 하여 처음에는 아버지 지인 집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조그만 방을 얻어 누님들께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누님들께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다.

사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어선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인천에 전세방을 얻어 줄 형편은

아니어서 매년 사글셋방을 전전하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가정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어업 조황이 나빠져 대부분의 마을 어선들도 비슷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운영하시던 어선을 폐선하였고 대학 2년을 다니다가 병역을 마친 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당시 1970대 초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제1차 석유파동과 어획량의 고갈 현상으로 어촌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황폐화되는 등 경제가 어려워 지금처럼 학자금을 응자받아 대학을 졸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나는 인천시 총무과와 상공과 등에서 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하고 공무원직을 퇴직한 후 새로운 직업으로 교직을 선택하였는데 나로서는 보람 있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었다. 32년의 교직 생활 동안 남들이 꺼리고 마다하는 일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했던 덕분인지는 몰라도 30세의 늙은 나이로 시작한 교직 생활임에도 남들보다 일찍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여 교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나름의 보람도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했다.

교직 생활을 끝으로 요즈음 흔한 말로 은퇴를 하고 내 고향 문갑도로 2012년 귀향을 하였는데 하다 보니 귀농 생활의 시작이었다.

아내는 '귀향歸鄉, 귀촌歸村, 귀농歸農' 이렇게 3귀歸 라며 웃었다.

귀향을 결정한 후 1년 과정의 인천시 농업대학을 3기로 졸업하였고, 귀향한 후에도 1년 과정의 용진군 농업대학(3기)에 다니면서 농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익혔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농사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쌓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용진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블루베리 과원 농가로 선정되어 300평 밭에 300주 블루베리를 심었다.

농업기술을 배운다고 이리저리 다녔지만 블루베리에 대하여는 크게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는 블루베리 가격이 하락하여 고생하는 것에 비해 별 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블루베리 농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지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수확기가 한여름 땅볕이라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달콤한 열매는 신기하고 보람이 있었다.

한해 한해 경험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겨 매년 잡초를 제거하느라 고생하던 아내와 둘째 누님의 일손을 덜어 주게도 되었고,

열매의 맛과 크기가 향상되어서 한번 맛을 본 분들이 또다시 구입하는 등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블루베리 열매는 대개 생과일을 선호하므로 싱싱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곳이 섬 그것도 배를 두 번이나 타고 가야 하는 곳이다 보니 보통의 방법으로는 당일 배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선을 임대하여 아침 일찍 본섬인 덕적도로 나가 덕적우체국을 통해 배송을 하다 보니 사람 고생은 물론이고 물류비 부담이 커서 그 애로사항이 말씀이 아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수확기가 무더위와 장마철이 겹쳐서 매년 수확기가 되면 무더위 맹볕에서 땀을 흘리며 한 알 한 알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미처 다 수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마가 겹치더라도 하면 남아 있는 열매가 ‘떨어질까, 터질까’ 노심초사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장마철을 피하여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품종을 심어야 한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2년 전에는 조생종으로 150주를 더 심어서 지금은 모두 450주의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가꾸어야 하는 나무가 많아질수록 밭에 나가 일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무릎에 무리가 오고, 병원을 찾고, 급기야 6개월 단위로 연골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다.

걱정이 많아진 아내는 노동량이 너무 많다며 ‘이제는 서서히 농사를 접을 준비를 하라’고 성화지만 나로서는 비록 신체적 고통은 있지만 이 나이에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일을 이렇게 빨리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2의 인생 직업으로 ‘농부’가 되었고, 웃자고 하는 말로 앞으로 한평생 일자리 걱정 없이 ‘농부’를 천직으로 삼아 청년의 마음으로 지낼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싶다.

오늘도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리고 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어제와 오늘 바람이 세차고 쌀쌀한 가운데에도 나는 아내의 염려를 뒤로 한 채 블루베리 밭에 나가 별레가 알을 낳은 가지를 잘라내고 덤불가지를 정리하였다.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오늘의 내 고단함으로 내년의 블루베리 농사가 더 나아질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아내의 표현을 빌려 “3귀歸”를 하고 3년째 되는 해에 나는 고향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고향 마을의 이장이 된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공동체영농조합을 만들어 주민 단합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자 노력하며 마을의 좁은 길을 넓히고 없던 길을 만드는 등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성심껏 일하였다. 그리고 올해 다시 이장 직분을 맡게 되면서 79세라는 나이도 잊은 채 특성화위원장으로 청년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도와 발전하고 변화하는 문갑도를 만들기 위하여 특성화위원장님의 주관 하에 섬 특성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3단계 섬 특성화 사업에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문갑도는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었다. 옹진군청 시행으로 주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둘레길 이름은 바다와 태양과 온 세상 즉 바다와 태양을 품은 세상을 도는 길이라 하여 ‘해누리길’이다.

둘레길은 문갑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미 문갑도의 최고봉인 깃대봉(해발 276m)은 ‘블랙야크 섬 & 산 100’의 목록에 선정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깃대봉의 넓은 데크 전망대에 오르면 마치 남해안 다도해처럼 올망졸망한 덕적군도 42개 섬을 중심으로 당진, 서산, 태안, 멀리 격렬비열도, 인천 송도까지 조망할 수 있고 특히 바닷속으로 숨어드는 석양은 정말 환상적이다.

이처럼 트레킹 하기 좋은 산행으로 예전에 비해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주말에는 덕적군도 순환 여객선인 ‘나래호’의 배표가 매진되어 쉽게 오갈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크다.

아직까지는 문갑도를 비롯한 덕적군도 5개 자도_{子島}의 해상교통은 덕적도까지 와서 여객선을 한 번 더 갈아타고 인천으로 나가거나 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400톤급 차도선이 인천에서 직항으로 운항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니 주민으로서 그리고 마을의 책임자로서 주민의 편의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앞서 행정 관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그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 나이 70을 넘은 지금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면 내가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행복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현재뿐이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평범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나는 나이를 잊은 ‘농부’로서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안녕, 안녕

임경남

아플 땐 유목의 언어를 써야 해
단순해서 가벼워지는 말로
그래야 쉽게 날아오르거든
구름도 그렇게 날아올랐다가 소나기가 되는 거야
사랑도 이별도 싱겁게 해석되어야 해

유목의 연애가 아름다운 건 이별이 간편하기 때문이지

몸이 감옥인 사람들
저마다 깁스를 하고 링거를 달고
지루한 잠이나 기다리지

하얀 벽은 초조해 물감이라도 뿌리고 싶어

중략

한 차례의 내가 참았던 소나기로 뛰어내려야 해

- 임경남 시집 <기압골의 서쪽은 맑거나 맛있거나>에서 발췌

어느 해 인가 3평짜리 텃밭농사를 한 적이 있다. 꽃밭처럼 키워야지 하고 시작한 것과 달리 어느새 출근이 되어 버렸다. 가을배추를 심고 자라는 동안 그걸 나 혼자만 먹겠다고 날마다 텃밭에 가서 벌레를 잡았다. 농약 대신 쪼그리고 앓아 벌레를 잡는 일은 배추에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끈으로 묶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날도 남편을 출근시키고 강아지를 자전거에 태워 텃밭에 가서 쪼그리고 앓아 벌레를 잡

다가 일어서는데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회사 간 남편을 호출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야단도 아니었다. 디스크라니, 그동안 써 온 허리가 배추벌레 잡는 일로 폭발한 것이다. 집에 가면 무슨 일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 이참에 며칠 입원하기로 하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나는 영락없는 환자신세가 되고 말았다. 3박 4일의 입원 동안 잠 대신 뒤척거리는 나에게 이 시가 찾아왔다.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으로 약을 삼으라” 이 유명한 문장은 〈보왕삼매경〉의 첫 구절이다. 오십이 넘어 병이 생기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몸의 변화다. 젊은 시절에는 아파도 몸과 마음이 구분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늘 ‘끙’ 하는 신호를 먼저 보내고 일어나던 엄마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엄마 왜 꼭 그 소리를 내고 일어나야 돼” 하고 물었던 적이 있다. “너도 나이 들어봐라” 하셨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니, 얼굴은 옛날 엄마보다 젊어 보이지만 몸의 나이는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날마다 읽고 쓰는 일에 재미 들린 나는 허리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파트 계단을 주 5일 하루에 30층 오르는 일은 내 허리를 달래는 귀중한 시간이고 마음을 추스르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다. 4년째 계단 오르기는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운동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이다.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어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나는 계단 오르기 운동 전도사가 되었다. 시간을 따로 내고 운동복을 챙겨 입는 번거로움 대신 오직 내 의지 만으로 10~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나이 들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간편한 운동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운동을 나도 때때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현관문을 째려볼 때가 있다. 세상 가장 면 길이 소파에서 현관문 까지라는 사실,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할 수 있었던 것은 병(디스크)으로 약(계단 오르기)을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상에 자꾸만 짜증이 생길 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친구에게 안부를 묻듯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보자.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질 때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백령권 섬의 지질유산 소개

김기룡

1. 백령권 섬의 자연 개요

백령권 섬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개의 유인섬과 부속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령도는 북위 $37^{\circ}59'$ 로 서해의 휴전선 바로 남쪽에, 동경 $124^{\circ}57'$ 로 남한의 섬들 가운데 경도상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백령도는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km 떨어진 곳이며, 북한의 황해도 장산곶에서는 불과 17km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국토방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과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군사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섬 전체는 대부분이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지대로 노년기 지형을 이룬다. 섬 중앙에 업죽산(184m)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구릉지대가 이어진다. 섬 전체가 U자형으로 섬의 동쪽이 만입지형은 갯벌 조간대를 이루어 바다와 접하며 그 외의 해안지역에는 해식애가 발달한 암석해안을 이룬다.

백령도는 대부분 중생대 말에 퇴적된 사암이나 이암이 변성되어 형성된 규암과 점판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로부터 남포리층(10.94억 년 전) 중화동층, 두무진층(10.4억 년 전)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 암석들을 관입한 고철암(9.49억 년 전)이 협소하게 산출되고 신생대 제3기 말(약 600만 년 전)에 형성된 김립암포획현무암이 진촌 북쪽 하늬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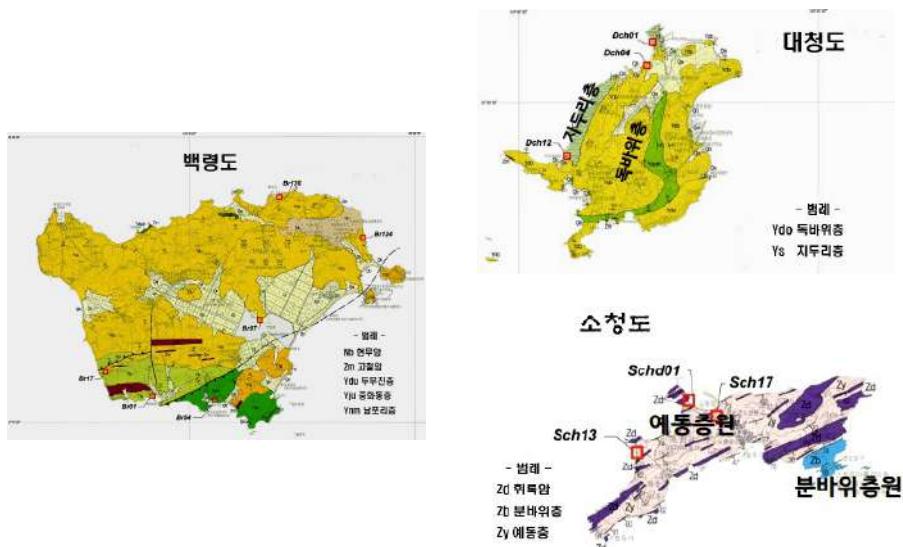
대청도는 면적 15.56km^2 , 해안선 길이 24.7km로 비교적 자연이 잘 보존된 섬이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이며, 섬의 동쪽과 남쪽해안은 급한 해안절벽으로 해식애, 시스텍, 해식동굴 등 다양한 해안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대청도는 백령도에 비해 작은 섬이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산지를 이룬다. 남쪽에는 가장 높은 삼각산(343m)이 위치하고 북동쪽에 검은낭산(206m)이 능선으로 연결되며, 서쪽해안에는 200m 정도의 고지들이 삼각산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U자형의 산세를 이룬다.

북동쪽의 검은낭산 아래 산기슭에 길이 약 1.6km, 폭 약 600m(축구장 70개 면적)의 옥죽동 사구가 벌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옥죽동 사구는 현재에도 해안으로부터 바람에 따라 모래가 날아와 쌓이고 있으며 그 규모가 커 '한국의 사하라 사막'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청도는 중원생대 말에 퇴적된 사암과 이암이 변성을 받아 생성된 규암과 점판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로부터 규암과 점판암이 교호 하는 지두리층과 규암 속에 점판암이 간혹 협재해 있는 독바위층(10.70억 년 전)으로 구분한다.

소청도는 동경 $124^{\circ}55'$, 북위 $37^{\circ}52'$ 에 위치하며 면적 2.94km^2 , 해안선 13.1km의 크기를 지닌 섬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에 속한다. 북쪽에 위치한 대청도에서 9.6km, 백령도와는 14km 떨어져 있으며, 동남쪽에 위치한 인천 연안부두에서는 직선상으로 약 166km 떨어져 있다.

소청도는 신원생대에 퇴적된 이암과 석회암이 변성을 받아 생성된 점판암과 결정질 석회암과 이 암석들을 관입한 휘록암(8.84억 년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로부터 예동층, 분바위층으로 구분한다. 소청도 남동쪽해안에 노출된 분바위층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약 9억 년 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산출된다.



백령권 섬의 지질도

2. 백령권 섬의 대표적 지질유산

백령권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인 조건과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군사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백령권 섬은 남한에서 10억 년 전, 후에 퇴적된 상원누층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지질유산이 매우 우수하여 1999년에 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백령권 섬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으로는 백령도 두무진, 감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 사곶사빈(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습곡과 용트림바위와 대청도 옥죽동사구, 농여해안 나이테바위와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서풍밭이, 답동해안 주름바위, 소청도의 분바위 등이 있다.



백령권 섬의 대표적 자연유산 분포

2-1. 백령도 두무진

두무진은 백령도 북서단 해안에 남북방향으로 약 4km 높이 약 40-50m의 해식 절벽과 시-스택, 시-아치, 해식동굴 등 발달되어 있어 국가 명승 제8호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시-스텍 시아치, 해식동굴 해안침식 지형과 퇴적당시 생성된 연흔, 사층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백령도 두무진 형제바위



백령도 두무진 선대암 일몰



해식동굴에 바라본 형제바위



백령도 두무진층에서 발견되는 연흔

2. 백령도 감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

감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는 백령도의 북동부 하늬해안 있는데 이는 상부 맨틀 부근의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올 때 맨틀의 물질인 감람암을 포획하여 함께 분출한 것이 급속히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첨단 우주 시대지만 지구 내부의 맨틀까지는 직접 시추하지 못한 실정으로, 백령도 하늬해안의 감람암포획현무암은 지구 내부 맨틀의 성분과 특성을 직접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천연기념물 제393호로 지정되었다.



백령도 하늬해안의 감람암포획현무암



현무암에 포획된 감람암



현무암에 포획된 사장석결정, 감람암, 규암편

3. 백령도 사곶사빈(천연비행장)

백령도 북동단 해안가에는 길이 약 3km, 폭 약 300m의 사곶사빈(천연비행장)이 펼쳐져 있다. 사곶사빈은 고운 입자의 모래가 파도 에너지가 약한 오목한 해안에 쌓여 형성된 것이다. 이곳은 썰물보다 밀물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래가 계속 운반되어 쌓일 수 있었다. 사곶사빈은 모래의 질이 좋은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만큼 견고하고 널찍해 천연 비행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자동차가 달려도 바퀴 자국이 생기지 않을 만큼 모래가 치밀하고 단단하게 쌓여 있어 한국전쟁 당시 비상 활주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자랑스럽게도 이곳은 이탈리아의 나폴리 해안과 함께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고 한다. 사곶사빈이 천연비행장으로 사용될 만큼 단단한 모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분급이 양호한 세립질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주기적인 조수의 영향으로 치밀하게 다져졌다. 둘째, 주변 해역의 해류가 너무 세서 점토질 같은 퇴적물은 쌓이지 못하고 먼바다로 쓸려나갔다. 셋째, 썰물 때 다져진 퇴적물 입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바닷물이 입자들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



백령도 사곶사빈(천연비행장)

4. 백령도 콩돌해안

백령도 동쪽해안에는 남북 길이 약 900m, 폭 약 50m의 해변에 동글동글한 콩알만 한 크기의 자갈들로 가득찬 콩돌해안이 있다. 콩돌해안의 콩돌은 흰색, 갈색, 회색, 보라색, 적갈색, 검은색 등 형형색색의 규암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백령도 콩돌해안

콩돌해안의 양쪽 끝에는 규암으로 이루어진 절벽들이 해풍과 파도에 깨여나가 돌출되어 있다. 콩돌은 이 돌출된 양쪽 해안 절벽들 사이에 활 모양으로 구부러진 오목한 형태의 해안에 많이 쌓여 있다. 이 규암 퇴적층에 발달한 단층과 절리면을 따라 침식과 풍화가 집중되어 절벽에서 암 편이 하나둘씩 바다로 떨어졌고, 이 규암 조각들이 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마모되어 콩알 크기의 자갈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백령도 콩돌 생성 과정

5. 백령도 남포리습곡과 용트림바위

백령도 남동쪽해안에는 지층이 지각변동을 받아 형성된 높이 약 50m, 길이 약 80m의 정도가 되는 커다란 습곡과 단층을 관찰할 수 있는 해식절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규모의 습곡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천연기념물 제508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령도 남포리습곡과 용트림바위

남포리 단층 및 습곡구조는 백령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선캄브리아기 백령층군의 장촌층이 동아시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고생대 말~중생대 초의 지각변동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큰 규모의 단층 및 습곡구조는 매우 드문 일로서, 이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한반도의 지각 발달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귀중하다.

또한 남포리 습곡구조에서 남동쪽 약 200m 해안에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양의 용트림바위 파식대 상에 남아 있다. 용트림바위는 이암과 사암이 교호하여 쌓인 남포리층의 일부가 변성작용에 의해 점판암과 규암으로 바뀐 후, 지상에 노출되어 오랜동안 파랑에 의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주변의 약한 부분은 모두 깎여나가고 단단한 바위 일부가 남은 것이다.

6. 대청도 답동해안 주름바위

대청도 선진포구 맞은편 북쪽 답동해안에는 지층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데 차별침식을 받아 유통불통하고 미세한 습곡이 발달되어 있고 지층이 층리면에는 많은 연흔과 습곡이 발달되어 있어 주름바위라고 부를 수 있다.



대청도 답동해안 규암층의 연흔과 습곡

7. 대청도 옥죽동사구

옥죽동사구는 대청도 북동단에 위한 사구 전체 면적은 약 660,000m²(축구장의 약 70배 크기)로 해안에서부터 해발 40m에 걸쳐서 분포하는 매우 활발한 활동성 사구로 알려졌으나 1990년대 시행된 소나무 방사림 때문에 옥죽동 사구도 특유의 옛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낸다.



대청도 옥죽동사구

8. 대청도 농여해안의 나이테바위와 미아동해안의 연흔바위

대청도 북동쪽해안가 농여해안의 나이테바위는 해안가에 남아있는 시스텍으로 지층이 거의 90° 로 서 있다. 나이테바위는 점토가 퇴적되어 생성된 적색 이암과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백색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별침식에 의해 이 암층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나이이테바위 주변에는 연흔, 사층리 등의 퇴적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나이테바위가 조간대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청도 농여해안 나이테바위

미아동 해안가에 노출된 암석 노두를 살펴보면 밟고랑 모양의 연흔이 발달되어 있다. 연흔은 파도, 유수,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줄무늬 모양의 규칙적인 작은 기복을 이루고 있는 퇴적구조로 일반적으로 비대칭적인 모양의 마루와 골이 연속되어 있다. 흐르는 물에 의해 생성된 연흔은 흐르는 물의 직각 방향으로 발달된다. 흐르는 물에 생긴 연흔을 옆에서 보면 완만한 경사면과 급한 경사면을 볼 수 있다. 연흔은 물의 마찰을 가장 작게 받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는 완만한 경사면이 반대 방향은 급한 사면을 이룬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퇴적당시의 퇴적물을 운반하는 바람이나 물의 흐름을 판정할 수 있다.



대청도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9. 대청도 서풍받이

대청도 남서단 해안가의 서풍받이는 서해를 거쳐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을 받아 형성된 높이가 60~70m의 해식절벽으로, 그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돌출된 해안과 웅장한 해안절벽을 이룬 기암괴석들은 낙조의 빛과 어울릴 때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 서풍받이 산책로는 광난두정자각에서 약 2.6km 거리로,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서 누구나 걷기 좋고, 천천히 걸어도 약 2-3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서풍받이 해식절벽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10억 7천만 년 모래가 퇴적되어 생성된 사암층이 변성되어 만들어진 규암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규암층에는 지각변동을 받아 깨진 틈인 절리와 단층이 발달되어 있고 이를 따라 해식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대청도 서풍받이

10. 소청도 분바위

소청도 남동단 해안가에는 하얀 분칠을 한 것처럼 보이는 백색의 암석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분바위라고 한다. 분바위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석이 색깔이 여인의 얼굴에 분칠을 한 것처럼 하얗게 보여 붙어진 이름이다. 또한 등대가 없을 때 달빛을 반사하여 자연 등대의 역할을 해서 월띠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바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산출된다. 특히, 분바위 서쪽해안 어력금의 석회암층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가장 양호하게 산출되는데 이곳의 석회암층은 적자색 세일, 청색 셰일, 백색 사암층 사이에 렌즈 상으로 10여 개가 산출되고 있다.



소청도 분바위



소청도 어력금 스트로마톨라이트 산출지와 스트로마톨라이트



주역周易과 기독교

장종철

1. 주역周易에 대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한국인들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으로서 주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서양문화가 기독교의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면 동양문화 속에서 살아온 동양인들에게 주역은 서양문화 속에서의 성경과 같다고 하겠다.

또한 주역은 도교적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일의 운을 점쳐보는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요즘 지하도 거리에서나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가 하면 컴퓨터 운세기나 인터넷에서 행운의 운세나 사주팔자를 알아보기도 한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정초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운세를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에서도 주역은 불가의 사상 체계에 따라 해석되어 오고 있다. 근년에 김탄허金丹虛는 『주역선해』(周易禪解, 도서 출판 교림, 1985.)를 통해서 주역을 유가적인 해석법에서 벗어나 동양사상과 선불禪佛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한국의 신흥종교들도 그들의 주장을 주역에 근거를 두고 해석해 오고 있다. 우리가 주역이라 하면 무슨 신비한 책이요 점치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신비한 책도 아니고 점치는 책도 아니다.

주역이란 하나의 경經이다. 주역은 유교의 핵심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 중의 하나로서, 하나의 경經이다. 사서삼경이란 기독교로 밀하면 신약과 구약이다. 사서는 신약에 해당하고 삼경은 구약에 해당한다. 기독교에서 신약이란 크게 보면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인서 그리고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이란 모세 오경과 시편 그리고 예언서로 되어 있다. 유교의 시경詩經은 구약의 시편, 그리고 역경易經은 구약의 예언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사서삼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신약과 구약을 성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하나의 경으로 읽어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면 동양문화 속에서 살아온 동양인들에게 주역은 서양문화 속에서의 성경과 같다고 하겠다. 역경은 종교적인 내용도 들어 있지만

주로 철학적인 내용이다. 또한 철학적인 내용에 앞서 당시의 과학이 주된 바탕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당시의 과학은 현대과학과는 조금 다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과학이다. 그래서 역경에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들어 있다. 과학, 철학, 종교 세 가지가 겹쳐 있다고 보아야 된다.

역易은 맨 처음에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한다. 복희씨의 역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정리하여 주역周易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역을 시대적으로 볼 때 주周나라 주역과 그전에 은殷나라 때의 귀장역歸藏易, 그리고 하夏나라 때의 연산역蓮山易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주역의 원문은 경經과 전傳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經은 또한 괘卦와 괘卦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괘에 대한 설명에는 괘사卦辭와 효사爻辭가 있다. 괘에는 여섯 개의 선, 이것을 효爻라고 부르는데, 6 효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공자孔子가 옛 성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경經의 괘와 효사에 해설을 붙인 것이다. 이 전傳은 보통 십익十翼이라 하는데 단彖 상·하권, 문언文言, 계사繫辭 상·하권, 설괘, 서괘, 잡괘, 이렇게 10편이 있다. 이 중에서 공자가 주역 전체를 총괄해서 설명한 것이 계사전繫辭傳인데 보통 이것을 계사繫辭라 부른다(김경탁 역저, 周易, 明文當, 1997).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까지 만 72세를 살았다. 공자는 주역에 대한 해석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1/3만 하였고 나머지 2/3은 설명하지 못하고 죽었다. 공자와 주역에 대해서 위편삼절韋編三絕이라는 말이 유명하다. 주역이란 책을 가죽 끈으로 묶었는데 그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공자가 주역을 공부했다는 말이다. 물론 공자가 주역만 공부한 것은 아니다. 시경과 서경도 많이 공부해서 새로 정리했다. 많은 시 가운데 300여 편을 골라서 시경詩經을 정리했고, 서경書經도 많은 것 가운데 골라서 정리한 것이다. 시경, 서경, 역경을 구약으로 말하자면 서경이란 모세 오경이요, 시경은 구약의 시편, 역경은 구약의 예언서들로 이사야, 예레미야 등에 해당된다. 서경이란 역사서요, 시경이란 문학이요, 역경이란 철학책이다(김홍호, 주역강해, 1,2,3권, 사색, 2003).

주역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주역의 내용은 바로 대학大學의 내용과 같다. 대학이란 대인지학大人之學이란 뜻인데 옛날에 철인을 대인大人이라 했다. 큰 사람, 대인이나 철인哲人이나 성인聖人이나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대학大學이란 또한 철학이란 말이다. 대학의 목적, 대학지도大學之道는 무엇인가. 즉 철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가 있다.

명명덕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이다. 이것이 주역의 목적이다.

명명덕이란 하늘을 알자는 것이다. 천명天命을 아는 것이 명명덕이다. 그래서 중용中庸

에서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 하고 공자는 50세에 지천명知天命이라 했다. 천명天命을 아는 것이다. 천명이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하러 사나,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는 50세에 그것을 알았다 해서 지천명이라 했다. 명명덕이란 달리 말해서 천명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지어지선이란 자연을 알고 자연과 같이 사는 것이다.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 땅이다. 그래서 옛날엔 천天, 지地, 인人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찾는 가치는 자연이 무엇인가, 신神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인데 동양에서는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라 한다. 여기서 신이란 말 대신 우주관, 자연이란 말 대신 세계관, 사람이란 말 대신 인생관이라 해도 마찬 가지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 천지인天地人 삼재가 합해져 만들어진 글자가 인(仁)이다. 그래서 공자가 일생 찾은 것이 인仁이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찾은 것이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연을 찾고 인간을 찾은 것이다. 중용中庸에서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 하는데 천天을 아는 것이 성性이다. 중용中庸에서는 성性, 도道, 교教를 말하고 있다.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이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사랑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교教라고 한다.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진리를 나눠줄 수 없다. 그래서 性, 道, 教가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이 性이요 십자가의 道요 성육신이 教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동양사상과 떨어져 있는 서양 종교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동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학은 서양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종교는 모두 동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도 동양종교라고 본다. 유대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있으니까 서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양이지 서양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2. 일부—夫 김항金恒과 주역周易의 종교성

우리나라에도 역易이 만들어졌다. 일부—夫 김항金恒이 만든 정역正易이 그것이다.

주역이 우주의 생성에 관한 논리를 설명하고 완성의 논리는 밝히지 않고 있음과 관련해서 우주와 역사의 완성논리에 대하여 종교성을 바탕으로 역의 사상을 밝힌 사람이 100년 전 일부 김항과 그의 정역正易사상이다.

정역의 내용에 따르면 주역의 복희 8괘가 생괘도生卦圖이고 문왕 8괘가 선천先天이라면 정역正易 8괘는 후천後天을 밝힌 논리적 완성의 세계를 말한다. 주역이 존재의 생과 장의 현상을 말하는 철학적 논리와 선대先代 성현聖賢의 인도중심人道中心의 윤

리적 해석이나 점서적 占書의 기능 내지는 인윤성 人倫性을 말하고 있다면 정역은 천의 天意 즉, 하나님의 뜻이 곧 사람이 된 도성인신 道成人身의 존재인 동시에 천의 天意의 역사적 전개를 내용으로 담은 논리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일부 김항에 나타난 사상은 주역과는 달리 종교성을 천명하고 있다.

주역과 정역의 논리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는 주역은 ‘역자상야 易者象也’이고 정역 正易은 ‘역자역야 易者歷也’이다. 주역은 근본적으로 괘상 卦象 원리는 땅의 만물을 원리화 시킴이고 역수 時數 원리는 하늘의 시간을 원리화 시킴이다. 따라서 주역이 우주관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정역은 역사관에 치중한 것이고, 주역이 인도 人道와 지도 地道에 치중한 반면 정역은 천도 天道와 신도 神道에 치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역은 성립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점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주역의 종교성을 제시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서의 기능이 정역에 있어서는 종교적 성격으로 대치된 것이다. 따라서 소위 정역에 근거를 두었다는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종교의식과 종교 조직을 갖게 된 것이다. 정역의 저자 일부는 종교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으며, 그에게서 정역을 계승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는 당시 세속을 피해 계룡산 국사봉 밑에 들어가 초당을 짓고 제자들에게 정역을 강론하였다. 일부 김항이 만든 정역사상은 최재우가 만든 천도교와 소태산이 만든 원불교의 교리 형성에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그가 죽은 뒤 몇몇 제자들이 한국의 신흥종교를 일으켰는데, 강일순의 증산도, 하상역의 대종교, 성주택의 정경학회 등이다. 정역사상은 한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이르는 동안 남한 일대에 발흥한 모든 신흥종교계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후천도수 後天度數 원리는 논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역易의 논리와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에 연관시킨 사람은 이정호 李正浩이다. 『周易正義』(아세아문화사, 1980)에서 이정호는 일부 김항의 『정역』의 사상 속에 나타난 종교성을 기독교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동양인 특히 한국인이 동양적 심성, 한국적 심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고 논리적, 철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을 하였다.

3. 이정용 李正勇의 역易의 신학 神學

최근 신학분야에서 주역에 관한 관심도 점차적으로 다양화되고 신학적 접근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주역을 현대 신학적 원리로 해석한 최초의 학자는 이정용 李正勇박사이다. 지금까지 신학을 말하면 주로 서양적인 것이었다. 즉, 서양적인 신학과 신학자체가 차이가 없었다. 동양인이 신학을 하려면 반드시 서양

학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신학을 공부하는 기초로서는 반드시 서양적인 문화와 사상을 이해해야 하였으며 또한 서양의 언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또 토착화됨으로써 계속해서 서양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한 식민지적인 신학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대표적인 신학은 미국의 흑인신학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나 제3 세계의 식민지 정책적인 신학으로부터 반항은 물론 제3세계의 주체성을 찾는 정체성 회복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신학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Context에 맞아야 하며 또한 사고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난 신학이 라틴 아메리카나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문제를 다를 수 있는 삶의 신학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서구신학은 그런 면에서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서구적 사고방식으로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교회들에 의해서 선교된 교회는 토착화 문제가 제기되고, 토착화된 교회들은 현지 교회의 성격을 찾게 되고, 토착화된 교회의 문제가 신학적 문제로 논의될 때 온전하고 생명력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동양사상과 신학의 문제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 현대신학의 연구경향을 보게 되면, 동양사상은 물론 주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깊어가고 있다. 현대신학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연계시키면서 동양사상의 심오한 철학과 공통된 체계를 형성시켜 오면서 역의 신학형성 작업을 주도해 온 연구 가운데 이정용 박사의 연구는 탁월하다. 이정용 박사는 ‘주역의 형이상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의 속성과 제반 신학의 주제들을 서양철학과 현대신학의 방법론에 따라서 재조명하고 있다(이정용 『역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8 참고). 그는 기독교 사상사를 재조명하면서 기독교가 헬라문화권에서 탄생되어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아 오면서 형성된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이루게 된 헬라적 사유방식과 헬라철학이 기독교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어 형성된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교리적 믿음 체계들을 구분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순수한 메시지는 헬라철학의 학문적 체계를 거치면서 형이상학적 교리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정용은 헬라철학이 기독교 사상사를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지적한다. 그는 역사상 그 예로써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신플라톤주의의 구조를 빌려 전개한 것,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의 카톨릭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구조를 빌려 전개한 것과 같이 “헬라철학은 헬라의 옷을 입은 기독교 산물이 아니라 기독교의 옷을 입은 헬라의 산물이 되었다.”라는 하르낙의 주장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정용은 종교개혁자의 루터나 칼빈의 개신교신학도 검토하고, 종교개혁자들의 기독교 신개념도 헬라철학

의 영향 아래 있다고 지적하고, 데카르트 철학의 등장으로 실체론에 근거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플라톤 철학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재판이라고 말한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 신정통주이나 신개혁신학의 등장으로 칼 바르트의 추종자들은 헬라의 형이상학과 구별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강조하였다. 기독교로부터 헬라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르트신학은 철학과의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고, 헬라철학의 형이상학이 사용하던 ‘존재의 유비’ 대신 ‘관계의 유비’를 사용하였으나 바르트의 신학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1960년대에 접어들어 관심을 모았던 틸리히의 철학적 신학에서 시도된 ‘역동적 존재론’(Dynamic Ontology)의 신학방법론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고, 신-죽음의 신학이나 희망의 신학도 역시 헬라철학의 실체론에 입각한 정적인 존재론과 철저한 단절을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과정신학은 전통적 유신론적 신학들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과정신학은 오랫동안 서구사상을 지배해 온 정적인 존재론과 과감한 출발로 시작한다. 현대과학의 발전은 과정신학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과정신학은 정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정적인 존재론에서 양자물리학과 상대성 원리가 등장하면서 유기체적인 세계관의 빛에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를 통해 볼 때,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과 전통적인 동양의 세계관 사이에는 서로 맥이 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은 서양의 현대 과학정신이나 현대의 과정신학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세계관 또는 사고방식에 기원될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는 고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동양적인 것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역이 준 중국의 세계관이며 또는 한국이나 일본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준 사상보다도 중국적인 사상이 역경에서 나타나므로 이것이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지적된다.

그러나 과정신학을 동양적 세계관과 기타 여러 면에서 비교 연구할 때 입장은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학적 접근에서는 일치될 수 없다. 이정용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동양 우주론의 순환적 시간은 창조적 과정의 새로움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시간개념에 있어서 과정신학은 시간의 개념을 직선적 개념으로 전제하는 반면에, 역의 신학은 시간을 순환적 개념을 전제 한다. 시간의 개념 이외에도 역의 신학과 과정신학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과정’이라는 말의 범주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과정신학에서 과정은 창조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궁극적 실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역에서 창조성은 궁극적 실재로서 변화 혹은 역易을 전제한다. 궁극적 실재로서 역易은 창조성뿐만 아니라 수용성도 포함한다. 이 점에서 궁극적 실재는 창조적 과정을 포함할 뿐 아니라 수용적 과정을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과정’이라는 용어는 궁극적 실재의 범주로서 ‘역易’ 혹은 변화의 개념보다 덜 포괄적이다. 역易의 신학과 과정신학이 가지는 더욱 근본적인 차이는 그 논리에 있다. 서구의 신학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범주들에 대해서 편애하여 왔고, 아직도 이 정신은 서구신학을 지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것이냐 저것이냐”的 논리를 배제하는 것은 궁극적 진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로서가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的 논리로 표현 될 수 있다는 사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혹은 월프레드 스미스가 말한 바 대로 “모든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있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모두”(both-and)의 논리 속에 있다(W.Cantwell Smith, *The Faith of Other Me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3, p.72).

화이트헤드는 신의 양극적인 본성을 말한다. 즉, 그는 신의 속성을 원초적 본성(Premordial nature)과 결과적 본성(Consequent nature)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박사는 화이트헤드의 신의 양극성 본성에 대하여 존 캅의 지적을 인용하여 평하기를 화이트헤드는 신의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나눔으로 해서 “이것도 저것도 모두”와 “이것뿐 아니라 저것도”와 같은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신을 표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박사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것이냐 저것이냐”的 논리를 초월하는 신은 ‘되어감’(becoming)으로서 신일뿐 아니라 ‘있음’(being)으로서의 신이다. 신은 되어감이면서 있음이고, 유기적이면서 비유적이다. 창조적이면서 파괴적이고 발생적이면서 퇴화적이다. “이것뿐 아니라 저것도” 혹은 “이것과 저것 모두”的 포괄적 원리가 역易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점이 과정신학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 의미에서의 실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的 논리로 표현되는 서구 신학적 사유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모두”的 논리적 사유를 포함하는 대안적 신학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的 철학은 음陰과 양陽을 낳는 역易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음陰은 쉼이고 양陽은 운동이다. 음陰은 존재이고 양陽은 생성生成이다. 음은 수용성이고 양은 창조성이다. 만일 창조성이 과정신학에서 궁극의 특성이라면, 수용성은 실체신학 혹은 절대신학에서 궁극의 특성이 된다. 만일 양이 과정신학의 중심이라면, 음은 절대신학의 중심사상이다. 그러나 역易의 신학은 음과 양, 수용성과 창조성, 존재와 생성

이 둘 다를 포괄한다. 왜냐하면 역은 이 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다. 따라서 이 박사에 의하면 역易의 신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포괄적이며, 역의 신학은 동양의 역의 신학을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 신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정용의 역의 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해석의 접근방법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가령 이정용의 역의 신학에 대한 종교신학적 이해에 근거한 평가들은 긍정적 관점에 서 있는 학자들인데, 정진홍, 임찬순, 신재식, 이세영 등이다. 또한 이들의 연구와는 반대 입장으로 이종우의 선교적 고찰에 근거한 논문으로서, 이 시대에 만연해 가는 이방종교로서의 점성술사들, 역술가들, 점복자들의 점치는 행위에 대한 정죄와 함께 배타적, 비판적 평가의 부정적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이정용의 역의 신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김홍호는 역경易經의 관점에서 역의 신학을 조명한다(김홍호, 『역경이 본 역신학』, 2000, p.7). 김홍호의 평가에 따르면 이정용의 역의 신학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체계적 연구에 있어서 그 해석학적 방법론의 접근에 차이를 지적한다. 즉, 서양철학은 체계적 학문을 통한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말하고 동양철학은 각覺을 통한 인생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정용의 역의 신학은 그러한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찰력은 예술적 직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4. 현재鉉齋 김홍호金興浩의 기독교적 주역강해周易解釋

(1) 주역의 기본 구조

주역에 대한 동양의 전통적 해석들은 유가와 도가 혹은 불가나 선가 그리고 일부一夫의 정역正易 내지는 이정호 등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주역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김홍호 선생에 의해서 시도된 기독교적 접근과 그 해석이다. 나는 김홍호 선생에게 주역을 배웠다. 그의 『주석강해』(1,2,3권, 도서출판 사색, 2003) 원리에 따라 주역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개괄적으로 조명한다.

주역은 上(건乾-리離 30괘卦)과 下(함咸-미제未濟 34괘卦)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권의 특색을 굳이 구별하자면 상권이 보다 원리적이고 하권은 좀 더 특수하다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역 전체가 바로 ‘수신修身, 제가濟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내용이라고 볼 때 상권에서는 주로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내용이, 하권에서는 수신修身, 제가濟家의 내용이 다루어졌다고 해석한다.

(2) 건곤乾坤의 중요성

주역의 64괘 중에서 건곤乾坤 두 괘가 가장 중요하다. 주역 전체의 내용이 이 두 괘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건괘乾卦의 내용은 또 건괘 하나에 다 들어 있어 결국 건乾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괘卦에는 항상 세 가지, 즉 시간 공간 인간을 함축하고 있다. 64괘를 일 년으로 하여 64 절기로 표현할 때 하지夏至를 건乾, 동지冬至를 곤으로 표시한다.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물, 불, 산, 호수, 번개, 바람 등 자연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괘卦에는 언제나 시간 공간 인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로서 건乾이라 이름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건乾이라고 할 때 이 속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건乾에서 시간을 찾으면 종교가 되고 공간을 찾으면 과학이 되고 인간을 찾으면 철학이 된다. 즉, 건乾의 내용에는 고대인들의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3) 건애천乾爲天: 건乾은 하늘이다

괘卦를 그릴 때는 언제나 아래서부터 위로 그어 올라간다. 건乾괘는 하늘 천天이 두 번 겹쳐 있는 모양이다. 이 건괘는 공간으로 보면 하늘이고 계절로 보면 춘하추동 중에서 하늘이 가장 높은 가을이고, 사람으로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왕, 천자 등에 해당할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이 괘를 창조주(하나님)로 표시하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늘 위의 하늘은 태양이다. 태양이란 형이상학이다. 나무의 뿌리는 땅이고 땅의 뿌리는 태양 이므로 태양은 나무의 뿌리의 뿌리이다. 이 관계는 키엘케고르 표현에 따라 ‘관계의 관계’가 된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 있고 땅의 뿌리는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형이상形而上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형이상形而上이다. 바로 위에 계신다.

(4) ‘나’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나 역시 형이상이다. 나는 내 가슴이나 머리 등 몸속에 있지 않고 나를 초월해 있다. 나를 초월해 있는 나가 나다. 그래서 나는 붙잡을 수 없기에 알 수 없는 나가 내가 된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나가 아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을 안다. 있기는 있지만 알 수 없기에 불교에서는 안다고

하지 않고 깨닫는다는 말을 쓴다. 나는 깨닫는 것이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나는 형이상이요 길이다. 형이상자위지도形而上者爲之道다.

그러면 도道란 무엇인가. 〈계사전〉에서 일음일양지위도—陰一陽之謂道라고 했다. 그런데 건乾괘에서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고 한다. 원형이정이란 바로 일음일양—陰一陽이란 말이다. 원元이란 크다는 뜻이요 형亨이란 한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니 결국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동양에서는 一陰一陽에서와 같이 언제나 두 가지 측면 원형元亨과 이정利貞을 같이 말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정利貞이다. 곧고 이롭다는 글자인데 알기 쉽게 말하여 진리眞理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이면서 진리眞理와 하나가 된 것이 나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나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영원한 생명이다. 나무가 무성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진리에 따라 가지치기가 잘된 나무라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진리와 일치된 생명이라야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넘어서 있다. 영원이란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다.

생사生死라는 것은 현상의 세계요 왔다 가는 것은 실재實在의 세계다. 실재의 세계는 영원하고 이 영원한 실재가 나다. 현상의 세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이 나가 아니다. 바울은 현상의 세계를 장막에 비유했다.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지금의 옷이요, 영체靈體는 부활 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옷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옷을 입은 종교지 발가벗은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옷이 내가 될 수 없기에 나는 나 아닌 것이 나다. 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가 아니다. 나는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 있다. 하나님도 내 생각을 넘어서 있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초월한 것이 아니요 나 아닌 것이 나다. 이를 밀하기 위해 즉비即非의 논리를 쓴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진리와 일치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기에 죽을 수 없는 나다.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은 모두 죽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죽음에 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다. 유영모는 ‘인생은 죽음으로부터’라고 했다. 죽기 전에는 애벌레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자의 비유처럼 나비가 되어야 인생이지, 자유가 인생이지 부자유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5) 진리와 생명

성리학에서는 특히 나를 허령지각_{虛靈知覺}이라고 한다. 허령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지각이란 진리와 같이 있다는 뜻이다. 주렴계는 무극이태극_{無極而太極}이라고 했다. 무극이란 원주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니체의 영원회귀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를 윤회_{輪迴}라고 하고 노자는 장생불사_{長生不死}라 했다. 불교는 법륜_{法輪}이라는 표현을 쓴다. 계속 돌아가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은 언제나 중심과 같이 있다. 그 중심이 바로 태극이다. 주자는 이 태극이 바로 진리_{眞理}라고 했다. 영원한 생명이면서 진리와 같이 있는 이것을 ‘무극이태극_{無極而太極}’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_乾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원형이정’이다. 이것을 주렴계는 ‘무극이태극_{無極而太極}’이라고 한 것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 되는가. 진리와 일치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6) 인간발달과 수행의 길

인생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팔정도_{八正道}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주역에서는 6단계를 말한다. 1년이 12개월인데 음양이 6개월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되는 방법을 6단계로 나누어 수행의 단계를 설명한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

내가 나 되는 길을 도_道라고 한다. 도의 궁극은 자유자재_{自由自在}가 되는 것이다. 자유자재가 나다. 자유와 존재의 일치다. ‘태극이무극_{太極而無極}’의 또 다른 의미가 자유자재다.

자유자재란 주체가 되었다는 말이다.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것이다. 자유자재하는 근거가 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생이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큼 위대한 존재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이란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한없이 높은 인격의 존엄성을 깨닫고 느끼면서 살 때 인생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건_乾괘에서 인간 발달의 여섯 단계의 길을 보기로 한다.

제1단계를 초구_{初九}라고 한다. 이 구_九라는 것은 오렐 구_久와 통하는 글자다. 영원

하다는 뜻이다. 여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여섯 단계

1. 초구初九: 잠용潛龍: 자기가 자기 되기 위해 한없이 노력하는 단계이다.
2. 현용見龍: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느낌.
3. 군자君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을 지님
4. 혹약或躍: 비약을 함.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5. 비용飛龍: 하늘을 날아다님
6. 항용亢龍: 맨 꼭대기에 올라감. 자유自由, 자재自在.

어떻게 ‘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생의 여섯 단계를 공자의 일생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자의 일생

1. 15세: 지우학志于學: 진리탐구의 시작. 나를 알아야겠다.
2. 30세: 입立: 자기의 입장을 가지는 것.
3. 40세: 불혹不惑: 유혹에 빠지지 않음. 길을 잊지 않음.
4. 50세: 지천명知天命: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됨.
5. 60세: 이순耳順: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함.
6. 70세: 불유거不踰距: 종심소욕불유거從心所慾不踰距는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진리와 하나가 된 것이다.

예수의 일생을 6단계의 발달과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예수의 일생

1. 지학志學: 12살에 성전에 들어감
2. 입立: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
3. 불혹不惑: 사십일 금식과 시험을 이김
4. 지천명知天命: 복음을 전파함
5. 이순耳順: 십자가. 사명의 완수
6. 불유거不踰距: 부활

누구든지 이러한 여섯 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乾괘 속에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괘 속에 나머지 63괘의 내용도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던가 ‘주야지도晝夜之道’ 또는 ‘일음일양지위도陰一陽之謂道’ 등 어느 한 마디라도 알게 되면 그 속에 주역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람의 어디를 찔러봐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한 말씀만 붙잡아도 전체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와 통하지 않는 부분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즉일체—即一切라고 한다. 64괘六十四卦 중 대표적인 건乾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다. ‘어떻게 나가 될 수 있는가’ ‘잠용潛龍’에서부터 항용亢龍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삼십 대에 입장을 얻고 사십 대에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고 오십이 되면 할 일을 찾게 되고 육십이 되면 이순耳順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전을 정리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말씀이 진리가 되는 불유거不踰距의 경지에 들어 진리眞理와 일치하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것은 공자孔子의 일생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일생이기도 한 것이다. 진리와 일치하는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면서 진리와 일치하는, 도道에 통하는 삶이다.

(7) 용龍은 그리스도인가

김홍호는 그의 『주역강해』에서 건상乾象:‘천행건天行健’을 ‘일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주역 64괘 모두는 각각 4가지, 괘卦, 단象, 상象, 효爻로 이루어져 있다.

건乾의 괘卦를 살펴보면 천천天天으로 하늘 위에 계시는 하늘이라는 것이므로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우주적으로 말하면 하늘 위의 하늘인 태양이고, 인간으로 말하면 자아自我 즉, ‘나 위의 나’로서 모두 형이상形而上을 가리킨다.

‘나 위의 나’라는 것은 ‘나 아닌 것이 나’라는 것이요, 형이상形而上이란 말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形而上을 생각하는 것을 격물格物이라고 한다. 현실 혹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놓고서 태양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 건乾의 단象은 무엇인가

건乾의 단象은 앞에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 설명했다. 원형元亨이란 ‘한없이 발전

한다’ ‘크게 형통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생명’이라 ‘생명의 본질’을 말한다. 이정利貞이란 ‘바르게 사는 것이 이롭다’는 뜻인데 바로 산다는 것의 궁극을 말하면 진리이고 법이다. 그래서 ‘법法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치지致知이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다. 이렇게 꽤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단彖이다. 즉, 꽤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9) 진乾의 효爻는 무엇인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섯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道이다. 불교에서는 팔정도八正道라 해서 여덟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주역에서는 여섯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왜 여섯 계단인가. 일 년이 열두 달인데 6개월마다 음양이 바뀌기 때문이다. 양陽이 6개월 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이 여섯 계단이란 뜻은 길을 그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뜻이다. 향상일로向上一路다.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다. 도道라는 것은 형이상자形而上者로서 결국 정심正心이다. 대학大學에서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라고 했다. 지선至善으로 올라가서 그치는 것이다. 그 것이 도道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맨 꼭대기까지 그쳐야 그것을 ‘중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中道라고 한다.

김홍호는 이것을 기독교적 의미로 해석해서 승천이라고 한다. 용龍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여 건효乾爻를 말한 것이다. 시커먼 구름과 번쩍이는 번개를 형상화해서 용으로 상징한 것이다. 인도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신인 ‘인드라’를 우리말로 제석천이라 한다. 지리산 천왕봉 밑에 제석단이 있는데 이 제석단 아래에는 찬물이 흐르는 샘이 있다. 이 제석단은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생명의 근원인 비를 오게 하는 용龍을 중국 사람들은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이다. 임금이 앓은 의자를 용상이라고 하고 임금의 옷은 곤룡포袞龍袍라고 부른다. 왕 역시 온 국민에게 비를 내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을 살려내는 사람인 왕의 상징이 용이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온 국민을 살려내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높은 분은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왕의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표현해서 용龍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을 구하는 존재가 나다”라고 하신 것이다.

나는 무엇하러 세상에 왔나, 구원하러 왔다.

구원의 범위를 협의적 의미로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면 수신修身이 되고, 집안을 구원하면 제가齊家가 되고, 나라를 구원하면 치국治國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면 평천하平天下가 된다. 평천하平天下란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했다는 말이다. 이 평천하平天下를 위해서는 우선 수신修身부터 해야 된다.

예수는 사십일 간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 것이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요, 또한 우리의 할 일인 것이다. 우리가 용이기 때문이다. 용龍이 나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의 기독교적 해석을 시도했던 김홍호의 설명에서 건乾의 괜卦 천행건 天行健의 의미를 “하나님은 일 하신다”로 해석하는 것은 동양사상을 기독교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토착화 작업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일하는 철학이다. 무슨 일을 하는가. 건健이다. 사람人을 일으켜 세운다建.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구원이다.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천행건 天行健이다.

단象보다 상象을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한다. 천행건天行健이다.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고 일한다.

천행건天行健 군자이자강불식君子以自強不息.

5. 맷는말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밀어닥쳐오는 공포의 쓰나미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오늘날 학문 연구에 있어서도 동·서양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할 시기이다. 기독교도 서양 철학에 조명된 지배적인 신학적 사유의 틀 속에만 의존해 오던 연구 방법에서 이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양적 삶에 뿌리를 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신학적 작업도 미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성찰을 거치면서 동양적 사상사의 이해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사상과 문화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이해와 연구에 집중할 시기에 온 것이다.

동양 문화권에서 주역은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원 3천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의 주역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유가, 도가, 불가 등에 의해서 해석된

다양한 역전易傳들은 오늘날 우리 동양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역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인 해석의 지침서가 될 동양사상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동양사상에 대한 안목을 넓게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사상 내지는 교육철학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동양적 해석의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된 이정용의 역의 신학은 21세기의 동양권과 서양권이 서로 만나 사상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신학의 지평을 열어 가는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역에 대한 기독교의 동양적 해석을 위해 한국적, 철학적 접근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부—夫 김항金恒의 정역正易 사상은 현대과 정신학의 방법론과 밀접한 관계로 접목되고 있다. 또한 김홍호의 주역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은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전이해前理解와 토착화 작업의 기본적 과제로 삼아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된다.



백령권 섬의 문화유산 산책과 인문학적 삶

태동철

1. 백령권의 생태 현황

현재 천문학적으로 규명한 바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하여 우주가 탄생 되었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다고 한다. 38억 년 전에 생명이 음터 있었고, 4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했다. 4천 년 전부터 인류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백령도에는 3,300년 전에 사람이 살아왔던 증거로 조개 무덤인 패총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권은 지구 탄생 46억 년 중에 10억 년 전후에 지각변동으로 생성된 규암, 사암으로 형성된 바위들이 있어 지질학적으로 연구 대상의 지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섬의 탄생은 1만 8천 년 전후 빙하기 빙하가 녹아서 수면 상승의 기운에 의하여 물이 물에 묻히다 해수면의 힘이 못 미쳐 남아있는 물이 섬으로 존재한다. 그 증거로 서해안의 섬들의 산 높이 해발을 점검해 보면 백령도 엄죽산은 184m, 대청도 삼각산은 343m, 덕적도 국수봉은 300m, 선갑도 선갑산은 352m, 영흥도 국사봉은 230m이다. 해수면의 상승 결과 옹진군 관내의 섬은 유인도 42, 무인도 126, 합계 168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에 선캄브리아대 퇴적된 규암으로 형성된 백령도에는 기원전 3,300년 전에 신석기시대 이미 사람이 살았던 조개 무덤이 현재도 있고, 섬을 둘러싸고 있은 암석들의 나이는 10억 년 전후에 생성된 사암들이다.

백령도는 북위 37도 59분선에서, 동경 124도 57분 선상에 존재하는 51.1km^2 의 섬이다.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220km, 황해도 장산곶에서 17km, 인당수와는 8km, 연봉 바위와는 3km 떨어져 있다. 농지는 14km^2 , 산지 30km^2 주거 용지는 1km^2 기타 도로 잡종지 6.3km^2 이다. 18개 리의 행정 조직으로 된 면 단위 섬이다. 인구는 5,600명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중화동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문화 유입도 빠르게 이뤄진 고장이다.

대청도는 지구 나이 46억 년 대에 비하여 10억 년 전후 농여해변에 있는 나이테 바위에서 보듯이 지각변동이 심하게 이뤄진 곳이다. 대청도 위치도 북위 37선, 동경

126도 선에 위치하여 해수면이 낮아 개펄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해안에 플랑크톤이 많아 다양한 어종이 많이 살고 있어 어업이 발달 했다. 흉어잡이, 송어잡이, 꽃게잡이 등의 생업이 풍요롭다.

특히나 농여해변의 넓은 모래 벌판은 미래 토지 자본가들이 눈독들일만 하다.

2. 옹진, 분단의 역사

옹진반도는 북위 37도 41분에서 38도 04분과 동경 124도 06분에서 125도 38분 사이에 696㎢의 육지에 해주만, 옹진만, 본영만, 청진만, 해안선으로 이어진 반도다. 멸악산맥 남서쪽으로 뻗어져 내려온 리아시스식 해안(육지가 가라앉거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육지가 바다에 가라앉아 생긴 해안)인 옹진군 10개 면과 벽성군 대거면 외 4개 면이 있으며 인근에 순위도 용호도 이화도 등 섬이 산재해 있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세개의 섬도 옹진반도의 지역권에 듦다.

해방 후 38선에 의하여 일부 남북으로 나뉘 있다가 1953년 7월 휴전 시 휴전선에 의하여 옹진반도가 미수복지구로 현재 이북에 속해 있다. 옹진 땅은 이북에, 옹진 사람은 이남에, 그 명칭도 이남에서 활용하고 있다.

과거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대청도 포함)이 경기도 부천군 백령면(대청도 포함)으로 존재하다가 1995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말하는 시를 만나 본다.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담포

사공은 조심 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가 지나서도 그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전문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해, 가운데 섬들로 구성된 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다. 바다는 해남백천_{海納百川}이요, 해수불양_{海水不讓}이라 그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바다다. 서해를 품고 있는 인천仁川, 한자 풀이하자면 사람 둘이서 냇가에 있는 형상이다. 사람은 물가에서 살게 되어 있어 물 있는 곳에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이는데 돈 모이고 돈 모이는데 사람 모인다. 인천은 그 물의 덕목에 따라 해남백천이 지닌 덕목으로 그 모두를 받아드려 수평으로 평등하게 살아간다.

이 인천의 한몫인 옹진군 내 백령, 대청권의 문화 산책을 하려 한다. 바다는 물과 염분과 달의 혼이 들어 있다. 물의 품성을 살펴보면 아래로 낮은 자세로 존재한다. 막히면 돌아가며 지혜롭게 처신한다. 포용력이 커서 청탁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인내와 끈기로 물 한 방울 한 방울 바위도 뚫고 모진 돌도 둥글게 한다. 한 방울이라도 합치면 그 힘은 강해진다. 해일을 보라. 폭포가 증언 한다. 깊을수록 소리 없이 자기 갈 길을 간다. 물은 달의 신성을 받아서 성스럽다.

어머니께서 기원하는 장독대 정화수의 신성_{神性}은 위대하다. 일본인 작가 에모트 마시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읽어 보면 물은 불변성이다.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다시 물로 돌아온다. 생명의 원천이다. 물은 상생이기에 바다는 다산성의 모성이다. 바다는 늘 자정으로 정화하여 청결하다. 그래서 신선하다.

바다에는 달의 혼이 스며있어 바다의 용왕은 우리 인간 생활에 깊이 관여하며, 바닷길을 열기도 하고 달기도 한다. 용왕의 뜻에 잘 따르면 순풍에 뜻을 단 듯 인생 길이 잘 나아간다. 여기에 대칭되는 대륙은 고착되어 있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이며 수직적이다. 안정적이지만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권위적이며 폐쇄적이다. 해양 세력권은 바다의 품성에서 우리나라 지혜를 다하여 창의적이고 자유자재의 유동성을 발휘하여 지평을 넓혀 간다. 대륙세력은 고착된 권위로 수직적 사고에서 아래를 억압하고 한 번 차지한 자리는 내놓지 않고 끝내 버린다.

해양권의 사람들은 창의성이 보장되어 그 자유로운 창의성에 의하여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대륙권의 사람들은 고착된 권위에 억압당하여 자유의 폭이 좁아서 수직적 하명에 갇혀 삶의 지평이 좁고 삶의 질이 하향평준화로 무기력해진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펴보면 삼면이 바다로 해양세력권에 든다. 바다 덕목 따라 삶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하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세력이 해양 진출의 교두보로 욕심이 있고, 해양세력은 대륙 진출의 디딤돌로 활용 가치가 있기에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의 충돌지점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특성을 살펴보자. 대륙은 고착적이며 수직적이다.

권위적이며 보수적이며 변화에 대응력이 취약하고, 잘난 한 사람을 위하여 만백성이 노예로 산다. 해양은 물의 덕목에 따라 늘 변화무상 적응력이 빠르고 수평적이고 평등하며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면서 진보적이다. 그래서 대륙세력 해양세력이 충돌할 때마다 해양 세력이 승리한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 전쟁 등에서 증명된다. 아직도 남북을 대적하여 대륙대 해양의 세력 싸움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여서 해양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해양세력의 전위대가 되어 태평양에 대서양에 무단히 들고나야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해양세력의 대표 주자 일본을 대양진출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오대양 육대주를 휘어잡아야 우리는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일본은 대양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대륙의 길목을 잡고 있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차원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사의 한 단면을 보자. 팔미도 등대가 증언한다.

본적은 인천, 백수를 누리며 허리 곧게 서서
갈매기와 벗하는 팔미도 여사를 아시나요

그녀는 남편이 연평도 조기잡이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후, 소복한 채
천길 물속을 헤집으며 망부^{亡夫}를 찾고 있다

그녀는 서해가 불타다 불꽃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은빛 바다가 명부로 깊어지면, 남편 배가 돌아오리라 믿기에
오늘도 흰한 눈빛으로 오고 가는 배들을 마중하고 배웅한다

그녀는 혼자 사는 몸, 이웃 불한당 놈들이 떼 지어
안방 넘보기 몇 차례, 쓰라린 한의 눈물이 서해를 메운다

갈매기들은 그녀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만선의 배들은 깃발 날리며 그녀에게 치하한다
이국 범선들도 둑푹 올려 감사의 인사를 한다
그녀는 서풍이 몰아쳐도, 계절이 바뀌어도

눈비가 내려도, 밤낮으로 망부가 살아오리라 믿기에
 오늘도 난바다 뱃길을 지킨다
 우리는 그녀를 바다의 샛별이라 부른다

- 출시, 「팔미도 등대」 전문

우리 백령권 안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제를 안고 섬에 살고 있으니 그 사는 자체가 애국이다. 이 애국시민이 소망하는 바는 무엇일까?

3. 백령, 대청권 설화 : 신분 상승의 염원

백령도 서북방 8km 지점에 해류가 용트림하는 인당수가 있다. 이에 관련된 신분 상승의 아이콘 심청 설화를 살펴보자.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는 효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제물로 빙쳐 인당수에서 투신한다. 백령도 남서쪽 3km 지점, 심청이 연꽃으로 생활하는 그 자리에 연봉 바위가 있다. 중국 선원에 의하여 바다에 편 그 연꽃이 중국 황실에 들어가 심청은 황후가 되고, 그 아비 심봉사는 눈을 뜨고 부녀가 귀한 몸이 되어 부귀를 누린다는 신분 상승의 판타지이다. 맹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천덕꾸러기로 살다 봉사 아비 눈을 뜨게 하려는 지극한 효심이 공양미 삼백 석에 인당수 제물로 투신하는 한恨 서린 신분의 천민에서 효 실행의 인과응보로 연꽃이 피고 귀한 황후가 되어 아비 눈 떠 부녀가 부귀를 누리는 그 설화는 천대 가난에서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처절한 천민들이 신분상승을 열망하는 판타지이다.

또 하나 백령白翎 흰 학이 가난한 선비와 귀한 사또 집 딸과의 사랑의 편지를 전하여 주게 되어 그 선비가 살던 섬에서 사또 딸과 잘살게 되었다 하여 백령도의 이름이 작명되었다는 설화, 그 역시 신분상승의 설화다.

두 자매 선녀의 설화,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봉금포 장산곶과 백령에 내려온 자매 선녀는 해당화를 해변에 심는데 어부 총각이 나타나 해당화 심는 것을 도와주다가 정이 들어 사랑이 깊었다. 그런데 옥황상제의 명이라 하여 두 선녀 자매가 하늘에 오르니 어부 총각이 슬피 울다 죽었는데, 흰 날개의 학들이 날아와 그 총각의 시신 위를 날며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였다 하여 백령이라고 작명하였다는 설화이다. 이

또한 신분 상승을 열망한 설화이다. 침 뱉은 서낭당 고개 설화, 용이 난 굴 설화, 그 모두가 신분 상승의 염원이 담긴 설화다. 용이 난 굴, 용의 승천에 신분 상승의 은유가 숨어 있다. 시대가 변하고 문물이 변해도,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변해도, 백성들의 신분 상승의 욕구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신분 상승의 욕구 속에 맡은 일터에서, 바다에서 피와 땀으로 사다리를 오르려 하는 백성들의 삶이다. 하여 옹진군정 구호도 군민이 신나게 살도록 한다고 외친다. 이 설화의 형상화로 백령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백령도에 더 머물게 해야 한다.

이 시대의 신분 상승은 어떻게 해야 이뤄질까? 어떤 삶이 신분 상승일까? 사회적 공동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 심청 설화를 시대정신에 맞게 효의 가치를 재창출하여 콘텐츠화로 테마관광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특히 심청이의 설화 콘텐츠는 중국 저장성 상인들의 후손들이 우상시 하는 신분 상승의 아이콘이다. 이를 활용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1주 이상 머물도록 백령도를 개방하면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고 돈이 태산같이 쌓일 것이다. 돈 모이는 곳에 자본가의 신분이 탄생한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민들 개개인의 수입도 확장되어 생활이 신나고 신분 상승의 물고가 틀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외지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몰려온 테니 신나는 일이다.

4. 신분 상승과 삶의 질

그런데 과연 신분 상승은 인생의 성공일까?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랄프 월도 에머슨은 아래와 같이 성공에 대한 시를 썼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것
아이들의 호감을 사는 것

솔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은 것
미덥지 못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뛰기의 정원을 가꾸든 간에
사회 환경을 개선 하든 간에
세상을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자신이 살아있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마음 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에마슨, 「성공이란 무엇인가?」 전문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성공하기를 소망하며 성공을 향하여 노력한다. 여기서 그 성공의 잣대를 가늠해 보자. 저 구만리장천에 손이 닿아야 성공일까? 서해 물을 마시고 갈증을 다 풀어야 성공일까? 여기에 각자의 가치관, 생활관, 인생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필자의 체험적 삶 속에서는 우선 심신의 건강이 성공의 기초이고, 공동체에서 호의적 존재감으로 관계가 원만하게 신망 있는 삶, 존재가치가 앞선 삶이 진정한 신분 상승이고 성공이다.

나이 들수록 건강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필수적이다. 신외무물^{身外無物}^o 철칙이다.

필자는 삼십 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벽 테니스로 몸을 단련하고 주말에 가벼운 등산으로 맑은 공기 마시며 교우들과 간간히 수다로 가슴 찌꺼기 풀어내고 나를 매혹시킨 시 한두 편 읽으며 공감하고, 독서에서 성찰하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니체가 말한 의지로 살되 초인의 자세로 낙타처럼,

사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운명애의 그 정신으로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삶의 질을 도모한다. 세상이 변하면서 가치관과 생활 형태도 변하지만 그 변화에 적응하되 니체가 혁파한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과 디오니소스적 가치 창출을 긍정하면서.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직업도 두 번 이상 바뀔 수 있다. 전 후반의 삶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사오십 대에 후반기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꾸준한 독서 생활 습관이 노년에 나갈 길을 열어줄 것이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존재가치 있는 삶은 관계를 원활히 풀어 주며 건강 생활의 열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샤무엘 올만의 시 한 편 「청춘」을 읽어 보면 희망과 용기와 열정이 있는 한 늙지 않고, 영감의 안테나를 높이 들고 사람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영감을 받아들이면 청춘으로 산다고 했다. 영감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 영감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희망이 있는 한 삶이 활기차다.

5. 대청권 유배지에 대한 고찰

대청도는 북위 37도, 동경 126도 선상에 위치한 15.7㎢의 작은 섬이다. 옹진반도에서 17km, 인천에서는 180km, 섬 주변에 수심이 깊어 뱃길이 험하다. 1210년대 유럽과 아시아를 평정한 몽골 유목민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고려를 지배하던 시절, 1330년대 대원 제국의 황태자 토콘 티무르가 유배되어 살던 곳이 대청도다.

이 토콘 티무르가 1332년 황제로 입궐하여 36년간 대원제국을 다스리다 1368년에 중국 한족이 세운 명에 중국 대륙을 내주고 다시 몽골초원으로 돌아간 원나라 최후의 황제이다.

여기에 귀향 오게 된 사유가 재미있다. 아버지 황제 코실라와 어머니 칼후라 사이에 1320년 5월에 출생했는데 생모가 그만 죽어서 아버지 황제가 재혼하여 계모 밑에서 자랐다. 그 계모가 아들을 낳자 자기 자식을 황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하여 적자 토콘 티무르를 꽂뱀 식으로 음모하였다. 어느 날 한적한 궁궐의 내전에 계모가 토콘 티무르를 조용히 불러들여 말하기를 내 등이 가렵다 좀 긁어다오 하면서 옷을 벗으니 토콘 티무르 황당하여 머뭇하는 사이 계모가 소리소리 질러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모함했다. 그로 인하여 대청도에 귀향 살이 왔었는데 그때 그 황태자가 거처 했던 자리가 현재 대청 중고등 학교 운동장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오래전에 그곳에서 옛날 기와장이 다수 나왔다는 것과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2점이 발굴되었다는 것 외에는 물적 증거가 없다. 이 금동불상 2점도 그 행방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불상이 발견된 자리는 북위 37도 49분 2초, 동경 124도 41분 45초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대청면 대청리 219-4번지다.

이 티콘 티무르, 원나라 순 황제는 1320년생이며 1332년에 원 나라 황제에 올라 36년간 권자에 앉아 있었는데 1368년에 한족漢族 명나라 주원장에게 중원대륙을 내주고 다시 몽골초원으로 돌아가 1370년에 영민했다.

이로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206년에서 1368년 163년간의 권세를 마감한다. 이 순 황제 이야기 속에 고려 공녀 출신 기황후(고려인 기자오의 딸)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1333년 궁녀로 들어가, 1340년 순황제의 황후가 된 고려인인데, 그 오빠 되는 기철이 원나라를 등에 업고 고려에서 권세부린 세도가다. 배원정책을 쓴 고려 공민왕에 반기를 들다 권겸과 함께 주살당했다.

대청도 유배지는 원나라 황족 일가의 권력 다툼에서 '아야치' 1277년, '국케주', '에무계', '볼라드' 1324 등이 유배된 곳이다. 유목민족의 분권 통치 체제에서 중국 황제의 친정체제로의 변화 과정에 군웅할거 한 유목 부족들의 반란에 그 수장들을 이 대청도에 유배시키며 통치 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권력의 싸움은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대청도는 권력 싸움에서 패자들이 머물다 간 자리지만, 산세는 의연하고, 바다는 청정하여 유유자적 초연하게 백성들의 생업을 지키고 있다.

대청도의 풍광에서 서풍받지나, 동백나무 군락지, 소나무 군락지, 사막의 경관, 농여해변의 나이테 바위, 농여해변의 끝없는 펼은 토지 자본가의 침을 마르게 한다.

생업에서는 고래잡이에서 흥어잡이, 송어잡이로, 까나리아, 우럭잡이로 이 어로 작업은 북방 한계선, 어로 금지선 등의 한계와 중국 어선들의 출몰로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점점 관광 사업으로 변해 가고 있다.

위 두 섬의 지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인문학적 소견을 살펴봤다. 두 섬은 분단의 시대적 아픔에서 원적을 잊고 인천광역시 품에서 살면서 분단의 대적 최전방에 있다. 고로 이 섬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애국이며 애국시민이다. 이 애국시민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차원의 거국적 지원이 요구된다. 발전하는 의료 시설, 문화 향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지리적 취약점을 드높은 문화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위정자들의 과제다. 민주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드높은 문화의 힘을 자라게 하고 향유하게 하여 모두가 행복하여야 한다.

오늘의 교육 목적도 드높은 문화의 힘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하여 민족의 선각자 김구 선생의 말씀, 드높은 문화의 힘에 대한 속내를 여기에 올리면서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이기를 원한다. 부강한 나라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는 백성들이 풍족히 살만하면 되고 강은 외부 침략을 막을 만하면 되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드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 김구, 『백범일지』에서

앞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드높은 문화의 힘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간구 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 드높은 문화의 힘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문화의 힘은 어떻게 다가오나? 어떻게 만들어지나?

6. 인문학의 이해와 그 효용성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대칭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살이에 대한 시간 속에 대한 통찰로 역사를, 공간에 대한 사유로 철학을, 인간 사유의 깊이와 넓이를 상상력에 의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문학을, 그 모두를 아울러서 인문학은 높은데 올라가 멀리 보는 힘을 함양하는 사람살이의 학문이다.

비유하자면 닭의 눈을 매의 눈과 발톱으로 키우는 역사와 철학에 대한 통찰이다. 인문학은 인류가 쌓아온 문학, 역사, 철학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유의 힘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지혜의 비료이며, 문화 창조의 기본이 되는 생각의 필수 비타민이다. 인문학은 역사를 통하여, 철학의 진리를 통하여, 문학의 상상력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학문으로 삶이 참되고, 아름답게 하고 편리하게 하여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학문이다. 역사에서 배우고, 철학에서 생각하고, 문학에서 상상력을 확장하고, 이 요소들이 융합하여 육화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평이 넓어지고, 삶이 아름다워진다.

여기서 인문학 공부에 기초가 되는 용어 몇 가지의 어원語源에 대해 알아보면, 문화Culture란? 사전적 의미로 인지가 깨어 세상이 열리고, 생활이 보다 편리

하게 되는 일, 철학에서는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그 활동으로 얻어지는 정신적, 물질적 결과물 모두를 말한다.

필자의 해석은 이렇다. 즉, 자연의 날것에 사람의 생각을 버무려서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공동체 모두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계속 누리게 하는 과정에 행복해서 오래도록 누림이 이어져 오는 그 모두의 활동을 총칭한다.

Culture의 어원은 농부가 씨앗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하고, 밭 고르기, 돌 골라내기, 잡풀 뽑아주기, 비료주기, 물 주기와 같은 맥락이다. 논에 쓰레질 하기와 같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지하는 그 일이 Cultural 어원이다. 이를 미뤄보아 문화란 결국 마음밭 같이다.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서 마음을 곱게 다지고 비료 주어 마음을, 지혜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음악 듣기, 그림 감상하고 그리기, 글 쓰고 마음 표현하기 등의 그 모든 정신적 행동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 유용한 창작물과 정신세계를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용하게 누리는 생활의 총칭이다. 독서 생활로 논에 물 주듯이 우리 정신세계에 물 주는 듯, 비타민을 주는 듯, 늘 새로움을 채워야 한다.

창작創作(Creative)이란? 식물의 씨가 싹이 터 자라듯이, 곡물이 자라듯이,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이 늘어나듯이, 사과가 자라면서 익어 달고 맛이 들 듯이, 어떤 일을 꾸준히 연마하는 과정에 새로운 무엇이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유용하게 누리는 새로움의 물질적, 정신적 결과물이다.

독서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 사유의 깊이를 버무리면 나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면 문화인이 된다.

해서 독서 생활이 문화가치 창출의 첫걸음이다. 독서 습관이 몸에 익어 세상 보는 눈이 닦의 눈에서 매의 눈으로 변함을 느낄 때 행복은 바짝 다가온다. 이는 필자의 체험에서 얻은 것이다.

본인은 밤마다 새벽에 읽은 독서만큼이나 늘 행복하다.

이제 졸시 세 편으로 글을 마무리 한다. 바다에서 태어나 벼랑 같은 파도를 뚫고 파랑을 거슬러 오르며 신분 상승을 꿈꾸던 황태처럼 은하수를 항해하는 영혼의 시로 여생을 노래한다.

팔미도 벼랑

태동철

흙 한 점 없이 살이 모두 뜯겨 나간
시련 속에
흰 뼈를 일으켜 세운 골격으로 난바다를 품고 있다

심해에서 달려온 파도를 곧은 등으로 받아
포말을 피워 올린다
억센 늑골을 쳐켜이 쌓아 올린 가슴으로
파도를 조각내서 떠나보낸다

앙상한 뼈에도 석화는 핀다
돌계의 안식처가 되고
승어의 산란처가 되며
발목이 벨갛게 물질한 갈매기 쉼터가 된다

팔미도 벼랑

거친 파도에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태초이래 수직의 자세를 지키며
힘찬 발끝으로 가없는 바다를 펼치고 있다
수평선 너머 몰려오는 파도
물굽이 굽이 팔미도 바랑 앞에서 오체투지를 한다.

신분 상승

태동철

저잣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가 일으키는 파랑을 거슬러 오르며
노가리 푸는 실업자 시절에서
월급쟁이 신분이 된다

도시의 식도 같은 골목식당가에
탕의 주인으로 습급된 명태
등 푸른 무늬가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명퇴를 걱정하면서
지난밤 숙취에 땀이 번들대는 비늘결로
점심 식탁을 헤엄친다

자본이 빛나는 관광호텔 식당
미식가들이 찾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내장을 다 내놓은 속없는 삶으로
북풍한설 이겨내는 인내 속에
황혼을 맞듯 황금빛 살결로 익은 황태
가계의 족보를 품은 가슴으로
한정식이 차려진 테이블을 유영한다

북촌의 기와지붕처럼 마른 비늘로
제사상 재물로 오른 북어
신神을 지키는 호위무사로 환생해
지느러미로 벼린 칼날로
자손들의 건강과 평안을 보살핀다.
나도 설악 덕장에서 담금질하듯
모진 비평받아내면
문란한 세상 바로 잡을 호위문사文士로
하늘에 시인 이름 닿을까

빛의 주인으로

태동철

감자 씨를 흙속에 묻었다
흙과 한 몸 된 감자 씨알에
새파랗게 트운 씨눈들
한여름 밤 총총 별이 되어
은하수 범람 하겠다

지난가을 흙과 한 몸 된 마늘
매운 내가 번진 아릿한 성정을 다스려
파릇파릇 돋아난 짹 눈들
맵찬 눈발이 뒤덮은 하늘 위에
파란 별로 잎맥을 펼친다

나, 흙과 한 몸 되어 육탈 하면
편백나무가 되어
사계절 푸른 침엽의 바늘귀에
햇살 한 올 끼어 솔기 터진
가난한 이들의 옷을 꿰매 줄까
은하수를 항해하는 영혼에게
등대지기로 북두칠성이 될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별 중에 별 리겔*로 태어나
빛의 주인으로 살 거야.

* 리겔 (Rigel) 청색 초거성, 반지름이 태양의 수십, 수백 배의 별
태양에서 251광년의 거리에 있음.



영혼을 위한 노래

-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2023년 용진문화원에서 회원님들에게 배포된 책입니다)

김수원

오래전. 이 책을 읽었고, 요즘 칠순이 넘어 다시 읽게 되었다.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그때 느꼈던 감동보다 나이 들어 느끼는 감동은 더욱 깊고 넓고 컸다.

이 책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글은 젊은 날부터 좌우명으로 삼은 글이다. 젊을 때는 그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정상에 설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느꼈었다. 그러나 칠순이 넘어 다시 이 책을 읽어본 느낌은 인생의 완성을 말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철학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 아주 조용히 흘로 살아온 영혼들을 위한 노래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어딘가에 있을 숭고한 삶의 길을 찾는 독자를 위한 간절히 날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서사시다. 이 책은 자유롭게 비행하는 갈매기 조나단이 구속된 우리에게 던져주는 자유의 경전이다.

내게 조나단은 주인공이자 다른 갈매기는 해내지 못한 생각을 한 영웅이다. 나도 한때는 영웅이 되고 싶었고, 높이 오르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예전의 『갈매기의 꿈』은 3장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책은 리처드 바크가 오래전 써 놓았던 4장을 더해 새롭게 펴냈다. 현재 출간된 『갈매기의 꿈』은 조나단의 성공한 이야기와 조나단이 도드라지는 소설이 아니었다.

다른 갈매기들과 생활이 다른 조나단이었다. 읽을수록 인생의 철학이 있고 갈매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같이 느껴졌고 읽을수록 환희심이 우러났다.

인간 세상도 석가모니부처님이나, 예수님, 소크라테스, 장자, 맹자, 같은 선경지명이 있는 철학자나 깨달은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책을 읽으면 조나단 갈매기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처럼 갖은 고행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첫 페이지의 사진은 갈매기가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든 진정한 갈매기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해변에서 수 천 마리의 갈매기 동료들이 폐 지어 바닥에 있는 먹이를 얻으려고 밀어내고 다투는 치열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서글펐다. 좀 더 높이 뜨는 비행술을 배워서

더 좋은 먹이도 구하고 비행의 기쁨을 얻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조나단은 동료들이 무리 지어 있는 배와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비행 연습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미터 상공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공중에서 실속 했다. 또다시 시도 했으나 또 실속 했다. 실속을 거듭한 끝에 좌절감도 컸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의지를 다지고 실수를 고쳐서 다시 오르고 다시 올랐다. 결국, 실속 하는 것에 이유를 찾게 되었고 실수를 바로 잡아서 공중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다.

갈매기가 공중에서 실속 하는 것은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었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를 굳게 세워 피눈물 나는 비상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게 좋고 좀 더 높이 날며 오래 체공하는 법을 꾸준하게 반복했다.

조나단 갈매기는 계속되는 연습에 매진했다. 속도를 계속 올리고 바람의 방향과 높이의 저항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가 30미터 고도에서 시작한 비행이 수천 미터까지 올라가고 높이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넓은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투명한 바닷속이 보였고 좋은 먹이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한 눈에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연습을 반복하다 더 높은 곳으로 비행하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함께 비행하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신비한 세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자신보다 비행술이 탁월한 갈매기들을 만나 함께 비행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행술을 배울 수 있었다. 고공비행도 가능하지만, 저공비행도 두렵지 않았다. 차츰 그의 비행은 어느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느꼈다. 300미터 상공에서도 파도를 향해 아찔한 강하를 했다. 그러자 강하하는 속도를 알게 되었고 6초 만에 시속 110km를 날고 이 속도에서도 날개가 흔들림이 없이 위로 들리지 않았다. 나중엔 150km를 10초에 통과 했고 조나단은 갈매기 비행 최고 속력 기록을 갖게 되었다. 또한 2400m서 급강하하는 연습을 했고 그는 갈매기 역사상 최초의 곡예비행을 했다. 공중회전, 완회전(횡전), 방위점 횡전, 배면 회전, 거꾸로 낙하, 바람개비 돌기를 몸으로 익혔다. 그는 공중에서 자는 법을 익혔고 밤중에 앞바다로 가로지르며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60km를 계속 날 수 있었다. 다른 갈매기들은 강풍과 안개와 비에 속수무책으로 해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만, 자신은 강풍을 타고 육지 깊숙이 들어가 맛 좋은 먹이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

하나의 단계가 마무리되고 다른 하나의 단계가 온 것이라며 형제들이란 비행에 탁월한 갈매기들은 그를 데리고 갈매기가 신에 가깝게 비행을 하는 기술을 알려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더 좋은 기술을 익혔다. 그곳에서 만난 설리반은 조나단에게 말했다.

“조나단은 백만 중에, 하나인 뛰어난 새야. 대부분 세상에서 거의 똑같은 다른

세상으로 오면 이전 세상을 까맣게 잊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개의치 않고 순간을 위해 살고 있지, 먹거나 싸우거나, 무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 떠올리지, 이런 생각을 하려면 몇 생을 더 살아야 하는지 몰라. 존! 생은 천 번의 생, 만 번의 생이 있단다. 그런 다음 백 번을 더 살아야 우리는 완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백 번을 더 살아야 사는 목적이 그 완벽함을 찾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 일을 터득하기 시작하지.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운 것을 통해 다음 생을 선택한단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생은 이번 생과 똑같아 한계도 똑같고,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도 똑같지”

“조나단은 말했다. 나는 속도를 즐깁니다.”

“완벽한 속도에 접하는 순간 천국에 접하기 시작한 걸세 조나단, 그 어떤 숫자도 한계가 있는데 완벽에는 한계가 없다네. 완벽한 속도는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라네”

조나단의 진정한 본성은 기록하지 않은 숫자처럼 완벽하게 시공을 초월해 어디서나 살고 있음을 아는 게 비법이었다. 그는 신비한 나라 족장의 수 제자였지만 족장은 떠날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조나단에게 말했다.

“과거와 미래를 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다뤄 볼 수 있네. 그러면 날아올라 친절과 사랑의 의미를 알 준비를 갖추게 된 걸세”

족장은 그에게 배우고 익히기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다. 모든 삶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이치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계속 애쓰라고 독려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조나단, 계속 사랑을 연마하게!”였다.

나는 이 책 중에서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다. 세상에서 수없이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 생도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생에서 완벽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생을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조나단은 완벽하게 기술을 배우고 나니 지상에 있는 식구들이 그리웠다. 자신은 지상에 부족들에게 추방되어 추방자 신세였지만 이젠 내려가서 더 좋은 먹이 찾는 법을 알려주어서 바닥에서만 먹이를 찾지 않고 하늘을 높게 비행하여 더 높이 비행하고 더 좋은 먹이를 찾는 법을 알려 주고 싶었다.

신비한 나라의 족장은 그가 떠날 때 “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했다.”

조나단은 더 좋은 기술을, 새로운 삶의 기법을 알려주려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부족들은 아직도 그를 추방자로 대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하늘 높이 비상했다. 그의 비행하는 모습을 본 부족 중 젊은 친구들은 그가 비행할 때 가까이 와서 한 수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찾아오는 갈매기를 한 명씩 제자로 삼아 꾸준히 제자를 늘려가며 그의 기술 기법을 알려주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갈매기는 자유의 무한한 관념이며 위대한 갈매기 상이고, 날개 끝부터 날개 끝까지 몸 전체는 다름 아닌 너의 생각 자체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다. 너의 이해력으로 보고,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너는 나는 법을 알게 될 거다.”

실전에서 터득한 기법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의 제자들은 조나단의 기법이 어렵고 힘들다고 배움을 게을리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법만 알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쉽게 한마디로 가리킬 수도 없고 쉽게 배울 수 없어서 그는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며 게을리하지 말라고 호통쳤으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날기를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쉽게 먹이를 찾는 법만 배우려 했다. 점차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 조나단은 떠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다.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고 계속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연습하고 학습하라고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움의 연마는 너무 어려우니까 편한 방법인 우상을 만들어 조나단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했다. 결국 조나단은 갈매기의 신처럼 되어 성스러운 이름의 위대한 조나단 갈매기가 되었다. 예수의 사후나 석가모니의 사후를 보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따라야 할 길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 쓰여 있음을 깨닫게 한다. 남들이 나의 결심을 지켜보고 감탄하거나 경멸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자유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인간 조나단을 배우고 갈고닦아서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위치인 달인이나, 스승, 성인으로 올라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더 높이, 더 멀리, 배움을 향해 노력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인 것 같아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꼽씹어보며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책이었다.

작가인 리처드 바크는 이 책으로 두 가지 일을 한다.

“나를 날게 한다. 짊어지게 한다.”

둘 다 깊이 감사할 말이다.

영화 <파도가 지나간 자리>를 중심으로

류종호

몇 년 전 국내에 개봉된 영화 <파도가 지나간 자리>가 생각난다. M. L. 스테드먼이 2012년에 발표한 소설 『바다 사이 등대』(The Light Between Oceans)가 원작이다. 국내엔 2017년에 수입된 걸로 안다. 원작 소설이 궁금했다. 극찬을 받은 베스트셀러로 국내엔 2015년 3월 ‘문학동네’에서 『바다 사이 등대』라는 번역본을 출간했다. 참고로 번역본에는 이자벨의 이름을 발음을 살려 ‘이저벨’로 표기했으며 종종 애칭 ‘이지’로 표기하기도 한다. 한나의 이름 역시 발음을 살려 ‘해나’로 표기했다. 주연 배우 마이클 패스밴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이 작품을 계기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했다.

영화를 보고 책을 구매해 읽었다. 퇴역 군인 톰 셔본은 파르타조즈 지역에 위치한 한 섬의 등대지기로 부임하게 된다. 섬은 야누스 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등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톰은 섬에 들어가기 전 머무른 파르타조즈의 마을에서 이저벨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한다. 이저벨은 톰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 가정을 꾸린다.

신혼부부 외에는 아무도 없는 야누스 록에서 톰과 이저벨은 자유롭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만끽한다. 그리고 이저벨은 몹시 고대하던 아이를 갖게 된다. 전쟁 때문에 오빠 둘을 잃은 후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이저벨은 아이들로 시끌벅적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가혹하게도 이저벨과 톰의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연기푸 유산된다. 계속되는 상실과 절망, 무인도 생활의 고독 때문에 이저벨은 심신이 쇠약해지고, 그런 이저벨의 모습을 지켜보는 톰의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운다.

세 번째 유산이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바닷가에서 갓난아이와 남자의 시신이 실린 보트를 발견한다. 이저벨은 아이 엄마는 물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임신 중인 것으로 아니 자신이 낳은 아이로 얘기하자고 톰을 설득한다. 등대지기로서의 의무감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한참을 갈등한 톰은

연이은 유산으로 살아갈 의욕마저 잃을 듯하던 이저벨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내의 뜻대로 해주기로 한다. 톰은 남자의 시신을 섬 가장자리에 묻어주고 보트는 바다로 떠내려 보낸다. 아이는 루시라는 이름을 얻고 야누스 록에서 아낌없이 사랑받으며 자란다. 등대지기 계약 연장을 위해 세 식구가 처음으로 물으로 나가던 날, 이저벨과 톰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불안해한다.

야누스 록으로 돌아가기 전날, 루시의 세례식을 위해 찾아간 교회에서 톰과 이저벨은 우연히 루시의 친부모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다. 루시의 생부는 독일인이었는데 아기와 함께 외출했다가 술 취한 퇴역 군인들에게 쫓기는 바람에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후 실종되었고, 아기 엄마(해나)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넋이 나간 채 남편과 딸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던져진 진실 앞에서 톰과 이저벨은 또다시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저벨은 루시를 계속 키우고 싶어하지만 톰은 해나에게 루시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커져 가는 와중에도 루시는 무럭무럭 자란다.

잠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는데 톰이 이저벨과 결혼하기 전 야누스 록 등대에서 이저벨에게 편지를 쓰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격정에 사로잡혔다. 톰이 속필로 휘갈겨 쓴 만년필이 1920년대 중후반 쉐퍼에서 출시한 라이프 타임 플랫탑 만년필이었던 것이다. 오래된 만년필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나로선 그 펜을 두 자루나 가지고 있었다. 펜이 생산된 시기가 1924-1928년인데 이때는 미국의 금값 산업이 호황이어서 펜촉을 제작하면서 금의 함량을 듬뿍 할애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 야누스 록 등대지기로 가게 된 톰의 손에 쥐어졌다는 점은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장면이긴 하다.

영화의 줄거리로 돌아가 톰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해나에게 딸 루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해나는 딸을 찾아 행복하게 느껴야 할 상황에서도 딸이 어린 시절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이는 루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영화는 이러한 상황을 소설의 전개에 맞춰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사랑과 상실,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힘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화를 감상했을 때에 나는 덕적도에 근무하고 있었다. 덕적도에는 몇 개의 자도가 있어 울도도 그중 하나였다. 우리는 교대로 울도 출장소에 파견을 나갔는데 내 차례가 될 때마다 몇 권의 책과 만년필과 노트를 챙겼다. 일과가 끝나면 가끔 출장소 뒤편 오르막길을 통해 등대산에 올랐다. 외진 길을 오르면 능선 즈음에서 양 갈래 소로를 만나는데 등대산은 왼쪽 오르막을 더 올라야 했다. 울도 최정상 봉우리에

있는 등대다. 갈래 길 오른쪽으로는 팔각정이 있고, 팔각정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일본 침략기에 구축된 서방西防 목적의 진지(哨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울도 등대는 무인 등대였지만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야누스 록의 외딴 등대와 등대지기 톰이 클로즈업된다. 서해 먼바다 외딴섬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등대지기…… 밤이면 고요한 적막 속에 책을 읽고 만년필로 끄적이곤 했던 지난 적 삶이 시간의 간극을 넘어 어제 일처럼 그리워지곤 한다.

울도

덕적도에서 종선으로 갈아타고
많게는 두 시간 걸리는 외딴섬
서해 먼바다에 울도는 있다

울도에서 태어나
울도에 집을 짓고
자식들을 출가시킨 어르신은
앞으로도 섬을 떠날 일이 없다
배를 타지 못하는 병이 있다
차도 타지 못하는 병이란다

어제는
요양병원 간 아내가 그립다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리움이 사무친들
부부는 끝내 재회하지 못하리라
육지에선 퇴원이 없고
이쪽에선 배를 타지 못할 테니

이별이란 이런 것인가
울도는 영원히 서해 먼바다에 있다

- 拙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이명수

옹진문화원에 2021. 4. 15일 자로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어 2023. 8. 31일 자로 떠나게 되어 2년 5개월 과정이 시원섭섭한 감정이다. 그동안 옹진문화원에서 제2의 인생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회원님들과 많은 사업을 통해 옹진문화원의 실천 가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중에서도 문화원 자체사업인 도서지역 양서보급 사업의 중요성을 회원 간담회 시, 이사회 시, 총회에서 사업 보고 시 강조하였다.

『옹진문화』 4호(2021년 발간)에는 「제2 인생을 맞이하여」에서 공직생활 34년을 마치고 옹진문화원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에 대한 인생 설계 각오를 다짐하였으며, 5호(2022년 발간)에서는 「오십에 읽는 장자」를 읽고 기고하면서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성세대인 나에게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소요’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기라는 다짐이었다.

옹진문화원에서 2023년 2월에 선정하고 배부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1980년 대학시절에 문고판으로 읽어보고 약 40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책이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멀리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읽어 보았다는 만족감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갈매기의 꿈』에서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행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실 이상은 배우지 않는다.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운다. 대개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다.

우리 인생도 대부분의 갈매기와 마찬가지다. 하루하루가 살기 바쁘다 보니 중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인생살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나단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각자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노력해서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도 다람쥐 챗바퀴처럼 돌아가지만 조나단 갈매기처럼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노력해서 완벽에 도달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것이다.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다. 퇴직 후에 알찬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자. 서예, 독서, 댄스, 영어 공부, 가족들과 정기적인 국내 여행 및 1년에 한 번 해외 여행,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등이 직장생활 평계로 후순위로 밀리고 밀려나 있잖은가.

이제 옹진문화원을 떠나면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실천 할 것이다. 조나단 갈매기처럼 단지 먹기 위해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통한 삶의 희열, 성취감, 자유가 존재의 본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날 수 있어 영원한 자유를 획득 했듯이 『갈매기의 꿈』을 통해서 나에게도 인생을 한 번 더 조망하고 관조할 수 있는 성찰을 한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작은 무엇인가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행해야겠다고 다짐 해 본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

- 앙투안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차윤옥

별 대신 웃을 수 있는 방을

국내에서 한 해 출판되는 도서는 약 4~5만 종에 육박한다. 그 많은 종류의 책 중에서 널리 읽히게 되는 책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책 중에서 극히 일부와만 인연을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책이 존재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읽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 읽을 기회가 오지 않는 책도 많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그런 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는 것이 소원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칠 때까지 오로지 책만 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짬이 날 때마다 가지고 있던 책이나 손이 닿는 곳에 놓인 책은 무조건 몇 장이라도 매달려 읽는 버릇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어린 왕자』는 번역자가 다른 서너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속 깊이 늘 품고 있고, ‘인생의 필독서’로 손꼽을 정도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다.

앙투안 생텍쥐페리(1900-1944)의 『어린 왕자』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았을 법한 책들 중의 하나다. 이 책은 사실 나이가 어렸을 때 읽고 느끼는 감정과 어른이 됐을 때 읽고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른 책으로도 유명하다. 워낙 유명한 인용구가 많은 데다 작가가 직접 그린 삽화와 어우러지는 그 내용이 동화같이 아름다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필독서로 꼽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의외로 『어린 왕자』를 완독했거나 그 내용을샅샅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도 하다. 동화를 시작하듯이 쉬운 듯해도, 읽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읽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시적詩的 감정으로, 고도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상상력을 부풀려주는 어린 왕자를 다 읽고 나면 가슴에서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 이제 별은 더 이상 별이 아니다. 끝 부분에 어린 왕자가 나(조종사)와 헤어지기 전에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웃게

되는, 웃을 수 있는 별을 선물로 주고 떠난다. “난 이제 나의 별로 돌아갈 거야. 아저씨는 그 별을 보면 처음에는 슬플 거야. 그러나 그 슬픔이 가시면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오히려 웃을 수 있을 거야. 그건 별 대신 웃을 수 있는 방울을 아저씨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일 거야.”라고 말하며 웃는다.

생텍쥐페리는 문학을 좋아한 동상적 소년이었다. 1921년 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항공대에 근무하며 조종사의 삶을 살았다. 1926년 「비행사」라는 중편소설을 비롯해, 조종사를 주인공으로 다룬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친다. 「남방 우편기」, 「야간 비행」 등은 과거 본인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1943년에 『어린 왕자』를 집필한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 남부 해안에서 정찰 임무 중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다양한 삶의 궤적처럼 역경과 싸워나가며 삶의 의의를 찾는 과정이 작품 속에 많이 묘사되었다.

사막이 상징하는 외로움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눈물 나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생의 슬픈 교훈들로 가득하다. 화자인 주인공 조종사가 잊고 살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일깨워주고, 길들여놓고 자신이 살던 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린 왕자. 주인공은 여생 동안 어린 왕자를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며 지낸다. 그 그리움이 쌓여 하나의 이야기로 폭발하였고 덕분에 우리는 환상 속에 있을 법한 아련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와 어른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을 취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금세 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한다.

『어린 왕자』의 무대는 사하라사막이다. 소설은 사막을 여행하던 화자인 나, 비행기 조종사가 6년 전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하며 시작된다. 나는 그때까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도 없이 외롭게 지냈다. 나는 그곳에서 우연히 어린 왕자를 만난다. 그들은 왜 하필 사막에서 만났을까. 사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 왕자는 B612라는 작은 혹성에서 혼자 살았다. 둘의 공통점은 사막과 같은 황폐한 정서의 외로움을 느낀 점이다.

어린 왕자가 살던 혹성에는 장미가 있었다. 장미에게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보살피다가 사랑을 느끼지만,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장미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어린 왕자는 더 큰 세상을 알게 되면 장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나는 어른들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뿐이었다.

어린 왕자가 여행한 여섯 개의 별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찾아간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좋은 옷을 입고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있는 임금님은, 자신은 항상 옳고 정당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져 무엇이든 다스린다는 과대망상증 환자다. 임금님은 어린 왕자에게 “하품을 명하노라. 앓기를 명하노라. 질문하기를 명하노라.”라고 명령만 한다. 합당하지 않은 명령만 내리는 임금님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왕자에게 공감은커녕 공허하게 들려 단절감만 깊어갈 뿐이다. 실망한 어린 왕자가 떠나려 하자 “짐은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라고 급히 소리 질렀으나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두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하고, 칭찬받기만을 좋아하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본인이 관심과 칭찬의 대상이길 바란다. 누구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허영꾼은 자신을 송배하는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허영심 많은 까마귀」「목걸이」「마담 보바리」 등 끝없는 허영과 욕망을 다룬 동화나 소설들을 떠올리게 하는 허영꾼이다. 어린 왕자는 이 별에서도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세 번째 별에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술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부정적인 중독성이 있다. 사람들은 불안감, 열등감 등에 시달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에 빠지기고 한다. 처음에는 행복하겠지만, 중독에 빠지면 다시 혀탈해진다. 술 마시는 걸 참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다.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중독의 원인이 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환경을 탈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자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힘들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면 무너진 자부심을 되찾고, 성취감도 얻어 자신감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어린 왕자는 역시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5억여 개의 별을 소유해 부자가 되고 싶은 상인이 살고 있었다. 별을 세고 또 세면서 스스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어린 왕자는 이 아저씨도 술꾼과 비슷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상인에게 진정한 소유에 대해 설명한다. 자신은 꽃 한 송이를 소유하

고 있는데 매일 물을 주고, 화산이 세 개 있는데 매일 청소해 주는데, 자신이 그들을 소유하는 건 그것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인이 별을 소유하는 것은 별들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진정한 소유는 서로 돌봐주고 책임을 지는 데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소유는 내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꽃이 활짝 피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소유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을 켜고 끄는 점등인이 살고 있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작은 별에 점등인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가로등을 켜면 별을 하나 더, 꽃을 하나 더 생겨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지. 이건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야. 참으로 이로운 일이지.’라고, 그동안 거쳐 온 다른 별에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명령 때문에 의무감에 사로잡혀 일만 하는 점등인이 측은했다. 별이 너무 작아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쉴 수 있는데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 끄고를 반복해야 하니 참 안 됐다고 말하며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여섯 번째 별은 다섯 개의 별들보다 크고 아름다웠는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지리학자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를 보자 탐험가 한 명이 왔다고 소리 지르며 매우 기뻐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은 바다나 강이 어디 있고 도시와 산과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지리학자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직접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탐험가들이 가져온 정보를 모아서 책에 기록하는 일을 한다. 그는 산과 강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정작 진정한 아름다움은 알지 못한다.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별에 있는 장미에 대해 말하자 그런 존재들은 일시적인 한순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지리학자는 공허한 학문만 하느라 소중한 가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지구에 가보라고 추천한다. 어린 왕자는 한순간의 꽃일 수밖에 없는 장미를 혼자 내버려 두고 온 것을 후회하며 지구를 향해 떠났다.

어린 왕자는 아무도 없는 별에 혼자 살며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임금님, 감언이설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 없는 허영꾼, 술을 마시는 자신이 부끄러워 계속 술을 마신다는 술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무의미한 셈하기만 계속하는 상인, 별이 작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 데도 계속 1분마다 불을 켜고 끄는 이상한 점등인

이 사는 아주 작은 별, 책상 앞에서 움직일 줄 모르는 지리학자 할아버지가 사는 여섯 개의 별을 거쳤다. 여섯 개의 별을 여행하는 그 여성에서 어린 왕자가 얻은 교훈은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이라는 것뿐이다.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힌 흔해 빠진 어른들이 사는 별들은 어린 왕자가 원했던 세상이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을 하던 가로등을 켰다 꼬는 사람과만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머물 수 없었다. 여섯 개의 별은 어린 왕자가 머물고 싶은 곳이 없었다.

일곱 번째 별, 지구에서 일어난 일

일곱 번째 여행지인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지구는 시시한 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지구에는 111명의 임금님을 비롯해, 허영꾼, 술꾼, 상인, 점등인, 지리학자 등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억 명의 어른이 산다. 지구는 어마어마하다. 여섯 개의 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린 왕자는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외롭지 않을까?

어린 왕자는 처음 노란 뱀을 만나 자기가 도착한 곳이 아프리카 사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린 왕자가 사막은 외롭다고 말하자, 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외로운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에게 자기 별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한다.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는 꽃 한 송이를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났다. 산에게 “외로우니 친구 하자”고 했더니 “외로우니까 친구 하자”며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상상력이 없어서 남이 하는 말만 따라 한다고, 자기 별의 장미꽃이 먼저 말을 걸어주던 일을 떠올리며 어린 왕자는 더 외롭고 쓸쓸하다. 산을 내려와 사막을 걷다가 장미꽃 5천 송이가 있는 정원을 만난다. 어린 왕자는 당황한다. 한 송이뿐인 자기 별의 장미꽃이 5천 송이의 장미꽃을 보면 속상하고 창피할 거라며, 그저 평범한 꽃에 불과한 장미가 그토록 교만했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왕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며,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에게 자신이 너무 쓸쓸하니까 함께 놀자고 하자, 여우는 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놀 수 없다고 말한다.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서로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특별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면 특별한 그 누군가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자기 의지대로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조금씩 천천히 결눈질로 보아야 한단다. 만날 때는 시간을 정해서 가령 오후 네 시에 약속하면 세 시부터 행복해지는 거라고 말한다. 특별해지려면 의식儀式이 필요하다며, 헌신, 수고 등 길들여야 한다며 서로 길들인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장미정원에 찾아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만나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장미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며, 자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오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정원으로 가서 장미꽃들을 보고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었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5천 송이 장미보다 내 한 송이 장미가 더 소중해. 내 장미와 나는 헌신과 희생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한 뒤 여우에게로 되돌아갔다. 여우와 작별인사 할 때,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여우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키운 장미꽃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해 말하며 여우와 헤어졌다.

여우와 헤어진 뒤, 전철수를 만났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바쁘기만 하다고 생각하며 전철수와 헤어진다. 다음에 만난 사람은 같은 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약을 파는 장사꾼이다. 사람들이 바쁘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 약을 먹으며 생활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사막에서 만난 나와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남겨두고 온 장미과 비슷하게 생긴 5천 송이의 장미꽃을 만났고, 여우를 통해 ‘길들여진다’는 관계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의 곁에 있었던 한 송이의 장미와 맺었던 서툴렀던 관계를 반성한다. 까칠하고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자신의 장미꽃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알았다. 그때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너무 어려서 장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장미꽃보다 어린 왕자 자신의 그릇이 작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하는데 그때는 방법을 몰랐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외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섯 개의 별에서 만난 사람들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문제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고독하다. 존재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그 자체였다는 것, 길들인 것에 대해선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새로 배운 사실을 옮조리며 자신의 소행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처음 지구에 도착했던 사막으로

가는 길에 화자이며 주인공인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와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비행기 수리에 여념이 없는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 달라고 부탁 한다. 나는 어릴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모자가 뭐가 무섭냐고, 그런 그림 그리기는 그만두고 지리나 역사나 산수나 문법을 공부하라고 편장을 들었다. 어른들에게 실망한 나는 화가가 되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나는 양을 그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어린 왕자는 그림을 알아보았다. 무서운 그림 말고,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다시 재촉 한다. 처음으로 그림을 알아봐 준 친구,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배운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나를 놀라게 한다. 양을 그려줄 때마다 “병이 들었다, 숫양은 싫다, 늙은 양도 싫다”며 다시 그려달라고 주문한다. 나는 비행기 기관을 급히 뜯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상자 하나를 그려주고 그 안에 양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만족해했다. 이렇게 어린 왕자와 나는 사막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어린 왕자가 소혹성 B612에서 온 것을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1920년에 양복을 입고 다시 증명해 보였더니 모두가 그의 말을 믿은 적이 있다. 어른들은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겉모습으로만 평가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목소리라든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등 진정한 호기심에는 관심이 없고, 나아가 몇인지, 형제가 몇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인지 등 보통 겉모습만 중시 여긴다.

양을 그려준 덕분에 어린 왕자 삶의 비밀도 하나둘 알게 되었다. 나는 당장 비행기 고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하면서 양이 필요한 것은, 나쁜 풀들이나 바오밥나무가 크게 자라기 전에, 그 싹이 나오면 바로 먹게 하려고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양이 자기 장미꽃까지 먹어 버릴까 봐 걱정이라면서 흐느껴 울었다. 사실 어른처럼 말한다는 것은 나에게 충격적인 말이다.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나는 연장들을 내팽개치고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양에게 씌울 줄레도 그려주고 장미가 입을 갑옷도 그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린 왕자의 순수성

앞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중요한지 볼 줄 알게 되었다.

비행기가 고장 난 지 8일째 되는 날, 나와 어린 왕자는 우물을 찾아 나섰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런 거야.”라는 어린 왕자의 말에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답하자 내가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어린 왕자가 좋아했다.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는 웃고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곤 했다. 그라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바람이 다시 일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어린 왕자는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는 거라고 말한다. ‘내 귀에는 아직도 도르래가 노래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고 출렁이는 물속에서 해가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어린 왕자 덕분에 나는 아픈 과거를 만나 새롭게 거듭났다. 도르래의 소음이 아름다운 노랫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어린 왕자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

비행기 수리를 끝낸 나는 어린 왕자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지만, 자기는 가시 네 개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장미꽃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를 돌봐주려 자기 별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며 뱀의 독을 이용해 지구를 떠났다.

어린 왕자와 친구 되기

사막은 어린 왕자를 만났던 곳이지만, 이별했던 곳이기도 하다. 사막은 어린 왕자와 내가 서로 길들여진 가슴 찡한 곳이다. 여전히 사막과도 같은 세상이지만 이제는 살 만한 곳으로 변했다. 어린 왕자가 떠나고, 시간이 흘러 6년 후 하늘의 수 많은 별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는다.

어찌나,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다 가죽 끈을 달아주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에게 유리 덮개를 씌우고 양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모든 별이 웃는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덮개 씌우는 일을 잊는다든지, 양이 밤중에 나가기라도 한다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로 변해 벼린다. 이것은 커다란 수수께끼이다.

나는 어른인가? 어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순수와 현실 사이,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우스갯소리로 모든 부모가 보기에 자기 자식 중에 영재 아닌 아이가 없다고 한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든 어린아이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뜻일 테이다. 그렇게 소중한 재능과 호기심, 탐구심의 불꽃을 놀라운 속도로 꺼버리는 것은 바로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다. 한 번 질문한 것은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어린 왕자처럼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자기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다. 어른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을 잊고 무성의한 대답으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아예 질문을 할 수 없도록 작은 입을 막아 버린다. 그러면서도 요즘 아이들은 아이답지 못하고 영악하기만 하다고 혀를 차며 모순된 말을 내뱉는다. 그러나 이 불쌍한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가끔 놀라운 말과 행동으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 준다. 깨달음의 순간에 어른들의 마음속에 숨죽인 채 숨어있던 저마다의 아이 시절도 자신의 존재를 조심스레 알려본다. 그 아이는 어떤 계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우리가 꽉 막힌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지나온 그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는 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을까.

나 역시도 세상의 혼탁한 물결에 지치고 힘이 들 땐 가장 가까운 책장에 꽂힌 『어린 왕자』를 한 권 빼든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의 내가 연필로 그어놓은 밑줄들을 보며 ‘아, 이런 문장에 마음을 주기도 했었구나.’ 생각하기도 한다. 단순히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던 과거의 나와도 재회한다. 밑줄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책도 있고, 27개의 장으로 구성된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책도 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떠 보기도 한다.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이유 없이 가슴이 스산한 날에도 ‘어린 왕자’는 기꺼이 친구가 되어준다. 그는 나에게도 한없이 순수했던 어린 날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쉽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도 따른다는 불변의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그 조그맣고 여린 소년이다. 그렇게 그를 만날 때마다, 이 번잡하고 무거운 삶의 굴레를 훌훌 털고,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진다. 순수했던 또 다른 자아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마음의 빛깔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먼지를 털고 소중히 품어본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곳이 그려져 있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리며 사하라사막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스페인·포르투갈

패키지여행을 다녀와서

곽인화

〈스페인으로 출국〉

올 6월 5일~14일까지 8박 10일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패키지여행으로 다녀왔다. 홍콩이나 일본 등은 자유여행으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동 거리가 멀어서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을 선택했다. 여행상품을 고를 때의 기준은 체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직항으로 왕복, 국내선 비행기 이용 등으로 이동시간이 적은 것이었다.

6월 1일, 여행사에서 비행기 좌석 배정할 사람은 하라고 하여 바로 오토체크인을 했다. 이때 하지 않은 사람은 일행과 떨어져 앉기도 했다. 6월 5일 출발 당일은 맑은 날씨였다. 공항에 도착하여 환전하고 여행사 미팅하고 짐 부치고 탑승장에 도착하니 9시였다. 우리를 태운 KE915편 비행기는 11시 55분 정시에 출발하여 13시간 45분을 날아 다음날 오전 1시 40분에 공항에 도착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늦다. 입국 후 가이드를 만나서 50여 분 걸려 오후 9시쯤(현지시간) 숙소에 도착했다. 방에 들어오자 피로가 몰려왔는지 어지러움이 느껴져서 바로 침대에 누웠다. 새벽 3시 반에 깨서 다시 자려고 해도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그날 필요한 물건을 정리해도 7시 30분 조식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다음날 구엘 공원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평소에 신경성으로 배탈이 날 때가 있어서 그날도 약을 먹었는데도 그랬다. 공원에 도착해서 화장실부터 다녀왔다. 다음 코스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자마자 스페인 가이드에게 물어 먼저 화장실에 다

녀오니 일행은 동문 입구에서 해설을 듣고 있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우디의 작품이 있는 곳을 방문했음에도 속이 불편하니 아름다운 가우디의 작품에 감동은커녕 감상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구엘 공원과 성가족성당에 입장한 수많은 관광객을 보고 가우디 작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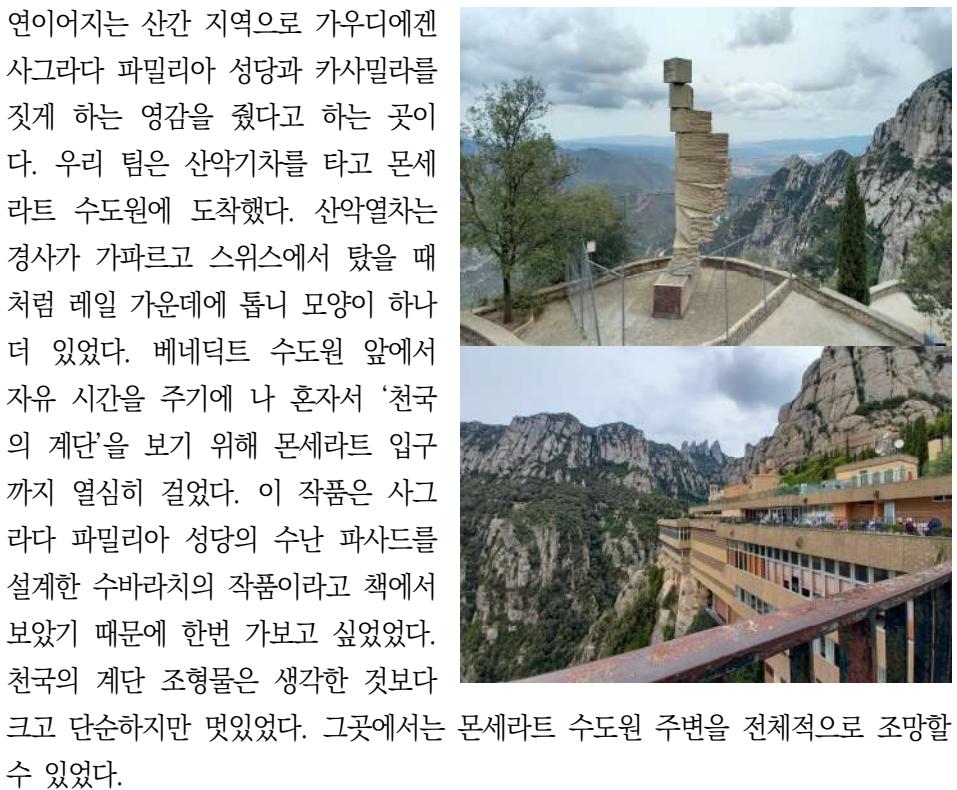
점심으로 해산물 파에야를 먹고 나서 바르셀로나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거리 중 하나인 람블라스 거리에서 한 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이 거리에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여 남편과 나는 크로스백을 서로 안쪽으로 매고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 손을 잡은 채 까르푸를 향해서 20여 분을 걸었다. 그 대형마트는 몹시 넓고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오래도록 구경하고 싶었지만 지하 매장에서 꿀국화차 10개를 구입하고서 다시 약속 장소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를 태울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늦어지자 가이드는 근처에서 과일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우리는 과일가게에 들어가서 체리와 납작 복숭아(우리나라는 복숭아가 등근 모양인데 스페인은 납작하다)를 1킬로그램씩 사서 기분 좋게 버스를 탔다.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는 버스를 세우는 곳과 관광지가 멀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걷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오늘 18,000보를 걸었다. 걱정했던 오른쪽 무릎은 아프지 않고 발바닥과 발가락이 아팠다. 게다가 1일 차와 2일 차에 묵은 숙소는 대형버스 진입이 되지 않아 버스에서 내려 10여 분을 걸어야 했다.

〈몬세라트 수도원〉

지로나로 이동하여 구시가지에 자리한 산타마리아 데 대성당에 도착했다. 성당 뒤편의 86개 계단 꼭대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니 마치 중세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지로나를 떠나 스페인 아웃렛인 라로카빌리지에 갔다. 우리 부부는 미리 생각하고 있던 캠퍼 매장에 가서 남편은 편한 구두를, 나는 운동화를 샀다.

그 후 몬세라트로 향했다. 몬세라트는 울퉁불퉁한 기암괴석 봉우리가 6만 개나



연이어지는 산간 지역으로 가우디에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카사밀라를 짓게 하는 영감을 줬다고 하는 곳이다. 우리 팀은 산악기차를 타고 몬세라트 수도원에 도착했다. 산악열차는 경사가 가파르고 스위스에서 탔을 때처럼 레일 가운데에 톱니 모양이 하나 더 있었다. 베네딕트 수도원 앞에서 자유 시간을 주기에 나 혼자서 '천국의 계단'을 보기 위해 몬세라트 입구까지 열심히 걸었다. 이 작품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수난 파사드를 설계한 수바라치의 작품이라고 책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었었다. 천국의 계단 조형물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단순하지만 멋있었다. 그곳에서는 몬세라트 수도원 주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몬세라트를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 말라가로 이동하기 위해 바르셀로 공항에 갔다. 밤 8시 45분에 출발하는 국내선이 1시간 이상 늦게 출발하여 말라가의 숙소에는 1시쯤 도착했다. 오늘은 20,000보 걸은 것 같다. 발과 다리가 아프다 못해 얼얼하다. 숙소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 몹시 춥고 바람이 불었는데 침대에 눕자 추위가 느껴져서 이불장에 있던 담요를 꺼내 덮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라나다의 알람브라와 론다의 누에보 다리〉

오늘 아침 식사 때, 혼자 오신 남자분이 주신 지사제를 먹었다. 또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3명이 함께 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도 자신도 배탈도 고생한 적이 있다며 약을 주셨다. 다음날 조식 시간에 나는 이 두 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꿀 국화차를 1각씩 드렸다.

4일 차는 알람브라에 입장하여 먼저 헤네랄리페 정원에 갔다. 알람브라는 스페인의 마지막 아랍 왕조인 나스르 왕국이 남기고 간 뜻밖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폐허가 된 궁전은 1832년 워싱턴 어빙의 '알람브라 이야기'가 히트를 치면서 기사



회생의 복원이 이루어졌고, 내게는 몇 년 전 TV에서 방영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그라나다를 꿈꾸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 알람브라는 크게 나스르 궁전, 알카사마, 카를로스 5세 궁전, 헤네랄리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패기지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스르 궁전은 입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름 궁전인 헤네랄리페에서 물과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파른 능선을 따라 지은 난공불락

의 요새인 알카사바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벨라의 탑에 오르자 알람브라와 그라나다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다. 게다가 어제까지는 속이 불편해서 여행에 집중하지 못했으나 오늘은 속이 편해서 마음도 가벼워졌다.

다음은 2시간을 이동하여 론다의 누에보 다리가 잘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다. 다리가 잘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서 보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도 충분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집에서 누에보다리 부근의 지도를 출력해 갔는데 직접 보고 나니 지도의 위치가 어딘지 한눈에 들어왔다. 다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세비야의 숙소에 도착했다. 오늘 날씨는 춥다가 비 오다가 더웠다. 숙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 같은 곳인데 방이 넓어서 가방을 정리할 공간이 넉넉했다. 일행 중 선택 관광을 신청한 사람은 밤 9시에 시작하는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다.

〈세비야대성당과 에스파냐 광장〉

오늘도 오락가락한 날씨이나 우리가 관광할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맨 먼저 도착한 에스파냐(스페인) 광장에서 자유 시간을 1시간 10분 주었는데 그중에 선택 관광으로 마차투어 할 사람은 4명씩 마차를 탔다. 출발하여 마리아 루이사 공원에서 잠시 포토타임을 가진 후 세비야대성당을 돌아서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스페인 광장을 충분



히 둘러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해도 말을 타보니 재미있었다. 그다음 세비야대 성당에 입장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했다. 이곳에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콜럼버스의 묘’는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콜럼버스의 유언에 따라 카스티아·레온·아라곤·나바라 왕국의 왕 조각상들이 그의 관을 어깨에 짊어 메고 있는 모습이다. 주 예배당은 예수와 성모의 삶을 보여 주는 45가지 장면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금으로 조각해 화려하다. 대성당을 나와 황금의 탑을 본 후에 버스에 올라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향했다. 그동안 많이 걸어서 발이 아팠는데 장시간 이동하는 동안 오히려 푹 쉬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파티마 대성당과 까보다로까〉



대서양 바로 앞이라선지 리스본의 아침은 16도로 약간 쌀쌀하게 느껴졌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로니모스 수도원을 외부 관람하고 근처에 있는 발견의 탑에 갔다가 까보다로까로 이동했다. 거기서 대서양의 시작점이자 유럽의 끝인 해변 절벽 위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며 잠시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다. 파티마로 가는 도중에 오비도스 시티투어 후 파티마 대성당으로 이동했다. 대성당은 세계 3대 성모발현성지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당에 들어서자 바로 양초 타는 연기로 뿐옇고 그 냄새가 심하게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자신이 구입한 양초를 들고 줄지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

었다. 그 옆에서는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곳까지 무릎으로 걸어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성당 광장이 넓어서 한참을 걸어 성당 내부에 들어가니 이번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중앙 제단을 지나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 나왔다.

버스로 2시간을 이동하여 포르토에 도착했다. 이곳 호텔은 7층이어서 전망이 좋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방에 가방을 갖다 놓고 근처의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 못 찾아 행인에게 길을 물었다. 모녀로 보이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줘서 고마웠는데 그 여성들은 브라질에서 왔다고 했다.

〈포르토에서의 굵고 짙은 관광〉

포르토 대성당은 지대가 높은 구시가지에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로 앞에 항구가 있어서 전망이 좋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임을 나타내는 히잡을 착용한 젊은 여성의 우리 일행에게 오더니 우리말로 자기는 한국을 좋아한다며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여 같이 찍었다. 골목을 내려오니 가이드 디리베이라 항구였다. 오른쪽 하늘에는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고 왼쪽엔 멋진 아치형 철골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바로 루이스교였다. 가이드께서는 바다가 보이는 노천카

페에서 음료를 사주셨는데 오렌지주스를 막상 마시려니 다음 화장실까지는 2시간 이상을 가야 한다고 하여 한 모금밖에 먹지 못하여 아쉽다. 유럽은 한국과 달리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유료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 또 주변에 없으면 카페를 찾아야 하기에 화장실 이용이 늘 부담이다. 그다음 코스인 루이스교까지는 계단을 오르고 올라 아주 힘들게 올라갔다. 남편을 붙잡고 오르지 않았다면 일행과 뒤처질 뻔했다. 다리 위에서 보는 경치도 아름다웠고 바로 옆에서 트램이 달리는 걸 보기도 했다. 포르토는 아기자기한 도시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 자유여행으로 오기에도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다.



〈친절한 파리 식당의 주인〉



다시 스페인을 향해서 세고비아로 5시간을 이동하는 중이었다. 출발한 지 2시간 후쯤 어느 시골 마을의 식당에 갔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사장님의 얼굴이 웬지 영화 배우처럼 표정이 풍부하시고 미소가 아름다우셨다. 또한 미리 차려진 식탁을 보니 다른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있었다. 물과 음료수들이 큰 병으로 놓여있어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음료수들이 모두 공짜라는 것이다. 음식도 낙넉했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나왔다. 나는 먹지 않지만 포르투 와인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원하는 만큼 더 갖다 주셨다. 이전 식당에서는 식당에 가면 4인이 한 테이블에 앉는데 물과 음료를 주문해야 갖다 주었고 별도로 돈을 냈었다. 그 식당 위치가 시골이라서 단체 손님을 오게 하려고 하는 상술일 수 있으나 어쨌든 모두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신 사장님께 감사했다.

〈세고비아의 수도교와 톨레도 대성당·산토 토메 성당〉

세고비아에 도착하여 먼저 수도교에 갔다. 전에 터키인지 이스라엘에선가 수도교를 본 적 있지만 그곳보다 훨씬 크고 보존상태도 좋았다. 오늘 새벽에 세고비아에서 열기구투어(선택 관광)가 있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늦은 10시에 출발이다. 이번 숙소 근처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메르카도나’라는 대형마트가 있었다. 남편과 나는 영업시간인 9시가 되기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끌 국화차, 발사믹 식초, 올리브크림, 애플망고 등을 사서 부지런히 숙소로 돌아와 떠날 준비를 했다.

첫 일정으로 세고비아 수도교에서 내려 걸어서 세고비아 성모 대성당을 외부 관람하고 약국에 가서 스페인 피로회복제로 알려진 포텐시아티 2각을 구입했다. 그다음 알카사르성 외부를 본 후 톨레도로 이동했다. 도착하여 산 위에 보이는 구시가지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5번 갈아타고 올라가서 톨레도 대성당에 갔다.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 다녔을지 궁금하다. 이 대성당은 스페인 가톨릭 총본부가 자리한 대성당이라는데 신의 손가락이라 불리는 뾰족한 첨탑과 천국을 향한 열망을 담은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가 돋보였다. 내부에는 조각과 그림으로 아름답게 꾸민 ‘트란스파렌테 (Transparente)’가 특히 멋있었다. 원래 있던 천장 일부를 뜯어내고 자연광을 불어 넣은 파격적인 공사였다고 한다.

그다음 근처에 있는 산토 토메 성당은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림 앞에 서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톨레도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 이 성당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데 우리 팀도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그림만 보고 나왔다. 그림 바로 아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주인은 그림 속 주인공이자 이 성당의 후원금을 전달하던 오르가스 백작이라고 한다. 톨레도를 떠나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마드리드의 프라도미술관과 마요르광장〉

어느덧 9일 차 마지막 날이다. 마드리드의 날씨는 최고기온 24도에 최저기온은 16도다. 9시 현재 16도다. 아침 10시 20분에 출발한다니 편하기는 하지만 가볼 곳이 많은 마요르광장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어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먼저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에 갔다.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자유 시간을 주었는데 나는 이 자유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썼다. 서 있던 장소 앞에 뚜론으로 유명한 ‘비센스’ 매장이 보였다.

바로 들어가니 넓은 매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시식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선물용 뚜론과 초콜릿을 구매하니 프로모션 중이라며 큰 초콜릿을 선물로 주었고 얇은 에코백에 담아 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남은 시간 근처의 공원 같은 곳을 거닐며 벤치에서 쉬다 보니 일행들이 돌아와서 왕실이 수집한 소장품을 전시

한다는 프라도 미술관에 같다. 이 미술관은 공항처럼 보안 검색을 하고서 큰 가방이나 음식을 맡길 수 있어서 힘이 떨 들었다. 들어가서 스페인 왕실 컬렉션의 천재 화가 3 대장이라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등의 작품을 감상했다.

마요르 광장으로 걸어서 가다 보니 마요르 광장에서 자유 시간에 가려고 했던 츄러스로 유명한 '산 히네스'가 보였다. 다행히 가이드께서 우리에게 맛을 보여 주셨다. 이 광장에서는 자유시간이 짧아서 빠른 걸음으로 라치나타 매장에 가서 발사믹 식초와 립밤만 구입하고 돌아왔다. 마지막 코스로 간 솔광장에는 스페인의 모든 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0km 표식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 다음엔 공항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SOL 지하철역에 가봤으나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했다. 공항에서 가방을 부치고 세금환급서류를 우체통에 넣음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치면서〉

살다 보면 미래를 예측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번 여행에서도 그랬다. 평소에 무릎이 좋지 않으나 이번 여행 중에 잘 걷지 못하여 민폐를 끼칠까 봐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아픈 데는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과 발톱이었다. 사람들도 유럽 여행의 힘듦을 알고 있어서인지 65세 이상은 우리 부부 뿐이었다. 또 구내염이 잘 생기는 편이라서 음식을 못 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배탈이 나서 처음엔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지사제를 먹어도 듣지 않았는데 일행이 주신 약을 먹고 괜찮아졌다.

2010년에 유럽을 처음 갔을 때도 화장실이 적고 그 앞에서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는 어디서나 공공화장실을 알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카페를 찾아가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곤란할 때가 있었다.

여행 내내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다니기에 좋았다. 한국의 6월보다 더 울 걸로 생각했는데 다니기에 적당했고 포르투갈에서는 오히려 선선했다.

여행을 다니며 현지에서 과일을 사거나 그 나라의 특산물을 사 오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현지마트와 매장에서 뚜론과 발사믹 식초 등을 사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금 환급을 시도했다.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환급 할 수 있었지만 번거로울 것 같아서 말았는데 이번에 환급을 받아서 뿌듯하다.

여행 초기인 바르셀로나에서부터 많이 걸어서 힘들었다. 여행 후반기에 포르투갈을 다녀오면서부터 버스 이동이 늘어나서 덜 걷고 또 여행에 적응이 돼서 비로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자 이미 돌아갈 시간이 됐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엄지발톱색은 검게 변해있고 아직도 발가락이 아파서 운동화를 신지 못하고 샌들만 신고 다닌다. 그럼에도 늘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스페인이었는데 포르투갈까지 다녀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 함께 다녀온 남편에게도 감사한다.



체험 학습장을 다녀와서

이순자

우리 세대와는 달리 요즘 세대는 핵가족화 시대에서 태어나 도시 위주로 생활하게 되어 시골 풍습을 잘 모르고 자라기에 쌀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보면 ‘쌀 나무’라 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첫 번째 제가 ‘두리버섯’ 체험 농장에 모니터링을 갔을 때 그곳에서는 버섯체험(직접 따보는 체험)을 아이들이 할 때는 버섯이 자라는 모습과 직접 채취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지요. 버섯 초절임 버섯초밥을 예쁘게 만들어 먹을 때는 감탄사가 절로 나와 감성이 풍부해지는 시간을 갖고, 야외에 나

가 밭에서 고사리 손으로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캤다고 호미질을 하는 모습이 어찌나 열심인지 고구마가 보일 때는 보물이라도 찾은 듯 소리치며 기뻐했지요. 논에서는 메뚜기 잡는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직접 잡아보는 재미도 느꼈지요. 제가 벼이삭을 주워 아이들한테 주었지요. 무엇이라 말할까 궁금했는데 “벼이삭이다” 하는 말에 깜짝 놀랐지요.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험학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참교육이다 생각됐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은 ‘콩세알’이라는 곳인데 ‘세 개 심고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벌레가 먹고 싹이 트고 자라 한 개는 사람이 먹는다’는 나눔의 의미를 갖은 예쁜 이름이지요.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 간수를 넣고 끓인 후 거른 다음 누른다. 순두부-연두부-모두부로 차례대로 입맛에 맞는 두부를 맛보았습니다. 두부 만드는 체험(맷돌)은 아이들이 커서 두부를 먹을 때도 이 과정이 생각날 것이다. 저 역시 어릴 때 엄마가 두부를 만들어 주시던 그 과정을 보고 자라서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순두부와 모두부가 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학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이 ‘도래미島徳美’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팜스테이 농촌체험 휴양 마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곳입니다. 경관 및 서비스 부문 1등급, 체험 부문 1등급, 숙박 부문 1등급, 음식 부문 1등급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되어 별이 다섯 개를 받은 곳으로,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봄 감자 캐기, 야생화 관찰, 버들피리 만들기, 물놀이(미꾸라지 잡기), 즉석 튀김으로 먹어보기, 오이 따기, 고구마 캐기, 밤 줍기, 배 따기, 김매기입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은 풀장에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동심을 느끼게 하는 좋은 체험으로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다 잡았습니다. 겨울에는 썰매 타기 떡메치기 고구마 떡 만들기 쑥개떡 만들기, 천연염색 물들이기, 순무김치 만들기 등입니다. 또한, 순무에 관한 유래를 들을 때는 아주 재미난 동화책을 읽어 주는 시간처럼 모두가 조용히 경청하며 들었지요. 실제로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체험학습장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체험학습을 한 아이들은 야외에서 체험한 학습이 실내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 간 유대관계, 친구들과의 협동심, 배려심 등을 배우고 느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에게 이러한 체험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농업에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와서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재목이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수업이 되도록 우리 어른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개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체험활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와 희망을 불어넣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야외 학습으로 마음이 들떠 있기에 행동이 커지므로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나지 않게 안전에 안전을 주의시켜 신경을 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체험학습장은 세 곳 모두 다 특색 있는 장소로 정말 좋았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부석사 기행

임선철

첫째 날, 안개비가 흘뿌리는 날씨, 버스 두 대로 출발한 탐방의 서막은 원장님의 여행지 배경설명으로 열린다.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역사적인 미리 듣기로 당대 인물들 그리고 조선의 정략과 성리학을 어떤 방향으로 보아야 할 학문인지 도대체 시작부터 나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만 하신다. 관점의 당위성 평가는 알아서 내가 판단해야겠고 사료나 문헌을 찾는 그런 거 접어두고 편하게 현지 문화관광 해설사 위주로 그냥 내 상식으로 기록하듯 하련다.

하필 여정 출발시작이 출근시간이라 다소 지체는 되지만 유하게 마음먹자.

옹진의 문화와 역사가 미래 어느 후손이 화려하게 밝혀주고 오늘처럼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주듯 한 걸음씩 먼 훗날 두텁게 고색이 깃들고 깊어진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족하다. 과연 어떻게 남겨야 할지 염치없는 생각에 잠겨본다.

봄 가뭄이 해소되면서 푸름이 짙어지는 남행길 부석사로 향한다. 소수서원으로 가는 길에 봄 내음이 계절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행복이다. 동행하는 모든 회원님들과 무탈을 기원하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곳 부석사의 찬연을 기대하면서 중간 기착지 여주휴게소로 고고싱이다.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시간 이 길에서 잠시 추억으로 더듬어 그때를 망상이라도 해볼까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본다.

세파에 잊고 묻어 두었던 좋은 시절 지나온 시간 되돌아볼 여유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새삼 오늘이 궁상인데 고맙고 행복하다. 즐거움의 지표가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새벽에 집을 나서느라 조반 거르고 이제야 버스에서 과자로 허기진 빈속을 달랜다.

이 또한 부석사로 가는 약발인가 맛있구나!

평소 같으면 눈꺼풀이 꽈나 무거워 단잠을 청할 시간에 새삼 촌놈이 차창에 비친 풍광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제 마신 술이 덜 깨고 피곤하지만 시선을 즐기는 것은 무언가 끌리는 기운에 필이 박혔나 머지않아 그 시간이 되면 알겠지만 기대는 항상 크고 상상 이상이다.

졸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흐린 날 빛소리 듣고 달리는 여행이 매력 있다. 출발 며칠 전에 날씨 걱정을 왜 했지? 혹 적삼에 낡은 신발만 아니면 되는 것을 괜한 길채비 고민이 모두 부질없는 일인데 그저 일상의 연장이다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한 나에게 오늘이 위로의 선물이다.

중간에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 “어디세요?” 하기에 한껏 목소리에 힘을 주고 나서 “지금 문화탐방 간다.” 이게 뭐라고 후배한테 자랑 질이다. 우습다 정말.

줄줄이 밀리고 꽉 막힌 고속도로 오늘은 용서해 준다. 치열하고 각박했던 어제에 비하면 관대해진 마음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생각뿐이라. 감정의 느낌을 만져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함이 다행이다. 휴게소 도착 전 느린 차량 행렬에 노곤함이 몰려온다.

함께 동행하는 회원님들의 분위기를 감지하여 뒷 좌석에서 손뼉을 치고 깔깔 웃음이 나온다. 좋은 징조다. 오늘 대박이네. 이대로 주~욱 신나게 달려라. 앞으로 시간이 더할수록 멍석 깔아놓고 판 벌려놔도 힘 빠지면 못한다. 웃음에 지쳐 배꼽이 분실판도 책임져라 할 사람 없다. 즐거움에 취하고 만사를 내려놓는 웃음이 편하다. 비가 추적하게 내린다. 제발 영주 쪽 부석사는 활짝 개어 상쾌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본다.

청춘은 내 가슴에 늘 존재하지만 이유는 웬지 모르지만 절제로 방치했다. 제한적 상황 아니면 천태만상 표현이 제각각이지만 죽이 맞는 친구나 만나야 타이밍 터지게 망가지는 것도 이제는 언제였는지 잊힌 지 오래됐다.

빗길 고속도로를 얼마간 달려왔나 차창에 김이 서린다. 열기가 창을 가리고 고민이 스멀댄다. 글 솜씨 없는 놈이 너무 떠벌린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기행문을 쓴다 도와 달라 해놓고 나니 잠이 짹! 달아나고 이젠 내가 웃기는 놈 아니기만 바란다.

뭔 짓을 해 놓은 거 도대체. 예라~ 이미 저질러버린 것 어찌하랴. 썼다 지우기 여러 차례 반복 무렵 휴게소를 출발하면서 원장님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으신다.

“계영배”

원장님이 ‘상도’라는 최인호 원작 소설 독후 설파를 하십니다. 나도 오래전 읽은 기억이 난다. 이참에 차분히 잠시 호흡을 조정하고 아쉬움을 삶의 지혜로 살펴보는 평범한 인간사로 또 한 번 만족의 끝이 없다는 아무리 술을 부어도 칠 흡만 채워지는 술잔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항상 잊고 살기에 때론 터무니없는 용기를 내는 우를 범하니 똑똑한 것이 아니고 미련한지. 그래도 계속해서 저지른다. 아마도 원장님은 세계 최고의 발명품 책의 위대한 명성을 익히 알고 계시는 듯하다.

책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가까이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물건이기에

소중히 물려줄 것 중 하나가 바로 책이다. 양서보급이란 것을 새삼 강조하시나 보다.

영주 도착하기 전 비구름이 산자락을 휘감고 걸쳐있는 몽환의 자태로 한동안 시선을 뗄 수가 없는 전경, 우리네 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비는 잣아들어 다행히 오후는 희망을 갖고 맛있는 점심을 기다려 본다. 터널 통과 중간에 안전 경고 신호가 '정신 차려!' 한다. 마치 무섭게 짖는 동물의 괴성처럼 들린다. 결국 과속 말고 규정 속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란히 줄 맞춰 심긴 사과나무, 이 또한 익숙한 여느 시골 농촌모습과 닮아 정겹다.

'오후라 계영배' 아무래도 나는 형광등인가 보다. 답이 보인다. 적당히 쓰자 내가 사학자도 아니고 작가 또한 더더욱 아니다. 서툴지만 사실을 감정 가는 대로 문화재 자료나 문헌을 찾아서 쓰고 싶지는 않고 오직 현지 문화관광 해설사의 열정과 내 아는 만큼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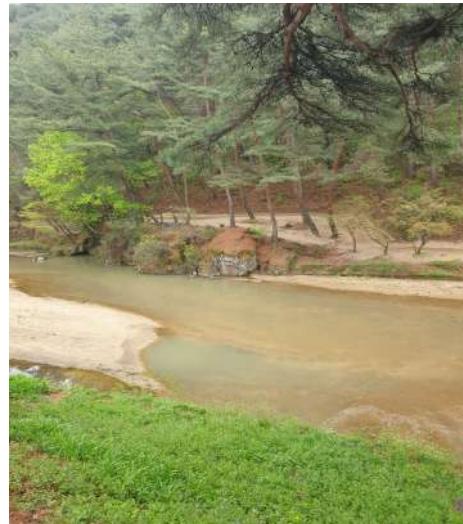
소수서원 입구에서 서성이면서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이라 서러움 아닌 우대라는 묘한 기분이다. 해설사가 우리 응진군이 많이 궁금했는지 미리 찾아보기를 했다니 서운치 않다. 관심이 중요하지. 귀를 세우니 소수서원의 가치는 이렇다.

교육도 재향 기능과 휴식 기능을 고려를 해서 선조들이 지혜롭게 공간을 이용하고자 축조했다. 중간에는 철폐라는 아픔도 겪는 아이러니도 전해진다. 큰 절터였던 오래된 당간지주는 보물 60호. 죽계천의 말없는 과거의 처참했던 기록들, 피로 물든 아픔으로 남겨진 고을, 양민이 학살당하고 온통 피 개울로 얼룩진 슬픈 역사위에 후손들이 사당을 지었다. 위로와 치유로 보내온 억겁의 애환을 겪은 영주에 퇴계 이황 선생이 바닥을 친 학문을 이어 주기

위해 당시 무너진 학문을 다시 세운다는 뜻을 가진 명종 임금이 직접 썼다는 현판 '소수서원紹修書院', 소수서원 내 은행나무 두 그루가 오백 년을 지켜 주고 있구나!

원장님 제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격물 치지 성의 정심格物 致知 誠意 正心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修身製家 治國 平天下' 대학 8조목에 나오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니 난감합니다.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한 성인군자가 있었나?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생전에 받지 못한 영의정에 제수되는 성리학 기초를 둔 정몽주도 선택



죽계천

받지 못한 좌절과 고난의 학문을 말하는 것은 솔직히 일랑하고 알파한 내 지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머리 아프다. 어휴~ 요런 어려운 밀씀 하시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구요. 난 이제 더 이상은 밀천 까이고 멀미 나요.

죽계천 넘어 큰 바위에 백운동白雲洞 경(敬:공경할) - 교훈은 풍기군 주세봉 군수가 새겨놓은 경염정 앞에 서니 그분의 혜안이 저절로 숙연해진다. 9개 서원중에 전국에 5곳만이 현존하는 '성생단' 조금은 생소하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 이게 웬일인가? 소녀가수 다연이를 보다니! 오늘 운수가 좋은 게 확실하다. 분위기 살짝 반전하고 탐방 길에 연예인과 한 컷.

조선 서원중 교실과 사당이 나란히 건조한 유일한 건물 배치란다. 또다시 해설사의 설이 시작된다.

한자의 물려날 퇴退라는 머리말로 붙인 '툇마루', 하교 시 스승님께 절하는 예를 갖추는 행동에 뒤로 물려나 발뒤꿈치가 멈추는 턱 그 자리가 바로 '툇마루'란다. 그런 의미가 담긴 깨알지식 하나 득했고 여러 가지 얻어가는 소수서원의 배움이 쏠쏠했다. 비어있던 깅통을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니 아주 뿌듯하다.

'문성공묘文成公廟', 나라의 근간 유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의 자취에 무언가 자부심에 묻어나는 해설. 열변하는 당당함에 멋들어진 명설 아닌가! 향교와 서원의 차이를 달변 한다. 교육시간과 과정을 들어보면 그 옛날에도 지금보다 개방적인 교육시스템이 참으로 대단하다.

기숙사의 구분 또한 재미나다. 저학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는 즐겁게 놀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지락제知樂製'라 한다.

해설사 양반 자꾸만 "즈락제"라 하네. 하여 한마디 물었죠. "즐거울 '즈'자요?" 웃자고 던진 말이다.

상급 진학별로 일신제. 학구제를 거쳐 최고과정 기숙사 '직방제直方製' 옳고 바르게 책임을 부여하는 기숙사란다. 참교육에 관해서는 아무튼 대단하다.

다음 발길을 잡는 입담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유래다. 해학적 청다리에 대한 설을 푼다. 한때 짚은 선비들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다리 밑에 놓아두면 주워다 키웠다는 어린 시절 누구나 몇 번쯤 듣던 말인데 개구쟁이 말썽꾸러기들의 태생 불명 야단 듣는 꾸지람 아닌가. "다리 밑에서 주어온 놈." 다행인 것은 머리 좋은 선비의 자식이라 은근히 서로 주어가려 기웃거렸다네. 꽤나 인기가 있었다 하니 웃지 못할 사연이다.

소수서원 탐방길에 배우고 깨우친 덕으로 인격이 상승했다는 조 선배님 변론에

유쾌한 동행. 자료관의 제일 멋진 흥상 인물 주세붕에 한 표 던진다. 호탕하게 생긴 얼굴을 보니 사내다움이 풍긴다. 이를 수 없는 공상으로 은근슬쩍 갖다 붙여본다.

‘형님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한잔 하실까요? 혼자만 잘 나가지 말고 세상사 함께 논해봅시다.’ 코미디 같은 공상이다. 기분은 이럴 때 막걸리 한잔 걸치고 둘러보고파다.

시간이 허락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채 부석사로 향한다. 그리고 최초 인삼 경작 지답게 널려 있는 게 삼포다. 역시 주세붕의 역작 아니던가! 산삼의 씨앗을 인삼으로 재배 보급한 장본인이다. 못하는 게 없는 주세붕 이 양반 매력에 정신이 오백 년 나갔으니 갈증이 나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적시니 소인배 세상 부럽지 않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 나지막한 계단 길을 올라 다다른 매표소. 샛문을 지나 발길을 재촉해본다.

이제 머지않아 초파일, 연등이 은행나무 중등을 타고 늘어섰다. 태백산 부석사 현문 힐끗 뒤를 돌아보는 동행자와 거리를 좁힌다. 물오른 느티나무는 일행을 안내하듯 어느새 천왕문 앞에 서면 우거진 앞 숲이 힘들면 쉬어가라 한다. 회돌림 길은 노약자를 위한 배려에 고맙고 부석사 삼층석탑을 보면서 어느 여행자의 정성인지 석탑 위에 얹혀있는 동전은 세월이 오래 지난 것 같다. 빌리자면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끼여 있는 산세가 봉황자락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단다. 크게 보면 태백산 부석사요, 작게 보면 봉황산 부석사. 양 백지간 십승지 중 일승지라 명당 중 명당.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만나는 접경 지역 전략 요충지란다.

“해설사님, 그 당시 문무대왕이 덕적도에 오셨거든요 백제를 치기 위해 당나라 소정방을 맞이하러 나·당 연합군이 합류한 덕적도를.” 이참에 덕적도를 알리자 한편 미안스럽다 우리의 뜻인데 부끄럽다.

보존 문화재의 유무만이 사실적 가치로 평가 받는데 흔적이 없으니 허탈하지만 배우면서 발굴해 보자.

안양루 통해 무량수전 벽전에 부처님 다섯 분. 마음이 맑아야 보인다고, 봄에는 잘 안 보인다네. 그런데 다행이다. 함께 온 우리 모두 보았다. 보이게 이끌어 주면서 신비로움을 어떻게라도 포장하려는 노력이 은근히 프로답다. 무량수전과 겹쳐



부석사 입구

한 건물처럼 보이는 위치에서 나름 불교의 상례가 잘못 전달된 세속의 티를 여기서 듣고 그동안의 무지를 깨닫는다.

아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르면 약이지 이제 와서 ‘오토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미 정설이다. 해석을 뒤집자 방법 없지.

입으로 내는 목탁소리도 엄숙함을 아수라판이라는 불교용어로 이어가는 1367년 된 고찰의 해설사 저력인가. 안양의 원래의 뜻은 극락이란다. 들을수록 배울수록 끝이 없구나!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 역사교과서 펼치면 사적 명성과 가치는 최고다. 이제야 부석의 이유도 무량수전 좌측에 뜬 돌이 있다. 저것을 어떻게 떴냐고 묻고 싶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세에 놀린다.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축물도 아쉬움이 있단다. 단청을 함부로 채색을 못하니 끝내 시원한 해결법은 아직 없단다. 다만 흰개미로부터 방제는 철저히 대비해서 안심이다.

팔작지붕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목재 기둥 높이가 다르다. 날아 갈듯 한 지붕이 끝만 살아나는 기술과 안 콜립으로 몰린 기둥의 역학은 감탄이다. 웅장함도 맞배지붕과 차이가 분명하다. 무량수전 배흘림에 매료되고 좌편에 부석이라는 바위에 놀랍고 공민왕이 썼다는 현판 ‘무량수전無量壽殿’ 불교의 따름에는 목숨에 한계가 없다 해서 무량수전이라. 동시대를 풍미했던 역사의 두 인물, 신라 30대 문무왕과 화엄종 시조 의상대사, 삼국을 통일한 업적은 최대의 치적이다. 부석사 역시



부석사



부석사 삼층석탑



무량수전

문무왕의 명을 받고 의상대사가 세운 사찰이다 절묘하게 신라의 융성을 이룩한 인물이다. 의상 십철이라 부르는 고승선사를 배출하였고 수만은 사찰과 법문을 저술한 것부터 불교를 대표하는 원효대사와 라이벌이고 협력자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은 이 두 분의 발자취가 남겨져있다. 심오한 깨달음 설파하고 정치와 종교의 통솔 통찰을 소통시킨

역사의 무량수전 그래서 하는 말인가? 내 상식을 전부 동원해도 한계에 봉착했다. 파고 들어갈수록 웬지 채우지 못한 미련을 남기고 숙소로 향한다.

저녁 식사 후 내심 기대하던 파티가 무산되니 의기소침하다. 108호에 술꾼들이 모여든다. 아니 내가 먼저 불렀다. 실명은 거론치 않고 이 정도면 짐작할 것이고 명예훼손도 피할 것 같아 나름 붙여본다.

장봉 전 갑장, 연평 이 산림왕, 이작 정 이사님, 덕적 최 주류님, 덕적 진 풍물 님, 백령 김 이사님, 백령 박 감사님. 문갑 이장 선생님, 어느새 뷔페 안주를 테이블에 펼치고 둘러앉자 108호 방장 문갑 이장 선생님은 사과를 흔쾌히 내주신다.

계영배가 아닌 객실 물 컵으로 술이 몇 배 돌고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멤버가 중요하지 수정방은 필요 없고 빈병이 늘어가고 마무리 즈음에 어허! 이작 정 이사님께서 분위기가 아쉬웠나 27년 산 고급양주를 썩 꺼낸다. 정작 본인은 비주류파인데 멋진 이다. 요놈 마시면 꼬부라진 혀가 다시 펴지는데 이미 병마개 개봉 어느 누가 손사래 치랴! 화려한 밤은 아니라도 사람이 좋아 즐겁다. 그 바람에 맨발 사건이 시작되고 비즈니스 마치고 돌아간 108호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다. ‘우리방 4명인데 어찌 신발이 일곱 족례지?’ 취해도 맨발로 자기 방 무사히 찾아간다. 옆방 조선배님이 궁금해서 노크를 해본다. 역시 모 대학 교수님들은 그림 감상하고 계시네요. 수업료 정산하시느라 바쁘고, 유 총장님 내일 장학금 얼마나 주시려나 기대해요. 굿나잇~

둘째 날, 아침부터 벨을 연속으로 눌러댄다. 신발 찾으러 몰려오고 한바탕 소동이 지난 다음 숙소 앞 저수지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어서 오라 보일 듯 말듯하게 유혹을 한다. 오늘은 간편한 바지를 입고 나가 보자! 어제 마신 술 때문에 따끈

한 국물이 생각난다.

아침식사 전 룸메이트 넷이서 숙소 근처 단산저수지로 향하니 공기가 무척 상쾌하다 특별한 혜택이다. 소중한 것을 독점하는 기분! 평坦하게 가꾸어진 길을 따라 중간지점에서 잠시 인간사 담소를 나누고 숙소 앞뜰에서 밤새 무고함에 굿모닝.

어제보다 하늘이 화창하다. 아침식사 후에 단체사진 한 컷 찍고 이후 일정이 무 섬마을이란다. 인삼 막걸리가 기다리는 그곳에 마음이 솔깃하니 좋다. 양상하게 잘 린 나뭇가지도 생명이 움트는 봄인데 가보자 그곳으로.

건너편 마을 평온해 보이는 길을 돌아서 농사준비로 한참인 논밭, 얼마간 한적한 외길로 접어든다. 물돌이 마을 내성천이라 한다. 큰 벼드나무가 마을 입구에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 옛날에는 백사장이 어마어마했단다. 홍수범람 때문에 마을은 제방을 쌓아 강둑으로 보호, 각종 개발과 댐으로 인해 그렇게 많던 강모래가 지금은 겨우 바닥 드러나지 않을 정도다. 누군가 웃으갯소리로 해우당을 새우장이라 해서 좌중이 한바탕 폭소했다. 선비촌 해우당의 복사물이 이곳에도 짹통으로 있다.

외나무다리 건너편 벤치에 앉아 내성천에 마음을 실어본다. 유유자적이라 이런 기분이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도 아무렇지 않다. 속세를 떠나 흘러가겠지. 미련을 남기지 말고 흘려보내자! 호사다 섬놈이 해변만 걸어봤지 강모래 밟는 외도를 했다.

내성천 외나무다리 위에서 ‘나 데리고 잘 사는 법’ 글 쓴 임 선생님은 물속에 송어를 찾네. 그 송어 오늘 재수 좋았다. 초장까지 준비했다네요. 그놈 오늘이 제삿날인데…….

그늘 천막에 잠시 걸터앉아 동행 길에 문화소통을 논해보면서 문화 관심사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빈다.

끝으로 오백 년 만죽재 고택을 둘러보고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 한다.

기쁨 왕창 누리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들과 동행을 했기에 행복했어요. 엊저녁 자칭 우리끼리 밴드마스터 박 사장은 광란의 파티를 끝내 성사 못해 아쉬워 했고, 특히 고향의 어르신과 대선배님 두 분께 건강이 허락하실 때까지 문화탐방길 모시겠습니다. 가을날 덕적군도를 기약하면서 안녕히 귀가하소서.

영주에서 2023.4.19.



백령도 기행

최준호

1. 꿈이 이루어지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백령도는 오랫동안 가고자 했던 섬이다. 절경이 뛰어난 환상적인 섬이어서가 아니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여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백령도 바로 앞 육지가 내가 태어난 장연이다. 백령도에서 바라보이는 북한은 장연 장산곶이다. 나는 고향 산천이 바라보이는 백령도를 꿈꾸어 왔다.

몇 년 전에도 백령도를 가려다 배표를 사지 못해 가지 못한 경험도 있다. 이번에 친구로부터 백령도 여행의 제의를 받고 선뜻 응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2. 백령도 소개

백령도는 지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으로 되어 있다. 면적은 50.98㎢이고, 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4,342명이며, 총 가구 수는 1,605이고 농가가 45%, 어가 8%, 기타 47%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4개소 있다.

1. 사곶 천연비행장 - 천연기념물 391호
2. 콩돌해안 - 천연기념물 392호
3. 감람암포획 현무암 - 천연기념물 393호
4. 두무진 기암괴석 - 명승 8호

3. 거듭되는 대기

백령도행 쾌속정이 아침 7시 40분에 뜬단다. 친구는 자기 집으로 6시까지 오란다.

집사람은 새벽 2시 반에 깨었고, 나는 3시 반에 깼다. 새벽 4시에 출발하여 6시 반경에 인천 친구 집에 도착하였다. 친구와 연안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아침 식사로 해장국을 먹고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다.

비는 오지 않으나 날씨가 흐리고 바람도 좀 분다. 배 시간이 다 되어 방송으로 8시 30분 대기라 한다. 안개 때문에 출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합실에서 밖으로 나와 보니 안개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았다.

8시 30분이 되니 이번에는 9시 30분 대기란다. 이렇게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대기에 대기가 계속되었다. 언제 배가 뜰지 모르니 그만 포기하려 하였다.

친구는 집으로 전화하여 차를 불렀다.

차가 거의 다 왔을 때 방송에서 1시 30분에 배가 뜬다면 승선할 준비를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환성이 터졌다. 대기에 대기를 거듭하며 기다리다 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

대기, 이렇게 대기에 지쳐보기는 처음이다. 어쩌면 인생은 대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란 불확실성이다. 대기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에 속으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안갯속을 달리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남기고 배에 올랐다. 배 안은 넓고 자리도 많이 비어 있었다.

날씨 관계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미룬 사람도 있으리라.

쾌속정은 서서히 움직이며 부두를 떠난다. 안개로 시야가 가려져 주위 섬들도 부두도 보이지 않는다. 배가 뜨기에 안개가 거의 걷힌 줄 알았다.

배는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한다.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파도는 없었으나 10m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배는 잘도 달린다.

배를 타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망망대해를 달릴 때는 상쾌한 기분에 마음도 열림을 느낀다. 시야를 가린 안갯속을 달리니 좀 답답한 기분이 든다. 전에는 통통배로 1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쾌속정으로 4시간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배를 타고 고향 쪽으로 가다 보니, 6·25 때 작은 돛단배를 타고 인천으로 피난 오던 때가 생각난다. 돛단배가 바람을 잘 맞아 비스듬히 기울어 쏜살같이 달렸다.

사람들은 배멀미로 고생들을 많이 했으나 어린 나는 배멀미 없이 신났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제 나는 역으로 거슬려 오르고 있다. 통일이 되어 간다면 그때보다

도 더 신나게 가련만…….

배가 소청도와 대청도를 경유하여 백령도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되었다. 안개 때문인가 4시간 30분이 걸렸다.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안착에 고마움을 느꼈다.

5. 해변 천연비행장과 콩돌 해변

1박 2일 여정으로 와서 내일 12시 10분 배로 가야 한다. 배가 연착하여 관광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배에서 내리자 숙소로 가기 전에 두어 군데 둘러보기로 했다.

선착장에서 가까운 사곶 해수욕장 비행기 활주로 해변을 먼저 보기로 했다. 물이 빠지지 않아 시원하게 뚫린 활주로를 볼 수 없었다. 활주로 길이는 3km이고, 너비는 약 100m라 한다. 아주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아스팔트처럼 단단하다. 그리고 해변이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단다. 세계적으로 천연백사장 활주로는 백령도를 포함해 두 곳밖에 없다고 한다. 한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음이 유감이다. 실제로 비행기의 이착륙 장면을 본다면 더욱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백사장은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해변 천연활주로를 차로 달려 보니 감각이 좋았다.

그리고 콩돌 해변으로 갔다. 콩돌 해변이란 콩알만 한 자잘한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이다. 자갈 해변이야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여기처럼 콩알만 한 자갈로 된 해변은 아직 보지 못했다. 물론 밤틀만 한 돌도 감자만 한 돌들도 있으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돌들은 역시 콩돌만 한 것들이다. 집어 보니 반들반들하고 귀엽다. 이 해변은 약 1.5km까지 펼쳐져 있다. 처음부터 돌들이 등글고 매끈하지는 않았으리라. 오랜 세월 파도에 서로 부딪치면서 모난 부분들이 부서지고 깎이어 지금처럼 되었으리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결혼도 서로 모나고 거친 돌과 같은 두 남녀가 만나 오래 살면서 깎기고 달아서 원만하게 되어 나중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자신의 모서리가 깎이는 아픔을 참지 못해 이 혼들을 하는가 보다.

콩돌 해변은 경사가 가파르고 수심이 깊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해변에서 인생 삶의 소중한 교훈을 얻어가야 하겠다. 집사람은 공기 있다고 돌을 골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백령도 친지의 저녁 식사 초대로 회를 대접받았다.

6. 효녀 심청

오늘(3일) 12시 30분 배로 가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전세 내어 관광길에 나섰다. 백령도에는 택시 6대가 운행한다고 한다.

먼저 심청의 동상이 있다는 심청각으로 갔다. 심청각은 산 위에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북쪽에 장산곶이 보인다. 장산곶은 장연군에 속하고 장연은 내가 출생하여 어린 시절(6세까지)을 보낸 고향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장연에서 대농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 많은 땅을 두고 응진으로 와서 6·25 때까지 살아 응진은 제2의 고향이다.

백령도에서 장산곶이 17km라 한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 몸은 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봐야 하니 이 무슨 비극이란 말인가? 이 민족적 비극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던진 인당수를 굽어보며 잠시 효를 생각해 본다. 요즘 이 효가 얼마나 퇴색했는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뀐 것이 바로 우리의 효 사상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지 않는가? 심청의 동상의 치맛자락이 펄럭이며 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7. 두무진의 선대암

심청각을 뒤로하고 백령도의 백미白眉인 두무진頭武津의 산대암을 보기 위해 차를 서북쪽으로 돌렸다. 선대암은 명승 제8호로 지정돼 있는 절경이요 비경이다. 안개로 배가 뜨지 않아 배를 타고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 조망하였다. 과연 감탄을 금치 못할 빼어난 풍광이다. 사람들은 이 절승을 보기 위해서 그 면 뱃길을 고생하며 백령도를 찾는다.

바다에서 우뚝 솟아난 두 개의 형제 바위, 장군 바위 등은 너무도 그 위용이 당당하게 또 성스럽게 보인다. 황금색의 우뚝 솟은 든든하면서도 장한 바위들의 일군이 어떻게 여기에 놓이게 되었을까? 신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의 하나이리라.

이 기암괴석들이 저녁 황혼 빛에 물든다면 황금빛으로 친란하게 빛을 발해 장관을 이룰 것 같다. 지금은 안개를 배경으로 바라보니 그 모습이 더욱 신비스럽다.

사진작가들이 여기저기서 렌즈를 돌리고 셋다를 누른다. 누군들 이 장면을 담아 가지고 싶지 않으랴. 나는, '가슴과 머리에 이 장관을 영원히 간직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진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위에서 내려다보았으니 아래서 올려다보기 위해 가파른 절벽을 내려갔다. 철썩이는

푸른 바닷물 소리를 배경 음악으로 들으며 이곳저곳 위치를 바꿔가며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감상하였다.

왜 이곳을 선대암이라 했을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거룩하고 엄숙한 바위를 보면서 참선參禪하던 곳이어서 선대암禪臺巖이라 불렀나? 아니면 선녀仙女들이 노닐던 무대라 선대암仙臺巖이라 했나?

이 선대암에도 분명 어떤 전설이 있으면만 이를 듣지 못하니 아쉽다. 분명 심청과도 관련이 있는 곳일 것 같기도 하다.

선대암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둘러친 경계선을 넘어가니 집사람이 위험하다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아주머니가 “천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하고 한 마디 뱉는다.

그 아주머니는 좀 위험하다고 어찌 이 절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느냐고 비아냥거린다. 이 선대암을 관망한 것만으로도 백령도에 온 보람은 찾은 셈이다.

8. 큰 바위 얼굴

차로 해변도로를 끼고 가다 넓은 모래펄에 웬 탑이 있는 해변으로 왔다. 해변에는 철책이 쳐져 있어 백령도가 북한과 인접한 곳임을 일깨우고 있다. 이 탑은 해안을 순찰하다 지뢰를 밟아 순직한 장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라 한다. 잠시 숙연해진 우리는 저마다 묵념하고 이 민족의 비극을 생각해 보았다.

철책 너머의 푸른 물결은 남북의 경계가 없건만 이 땅에는 분단의 상흔이 여기저기 남아 있구나!

이 민족의 슬픔을 가슴에 앓고 비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높은 해안가 언덕에 차를 세웠다. 멀리 망망대해가 흐릿한 안개 속에 뿐옇게 보인다. 그리고 구멍 뚫린 큰 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기사는 저 바위를 창바위라고 한다. 창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부른단다.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고 한다. 아무리 보아도 창도, 사람의 얼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친구는 바위를 가리키며 저쪽이 이마이고, 그 밑으로 좀 튀어나온 것이 코이고, 그 아래로 입술과 턱이 보이지 않느냐고 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탄성을 지르며 ‘큰 바위 얼굴’이구나 했다.

나는 호오돈의 '큰 바위 얼굴'을 떠올리며 어네스트가 보며 자란 큰 바위 얼굴이 저와 같았으리라 생각했다. 여기에 있는 이 큰 바위 얼굴은 누워 있는 모습이라 얼굴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택시 기사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 창바위를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얼굴 형상으로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바위에 ‘큰 바위 얼굴’이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그 명명식을 가지자고

제의했다. 그러면 이곳도 새로운 광관 명소로 탈바꿈하여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빨간색의 T셔츠를 입은 해병대들을 이곳저곳에서 보았다. 한 무리의 해병대들이 달리기를 하는 씩씩한 모습도 보며 국방의 든든함에 안심하였다. 이들이 있어 이 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비포장도로를 내려와 등대가 있는 아늑한 해변으로 왔다. 여기는 주위가 기암괴석들로 둘러 싸여 있으나 두무진의 선대암에 비길 수는 없다. 자갈이 깔려 있고 바위들로 둘려 싸여 있어 쉬면서 놀기에 안성맞춤의 해안이다. 한여름 여기에서 피서를 하며 가족들이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9. 개신교 성지

백령도의 자연을 보았으니 백령도의 신앙도 보아야 한다. 백령도는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배로 우리나라에 오는 길목이 된다. 특히 개신교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백령도를 거쳐 왔기에 일찍이 개신교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 중화동에 있는 중화교회는 1898년 1월에 세워졌다고 한다.

개신교 최초의 교회는 인천에 있는 소래교회로 이 교회의 목사를 초빙하여 예배를 드렸고, 초대 당회장은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화동교회가 인천 소래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 한다. 기념관도 교회 옆에 세워 성지로 보존하고 있다. 중화동교회 신자들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고 일요일에는 전연 생업을 하지 않고 마을 주민 100%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 중화동 마을 주민 100%가 신자라고 한다. 마을 주민 100%가 한 교회 신자인 곳은 이 중화동교회밖에 없다고 한다. 중화동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회이다.

백령도에는 천주교회가 하나 있는데 개신교 교회는 무려 11개나 있다고 한다. 과연 백령도는 신앙의 섬이라 할 만하다.

10. 태풍 민들레

오전에 택시로 백령도 관광지를 둘러보고 점심으로 메밀냉면을 먹었다. 냉면발의 맛이 아주 좋았다. 진짜 옹진냉면 맛이다. 고향의 맛이다. 어렸을 때 옹진읍에서 먹던 냉면 맛이 상기되었다.

12시 30분 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부지런히 부두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며 뱃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별로 없으니

충분히 배가 뜰 것 같았다.

시간이 되자 태풍으로 배가 뜨지 못한다고 한다. 일기 예보를 보니 태풍 민들레가 북상 중이라 한다. 내일도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 한다.

다음날(일요일) 아침, 바람이 불며 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태풍으로 오늘도 배가 출항하지 못한다는 기별이 왔다.

섬에 오면 하루 이를 밭이 뚫이는 것은 보통이고 일주일 이상도 뚫이게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 알고 있다. 섬 여행도 많이 해 보았지만 이처럼 밭이 뚫이기는 처음이다. 오후에 태풍이 소멸되었다는 일기 예보를 들었다. 그렇지만 많은 비가 계속 온다는 것이다. 내일은 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일기가 불순할 때는 섬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11. 인상에 남는 미사

일요일 아침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어제 토요 특전 미사를 했지만 오늘도 미사를 하기로 했다. 성당은 꽤 넓은 데도 거의 빈틈없이 꽉 찼다.

신부님은 육지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사람은 제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육지에서는 날씨에 관계없이 가고 싶은 때 갈 수 있으나 섬에서는 제 뜻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 현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그리고 너무 육지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고 걱정하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신앙이 없고 종교심만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신앙이 있는 분은 걱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낸다고.

그렇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걱정에서 불안, 초조로 안달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믿는 이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느님께 맡기고 긍정적인 기도로 승화시킨다.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마음 편히 있기도 했다.

같은 배를 타고 오신 수녀님 다섯 분도 가지 못하고 함께 미사를 드렸다. 신부님은 수녀님들에게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란다. 수녀님 다섯 분은 나오셔서 심금을 울리는

성가를 부르고 나서 어린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써가며 귀엽게 불렀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다.

오늘 백령도 성당에서의 미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의 미사로 남을 것이다.

12. 즐거운 시간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에도 비는 계속 내린다. 무료하게 지내기가 무엇해 친구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친구는 별로 내키지 않은 눈치나 따라나섰다. 집사람도 노래라면 자신이 없어 여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다. 나도 친구도 집사람도 모두 음치(?)에 가깝다. 그러나 서로 부끄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지 않은가?

비가 와서 노래방이 만원이 아닐까 했더니 한 사람도 없다. 의외이다. 주인을 불러 영업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 한다고 하며 방을 안내한다. 기계 조작도 서툴러 주인에게 물어가며 노래를 불렀다.

집사람은 하도 노래에 자신이 없어 얼마 전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여 집에서 좀 연습을 해서 그나마 노래방까지 가게 된 것이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면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우리는 부를 줄 모르는 노래를 권하기도 사양도 하고 격려도 하며 1시간을 잘 보냈다.

밤에는 친구가 고스톱을 하잔다. 나도 집사람도 고스톱을 할 줄 모른다. 우리 형제들은 잡기에 무능하다. 막내 동생만 좀 하는 편이라 할까 그도 즐기는 편이 아니다. 친구는 가르쳐 주면서 몇 번 해보다 말았다.

고스톱이 뭐가 그렇게 좋아 밤새워 가며 할까? 잘 아는 변호사가 자기는 고스톱을 치지 않는단다. 그 이유는 고스톱을 치다 패를 잘못 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고스톱을 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고스톱을 하며 종종 큰소리들을 치고 혐한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꼭 좋은 놀이만은 아닌 것 같다.

친구는 사업상 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월요일) 배가 뜨기를 기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13. 고향 맛과 귀로

오늘은 배가 아침 7시 10분에 뜬다고 한다. 우리는 서둘렀다. 좀 있자 12시 40분 대기라 한다. 대기에 대기를 거듭하더라도 오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다. 11시경 백령도 분이 오셔서 고향 음식을 맛보러 가잔다.

짠지떡을 한다는 집으로 갔다. 처음 먹어 보는 황해도 음식이다. 이것은 떡이 아니라 왕만두다. 피를 메밀로 만들고 속을 짠지(김치)를 넣어 만든 만두다. 메밀 특유의 향기가 좋았다. 황해도 음식은 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두 개만 먹어도 한 끼 식사는 된다.

오랜만에 고향 땅에 와서 고향 음식과 투박한 고향 사투리를 들으니 정겹다. 아쉬움이 있다면 고향 육지를 밟아보지 못하고 바다 너머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천을 바라만 본 것이다.

언제나 통일이 되어 정든 고향 땅을 밟아 볼 수 있을까? 내 생전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를 보면 빨리 통일이 될 듯도 싶다. 그러나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통일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짠지 떡을 맛있게 먹고 부두로 나오니 배는 1시 30분 대기라 한다. 그렇지.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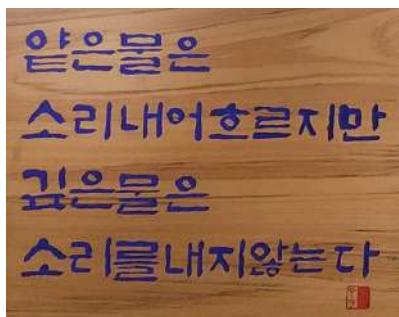
어떤 분은 금요일 즉 우리가 백령도에 들어오는 날 나가려다 배표를 구하지 못해 못 갔다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터인데 하며 걱정을 한다.

12시 50분경에 “뚜-” 하고 뱃고동이 울린다. 갑자기 사람들의 움직임이 부산해 진다. 배가 간다는 것이다. 드디어 배를 타니 이제 정말 가는 실감이 낸다. 배는 1시 40분에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전속력으로 힘차게 달린다. 바다에는 안개도 걷히고 파도도 없어 배는 푸른 물결을 가르며 거침없이 내달린다. 저 멀리 수평선도 보이고 망망대해를 질주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니 오후 6시였다.

1박 2일의 여정이 태풍으로 3박 4일이 되었으나 고향땅에 이를 더 묵으며 향수에 젖어 보았던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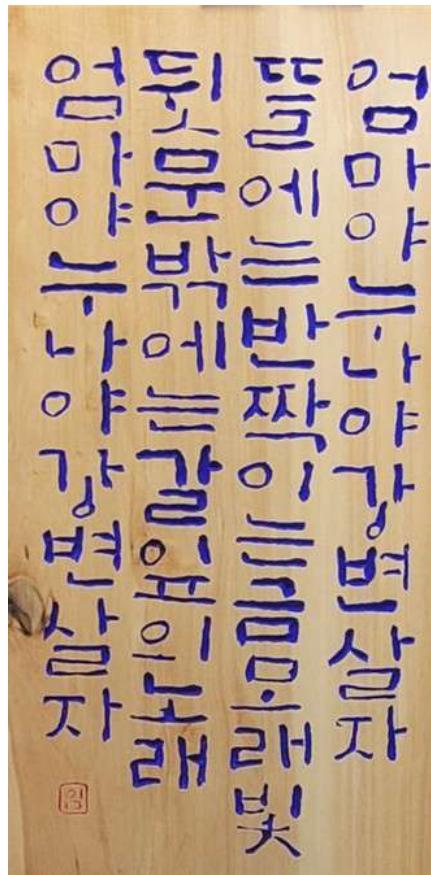
서각



김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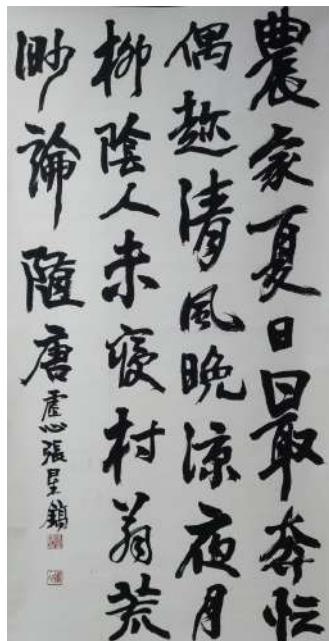
박춘수



조재식

서예

장성호



농가하일최분망 農家夏日最奔忙
 우진청풍추만량 偶趁清風追晚涼
 야월류음인미침 夜月柳陰人未寢
 촌옹황묘논수당 村翁荒渺論隨唐

청정, 장유소張裕釗의 무제無題

농가의 여름날이 가장 바쁜데
 우연히 맑은 바람을 쫓아 저녁 서늘함
 을 찾았네
 달빛에 버들 숲 어둡고 사람은 잠들지
 못하는데
 촌옹이 아득한 수당적 이야기 하네



맹하대원소객유 孟夏大源驛客遊
 청산영리수운류 青山影裏水雲流
 신선시연망진세 神仙詩宴忘塵世
 락일미지오락류 落日未知娛樂留

죽현竹軒 정문장鄭文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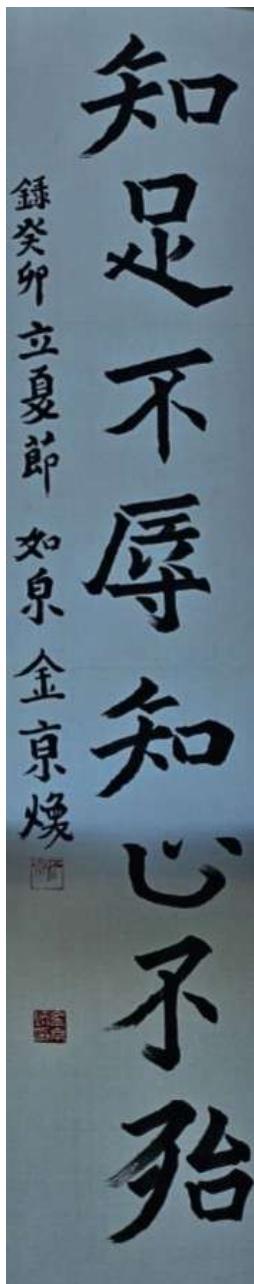
초여름 대원사 계곡 글벗들이 노니는데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물 구름이 흐르네
 신선 같은 시 놀이에 세상일 잊었는가
 해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구나

작품



서예&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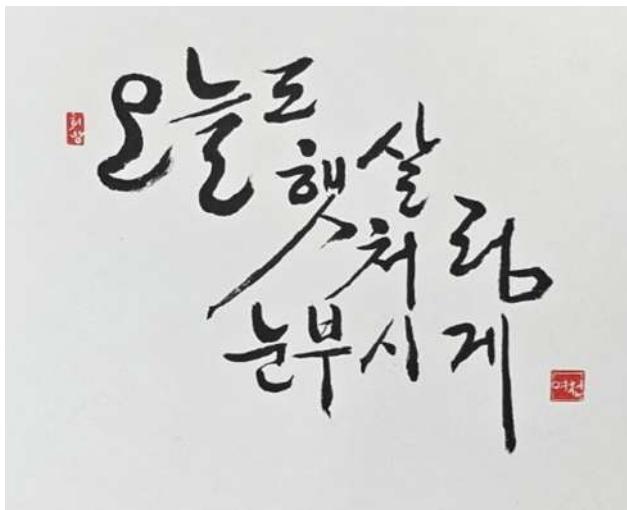
김경환



지족불욕 지지불태

知足不辱 知止不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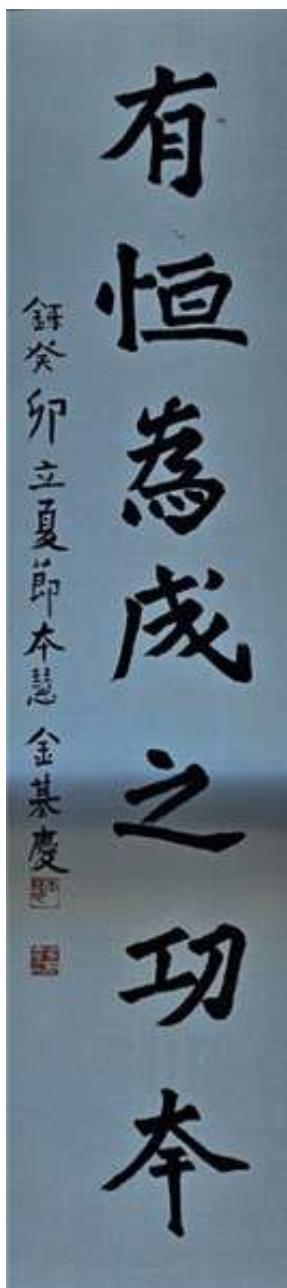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작품

서예&캘리그래피

김기경



유항위성공지본

有恒爲成功之本

꾸준한 노력은 성공의 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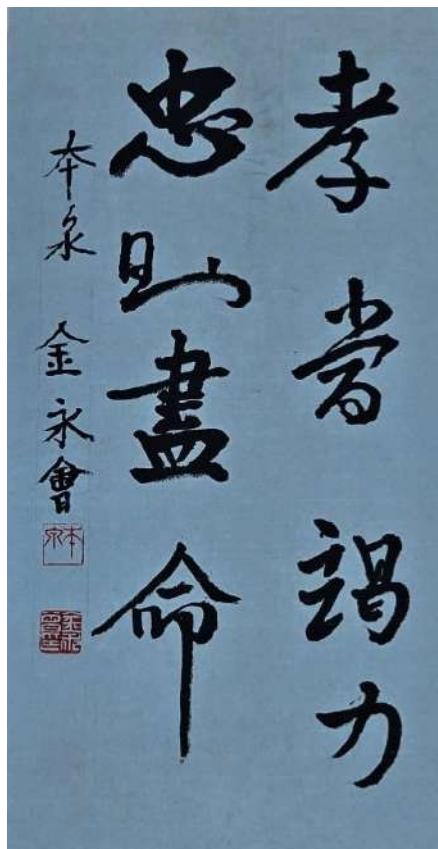


작품



서예&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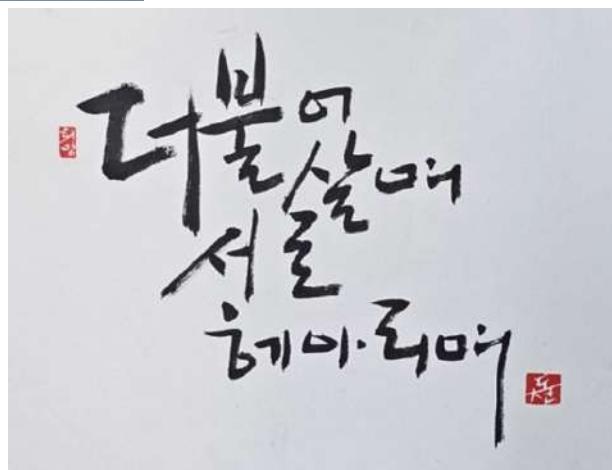
김영희



효당갈력 충칙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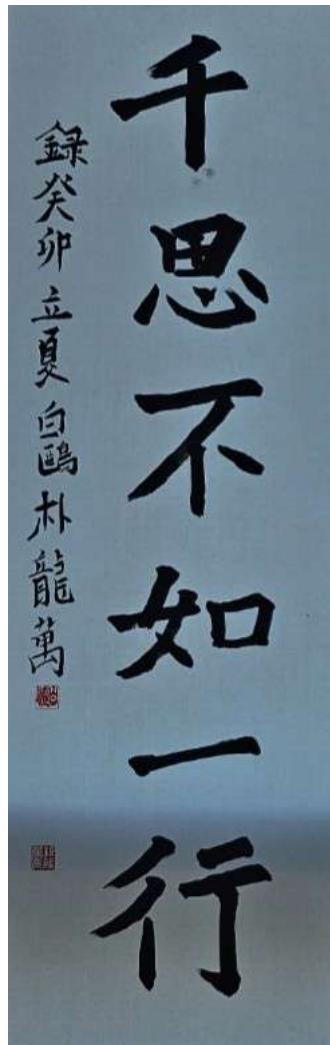
孝當竭力 忠則盡命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 해야 하고
충성에는 목숨도 다 바친다



서예&캘리그래피

박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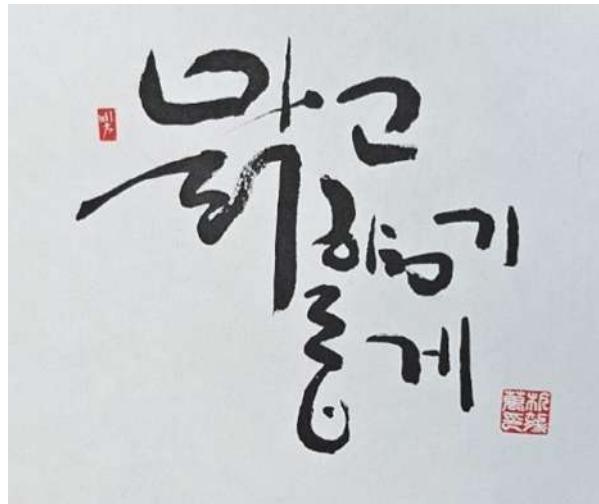


천사불여일행

千思不如一行

천 번 생각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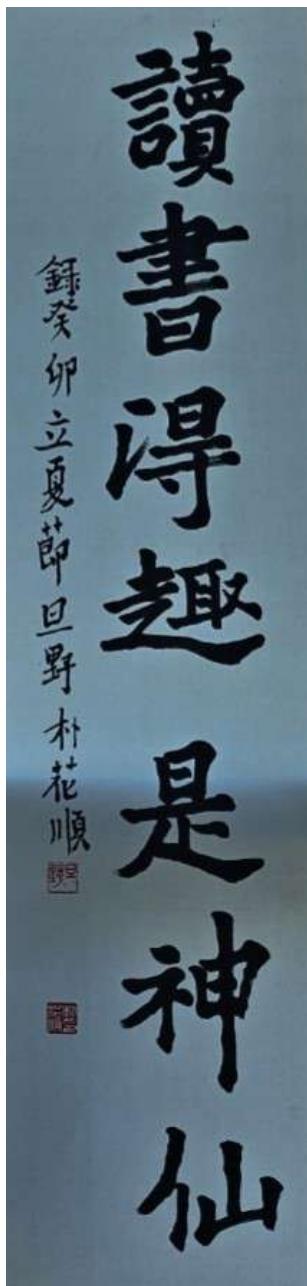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





서예&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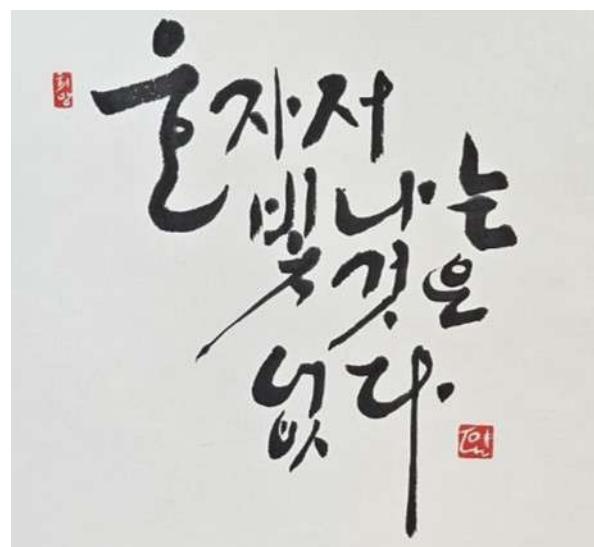
박화순



독서득취시신선

讀書得趣是神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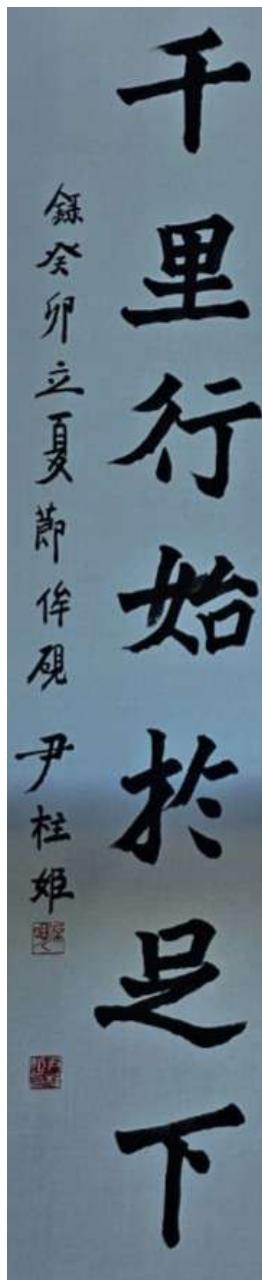
글을 읽어 취미를 얻으면
이것이 신선인 것이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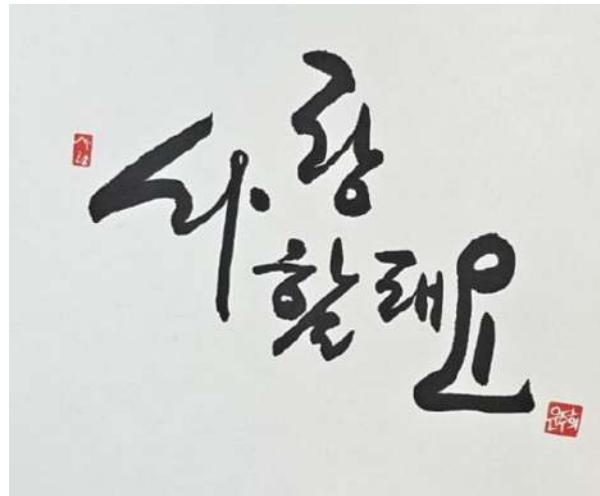
서예&캘리그래피

윤주희



천리행시어족하
千里行始於足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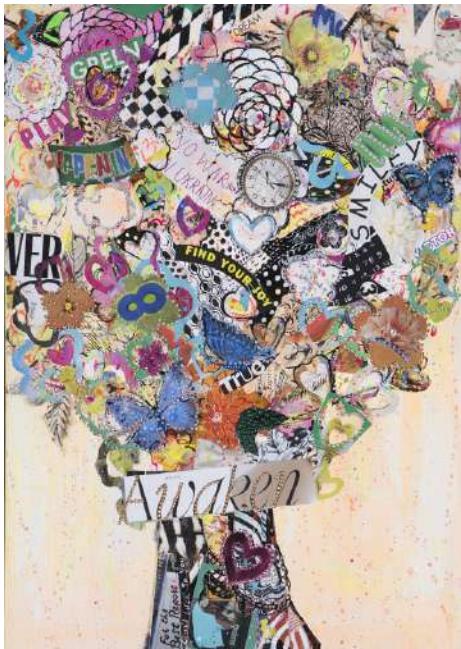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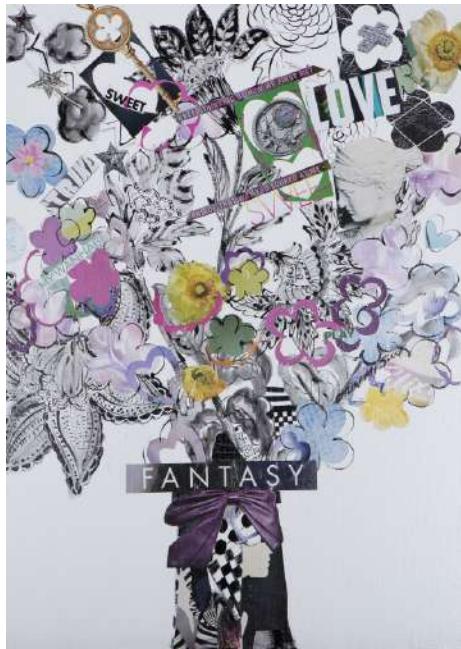


콜라주&페인팅

전미선



승리 'VIVA' 72.6x53.0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승리 'VIVA' 72.6x53.0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전미선 (CHUN MI SUN) 작가 작업 노트

승리 'VI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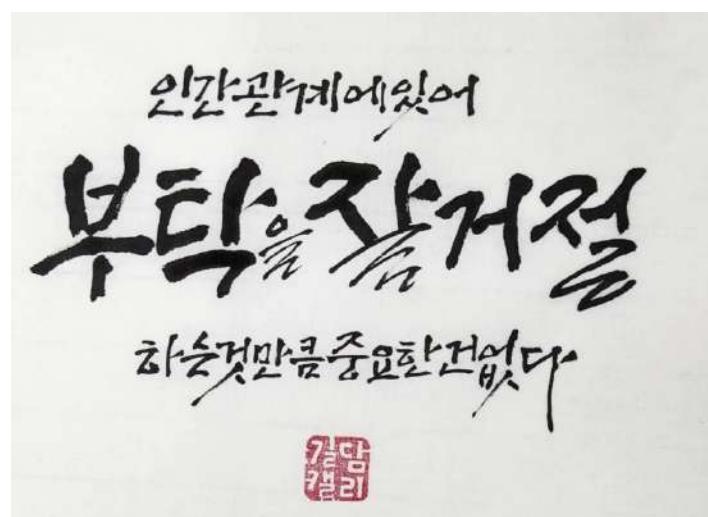
인간들은 타락한 실존으로 본분을 망각하고 죄와 욕심으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신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며 이치를 거슬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켜 각종질병들이 생겨나고 자연은 신음하고 탄식하다 결국 COVID-19를 출현시키고 말았다. 팬데믹을 겪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상생에 관해 좀 더 깊은 의식을 갖게 되었다.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해 우리들의 선한 의지와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지구를 지켜낼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사랑, 진실, 정의 그 앞에서 용기를 갖는다면 인류의 평화는 지속될 것이며 우리 각 존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진실 앞에 용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꽃다발을 전하고 싶다.

작품



캘리그래피

길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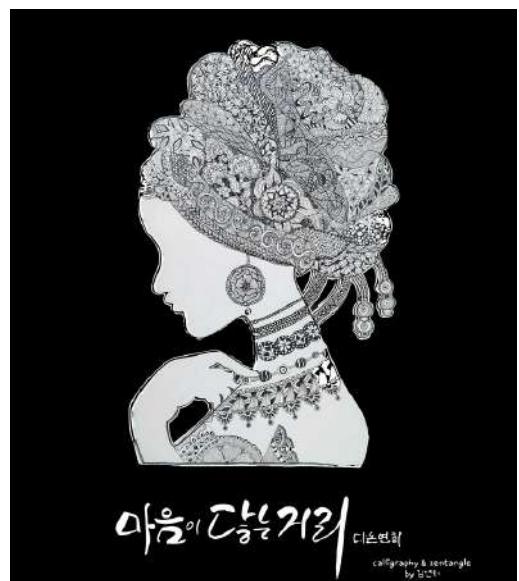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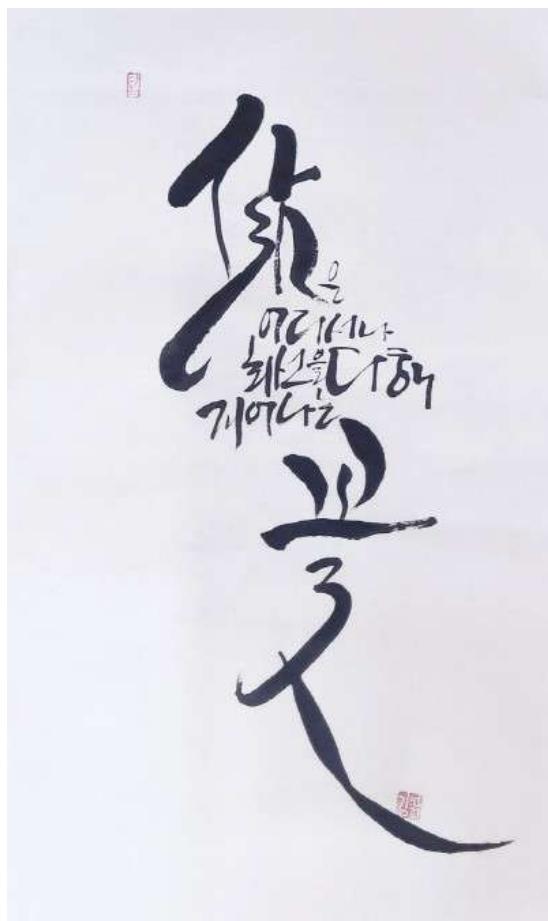


작품



캘리그래피

김연희



작품



캘리그래피

신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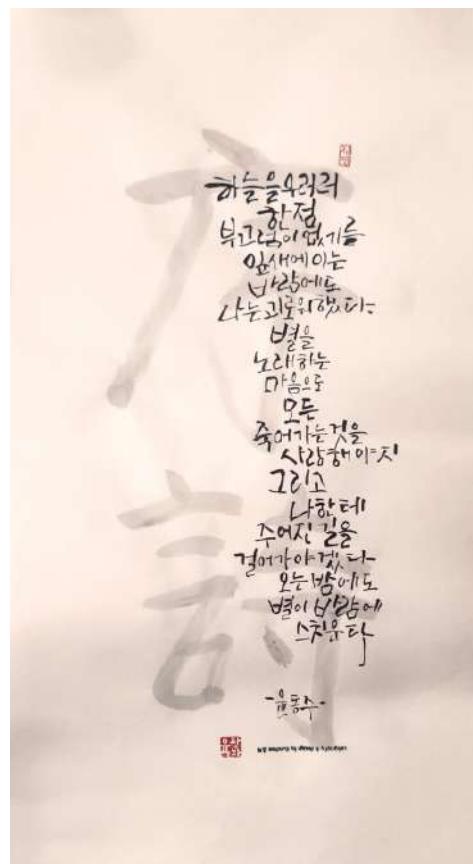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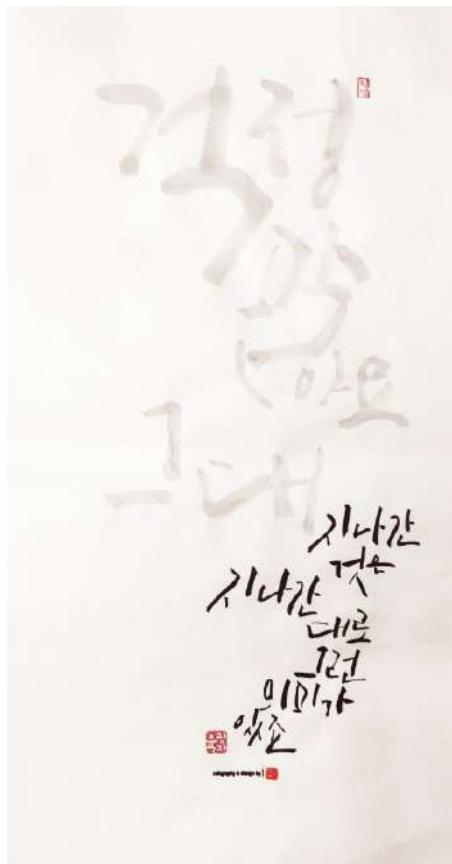


작품



캘리그래피

육광자



옹진의 아름다운 풍경



북도면 - 장봉도 벚꽃

BEAUTIFUL SCENERY OF ONGJIN



연평면 구지도

옹진의 아름다운 풍경



백령면 사곶해변

BEAUTIFUL SCENERY OF ONGJIN



대청면 매바위 전망대

옹진의 아름다운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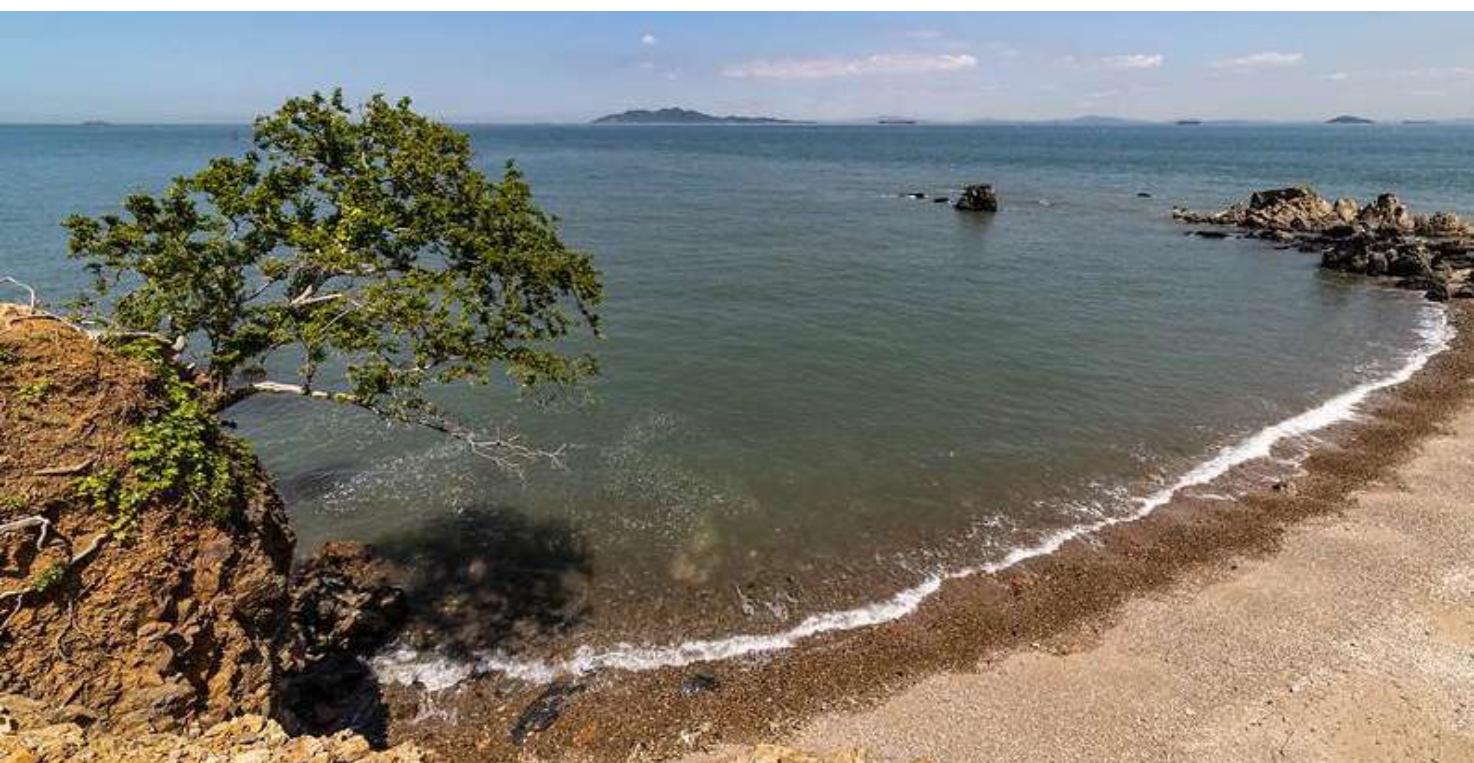
덕적면 굴업도 해변

BEAUTIFUL SCENERY OF ONGJIN



자월면 이작도 풀등

옹진의 아름다운 풍경



영흥면 진여부리해안



II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 북도면 – 시도矢島 석총石塚

• 연평면 – 일본인이 탐내던 명당明堂인 사당社堂터

• 백령면 – 향교지鄉校地

• 대청면 – 대청도 망향비望鄉碑

• 덕적면 – 선단여仙丹嶼의 전설傳說

• 자월면 – 고려말高麗末의 이작도伊作島는 왜구倭寇의 근거지根據地

• 영흥면 – 숭정대부崇政大夫 임세재林世載 사당祠堂

※ 참고문헌 :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사료는 인천문화원 「향토 사료 조사보고서」(2000년) 원본의 일부입니다.

시도矢島 석총石塚

시도 석총의 위치는 시도 최북단最北端 수기산 북쪽 '박줄뿌리' 능선稜線 위이다. 이 석총石塚은 국립박물관 고적古蹟 조사보고서 제9 책冊인 시도 패총貝塚(1970. 한병삼韓炳三)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



멀리 시도 석총 터가 보이나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墓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석총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표토表土 20cm 정도를 제거하니까 적석積石이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윤곽을 완전히 드러내보니 동서東西로 장축長軸이 165cm 단축短軸이 145cm의 타원형橢圓形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광土壤이 적석積石의 둘레보다는 약간 작은 타원으로 장축長軸이 150cm 단축短軸이 120cm였다고 하였으며 이 무덤은 토광土壤을 파고 시체屍體를 넣은 다음에 토광土壤 위에다 나무를 많이 걸쳐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린 것 같다고 하였다.

또 적석積石의 중앙부위가 험몰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무덤 형태는 아주 원시적原始的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동조사 보고에 의하
면 1970년 8월 11일부
터 16일까지의 조사에
서 이 부근에 패총貝塚을
형성한 사람들의 주거지
住居地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찾는 작업을 실시
하였으나 뜻밖에도 주거
지는 없고 석총石塚 일기

적석 사이에서 무문토기無文土器들이 섞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무문토기無文土器인의 무덤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무덤은 조사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무덤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자료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고고학考古學 연구자료研究資料로서는 보기 드문 귀중한 유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총石塚은 현재 삼림森林이 우거지고 잡목雜木들이 엉키고 엉키어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지경이었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보관 상태도 관심 밖으로 되어 있는 인상을 받아 유적의 보존에 아쉬움을 가지게 하였다.

일본인이 탐내던 명당明堂인 사당社堂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기敗亡期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우리 한국민족의 문화文化와 정기精氣를 말살抹殺하려는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니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니 하는 구실을 강하게 떠들면서 이르는 곳마다 그들의 조상신祖上神을 받드는 신사神社를 건립하고 참배參拜를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형신사형상자小型神社型箱子를 만들어 집집마다 강제로 돌리면서 참배토록 하였던 것이다.

일제 말에 일본인들은 연평도 임경업장군의 사당祠堂인 충민사忠愍祠 바로 뒤에다 신사神社 건립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일인曰들은 이곳에 신사를 지은 후 충민사를 철거라도 할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임경업 장군 사당은 연평 조기파시波市 때는 말할 것도 없고 1년 내내 전국각지 어선들이 일부 러라도 이곳까지 와서



사당 주의를 조사

선원船員의 무사고無事故와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고사告祀를 드리고 가는 사당이다.

일본인들은 이곳을 크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1940년대 초에 연평도 어업조합 이사로 부임赴任한 사람은 일본인으로서 와다和田라는 성을 가진 자였는데 와다和田는 오자마자 충민사 바로 뒤에다 신사건립을 결정하고 수백 년 자란 큰 나무를 베어내면서 정지 작업과 함께 공사를 착수着手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와다和田는 이날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마시고 깊은 잠이 들어

곧히 자는데 꿈에 임경업 장군이 8척 장검長劍을 손에 쥐고 나타나 호령하기를 “연평어업조합 이사라면 나를 극력 모시고 어민들을 보호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내 바로 등 뒤에다 신사를 건립하려는 불손한 행동은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으니 즉시 중지하고 또한 원상 복구토록

하라. 만약 그대로 공사 진행을 한다면 너는 물론 너의 가족에게까지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닌가. 와다和田는 혼비백산하여 잠에서 깨었으나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임경업 장군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갑자기 겁에 질려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아니 이렇게 괴이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여 와다和田 이사는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불안한 가운데 연평도 유지들을 모아놓고 상의 끝에 신사건립을 중지하고 완전히 원상복구와 동시 제물祭物을 갖추어 직접 제사를 하였던 것이다.

현재 충민사 뒤에는 일제 말에 신사를 지으려고 아름드리나무들을 베어내고 터를 닦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감히 일본인 어업조합 이사가 우리나라 충신忠臣이요, 서해의 수호신守護神이신 임경업 장군의 혼신魂神에게 맞서 보려다 장군의 영용英勇한 혼신魂神의 영감으로 와다는 기가 죽고 힘이 빠진 채 그 후에도 누가 볼세라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임 장군 사당에 자주 참배를 드리며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돌아 갔다고 한다.



충민사 뒤편 신사를 지으려던 곳

향교지鄉校地

백령도 향교는 고려 고종高宗 7년(1220)에 백령진장으로 부임赴任했던 이세화李世華가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고문헌古文獻에 전해지고 있다.

고려 명종 때의 학자 이규보李奎報의 문집文集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12권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세화李世華는 정주貞州이씨이고 자는 거실居實이다. 임술壬戌 1202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다방茶房, 내시內侍 등의 벼슬에 이어 고종高宗 4년(1217) 정용분定戎分 도원수都元帥 조충趙沖의 막하幕下로 있다가 그의 천거로 대영서승大盈署承이 되고 1220년(경진庚辰)에 백령진장이 되어 고을(백령읍)을 공평하게 다스리며 처음으로 향교鄉校를 창설創設하여 자제子弟를 교육시켜 과거科舉를 보게 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孤島 백령도 진장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선대진장先代鎮將들이 못한 향교를 창설하여 백성을 교육시켰다는데 대하여 이세화 진장의 선정과 함께 능력能力을 높이 평가評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3권 황해도 강령현편 명환名宦조에서



향교지를 찾기 위해 조사

도 〈이세화李世華가 백령진의 진장이 되었는데 정치를 청렴공평清廉公平하게 하였고 향교鄉校를 처음 창설하여 자제를 모아 가르치니 과거를 보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설학선생^{雪壑先生}: 이대기^{李大基} 문집^{文集}, 하권下卷 『백령도지』에서도 <본도(백령)가 별읍이 되어 지금도 향교동^{鄉校洞}, 역리동^{驛里洞}, 등의 이름이 전해지고…>라는 기록을 볼 때 이대기 선생이 백령도로 유배^{流配}를 왔던 1620년(광해군 12) 경에는 향교동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또 오늘의 화동(남포 2리)을 역리동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대기는 정인홍^{鄭仁弘} 사건과 연루^{連累}되어 광해군 12년(1620)에 이곳으로 귀양살이를 와서 있으면서 당시의 백령도 실정^{實情}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저술하여 간행한 『백령도지』는 그야말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소중한 문헌으로서 특히 현재와는 모든 정황^{情況}이 달랐던 백령도의 역사를 알 수 있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에 까지 백령도 향교설치에 대하여 전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백령도지』에는 향교동 등의 이름이 전해진다고 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향교는 옛날 교육기관으로서는 부목군현^{府牧郡縣}의 행정구역 단위에 일교^{一敎}씩 건립하여 교생^{校生}-儒生도 정원을 두었던 것이다.

당시의 백령도는 하나의 작은 섬이 아니라 부목군현^{(府牧郡縣) - 오늘의 市, 郡}과 동일한 행정구역 단위인 백령 현^縣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아쉬운 것은 1620년경까지 향교동이란 마을이 있었음에도 현재는 그 마을 이름조차 불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하여도 아는 이 조차 없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인지 역촌^{驛村}-化洞이란 옛 지명은 오늘도 옛 노인들 간에 서로 부르고 있어 알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길이 전해져야 할 향교동은 어디였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아쉽다.

또 백령향교가 폐지된 연대도 알 길이 없지만 다만 공민왕 6년(1357)에 해적 海賊떼들의 행패로 진운영이 어려워 진장이 백성들과 함께 육지(황해도 문화현)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된 것으로 추측한다.

향교는 백령진이 있던 오늘의 진촌마을 어느 곳에다 지었을 것으로 추측 되는데 그것은 어느 고을이나 거의가 수령 守令이 머무는 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진촌 마을은 고려 때부터 진 鎮 주의의 수백 가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같은 상황은 백령진이 고려 문종 文宗, 정종 靖宗 때의 화재사건으로 소실 燒失된 민려가 300간 間이라는 기록 등으로 짐작이 간다.

이세화 李世華 진장이 향교를 창건할 때인 1220년대까지 역시 진촌에 주민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향교도 백령진청 白翎鎮廳 가까이 지어놓고 진장이 직접 지도 감독을 하였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백령진 청사 근처에 있던 향교동은 그 후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부지 住宅敷地가 확장될 뿐 아니라 지명이 점차 변음 變音되다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대청면

대청도 망향비_{望鄉碑}대청면 대청2리(면사무소 소재지) 선진표_{船津浦} 산 59-1비_碑 높이 : 215cm, 지단 높이 : 175cm건립유래_{建立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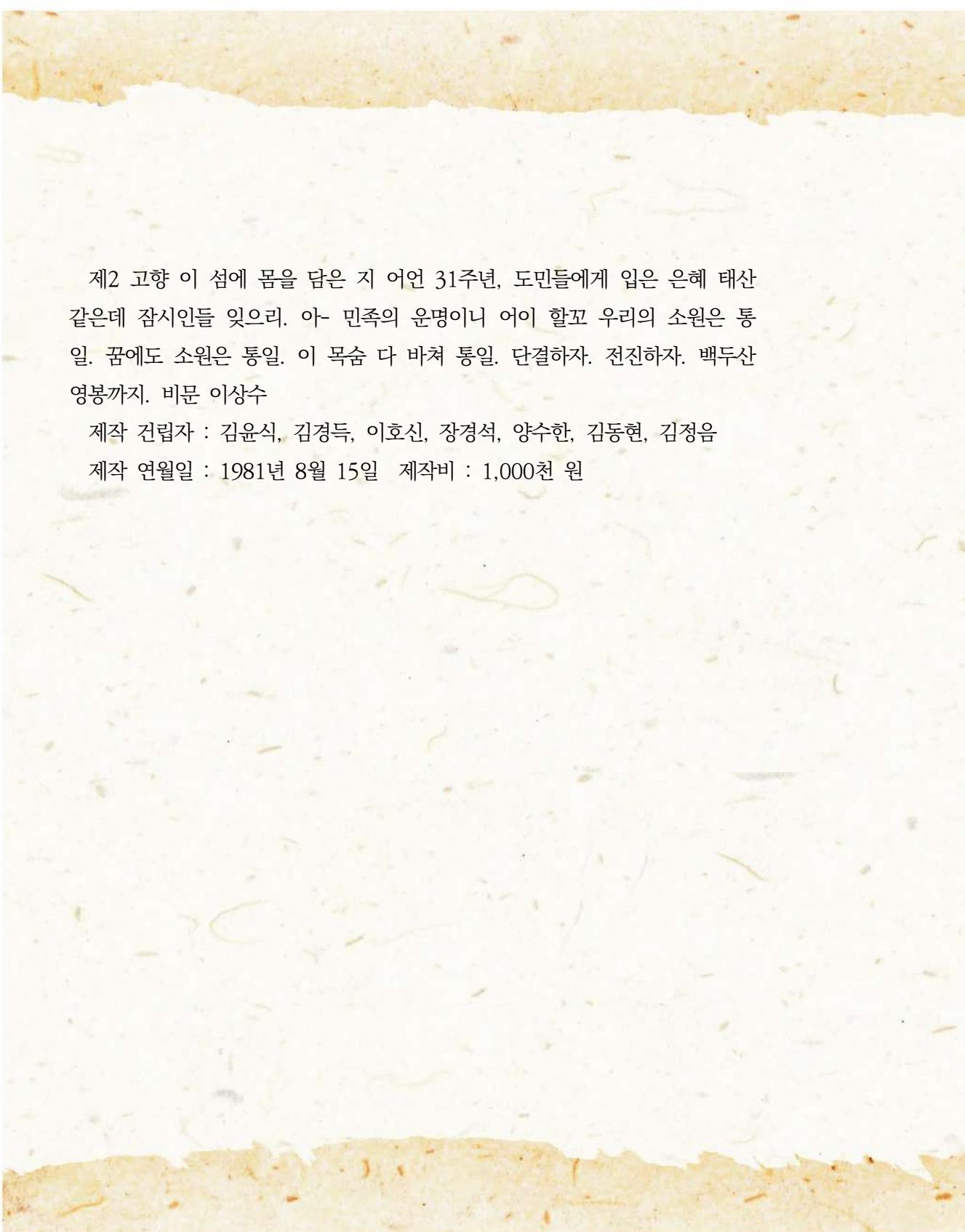
실향_민失鄉民의 고향산천에 대한 향수_{鄉愁}와 애향의식_{愛鄉意識}을 고취하고 우리의 소원_{所願}인 조국통일_{祖國統一}의지_{意志}를 굳건히 하고자 대청2리(선진동)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세우게 되었다. 신년을 맞이하거나 추석에는 이곳에 포과주_{鮑果酒}를 차려 놓고 고향_{故鄉} 선영_{先瑩}에 계신 조상님들과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 조부모_{祖父母}님들, 그리고 친인척_{親姻戚}任님들의 안녕_{安寧}을 기원하는 제사_{祭祀}를 올리기도 한다.

비_碑에 새긴 망향시_{望鄉詩}

대청도 망향비



내 고향 산천은 잡힐 듯이 눈앞에 아롱대건만 가려야 갈 수 없는 내 고향,
언제나 저 하늘아래 이 빨을 딛고 조상님께 성묘드리리. 바라보고 또 바라보
아도 멀고 아득한데 바람소리 파도소리 우리들의 흥금을 두드리는구나.



제2 고향 이 섬에 봄을 담은 지 어언 31주년, 도민들에게 입은 은혜 태산
같은데 잠시인들 잊으리. 아- 민족의 운명이니 어이 할꼬 우리의 소원은 통
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 바쳐 통일. 단결하자. 전진하자. 백두산
영봉까지. 비문 이상수

제작 건립자 : 김윤식, 김경득, 이호신, 장경석, 양수한, 김동현, 김정음

제작 연월일 : 1981년 8월 15일 제작비 : 1,000천 원

덕적면

선단여 仙丹嶼의 전설 傳說

덕적도에서 남쪽으로 약 14km 거리에 있는 백아도 白牙島는 면적이 약 1.7km²의 작은 섬이다.

아득한 옛날 노부부 老夫婦가 부모 잃은 어린 손자 남매를 데리고 백아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 외딴섬에 홀로 살던 마귀할머니가 백아도에 왔다가 이 어린 남매 중 어여쁘게 생긴 여동생을 몰래 납치하여 자기 섬으로 데리고 가버렸다.



선단여

이때 노부부는 이 어린 손녀딸을 안타깝게 찾아 해매었으나 찾을 길이 없어 단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동안 손자는 장성 長成하여 조각배를 타고 매일 홀로 낚시질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낚시를 나갔으나 풍랑 風浪이 심하여 작은 섬에 들어가 배를 대고 쉬고 있었는데 이때 이 섬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게 되었다.

역시 처녀도 이 낚싯배 총각을 보더니 수줍어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당히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가 눈이 마주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여 아주 친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 처녀는 자기하고 동기간인 누이동생인데 잃어버렸던 동생임을 모르고 누이동생 또한 자기 오빠인 줄 모르고 나날이 정이 두터워지면서 하루라도 못 보면 못 참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날 총각도 역시 조각배를 타고 이 작은 섬 쪽으로 낚시를 나갔다가 일찍이 처녀 있는 섬으로 들어가 배를 대고 사랑을 속삭이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둥켜안고 놀다가 드디어 동침을 하고 선을 넘을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옥황상제가 내려다보니 맷지 못할 남매의 사랑이라 개탄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천동과 함께 이곳에다 벼락을 때리게 하여 두 남매와 마귀할머니까지 간데 온데 없어지고 얼마 후에 그 자리에는 벼락 맞은 붉은 바위 세 개가 우뚝 솟아났다 하여 사람들은 이 바위를 붉은 선녀바위라 하여 선단여_{仙丹嶼}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양쪽 바위는 총각 처녀 바위이고 가운데 바위는 마귀할머니 바위라고 전해오고 있다.

지금도 이 바위는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이곳을 찾는 강태공이나 이곳을 지나치는 뱃사공들은 옛날 애달팠던 남매의 사랑이야기를 나누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기도 한다.

이러한 선단여의 전설은 근친금혼_{近親禁婚}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의 서해도서 풍속_{西海島嶼風俗}의 짧은 한토막이라 전해진다.

고려말 高麗末의 이작도 伊作島는 왜구倭寇의 근거지 根據地

고려말에는 서해 일대의 왜구倭寇들의 침입으로 세곡을 운반하던 조운선漕運船들이 번번히 약탈을 당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작도는 해적(왜구)들의 근거지로서 이곳을 지나가던 세곡선稅穀船을 모조리 약탈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사 변광수전邊光秀傳에 의하면 변광수는 고려 공민왕 때



자월도 해변가

에 경기우도 병마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공민왕 13년 (1364) 변광수는 조운선 운송을 맡게 되었는데 해적에 막혀 통通하지 못하므로 동북계東北界의 무사를 뽑아 강화도의 전함 80여 척에 싣고 경기좌도 병마사兵馬使 이선李善과 함께 명命을 받아 나누어 거느리고서 세곡조운선 호

위를 하게 되었다.

이때 별도伐島에 이르니 내포민內浦民으로 적(왜구)에게 사로 잡혔던 자가 도망해 와서 고하기를 “적의 군사軍士를 이작도에 숨겼으니 가히 가볍게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선李善이 듣지 않고 북을 치며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 나아가서 왜적 2척을 맞았으나 왜적들이 거짓으로 물러가니 변광수邊光秀 등이 쫓아갔다.

이때 갑자기 적선 50여 척이
나타나서 포위하거늘 병마판관
兵馬判官 이분손李汾孫, 중랑장中郎將
이화상李和尚 등이 먼저부터
싸우다가 모두 적에게 살해
당하니 모든 선병船兵이 바라
보며 넋을 잃고 바다에 투신投身
하여 죽은 자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이 섬을 이적도夷賊島 또는 이적도二賊島 : 大, 小伊作라는 별칭의 지명
까지 나왔다고 전한다.

별도伐島란 소이작도 별 안쪽이 아닌가 추측된다.

대동지지大東地志 · 경기도京畿道 남양부南陽府 고전조故典條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
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대이작도 국사봉



현재의 대이작도 선착장

왜구들에게 패敗한
우리 호위선과 조운
선에서는 억울함을 못
이겨 대성통곡大聲痛哭
하는 소리가 멀리
교동도喬桐島와 강화도
그리고 동서강東西江(한강
하류 지점)에 까지
들렸다 한다.

原文원문 : 十三年 先是 潛船以 倭不得澠 遣邊光秀, 李善領 戰船 八十餘艘 往
護之 光秀船 至代島 賊伏兵 伊作島以 五十餘艘 園之盡爲敗衄 喬桐 江華 東西江
哭聲相聞

(십삼년 선시 조선이 왜불득운 견변광수, 이선령 전선 80여소 왕호지 광수
선 지대도 적복병 이작도이 50여소 원지진위패衄 교동 강화 동서강곡성상문)

이러한 기록 등으로 볼 때 당시의 왜구倭寇들의 기세氣勢가 얼마나 강強하였던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삼남지방 三南地方(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서울인 송도 松都로 운송하던 세곡조
운선 稅穀漕運船은 이작도를 통과 通過하여야 하는 선로 船路이므로 왜구들은 대, 소
이작도를 근거지 根據地로 하고 모든 지나가는 배들을 약탈하던 곳이고 특히 세
곡조운선에는 그와 같이 많은 전선 戰船과 병사 兵士로 하여금 호위 護衛토록 하였
음에도 왜 해적 떼들에게 패배 敗北를 당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고려의 국운 國運
이 쇠퇴 衰盡해짐에 따라 병사들도 전의 戰意를 잃었던가 또는 왜구倭寇를 너무 지
나치게 가볍게 본 작전의 실패에서 온 패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이 고려말에서 조선조 초기에 이르기까지 서해에는 왜구뿐 아니라 중국
해적 심지어는 고려인 해적까지 일어나서 견접을 수 없었던 해적들의 전성기
였음을 알 수 있다.

승정대부崇政大夫 임세재林世載 사당祠堂

영흥면 내4리 버드나마을
교회 뒤쪽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그마한 사당祠堂이 보인다.

이 사당은 영흥도 평택平澤
임 씨林氏 문중門中의 중흥조中興祖
라고 할 수 있는 종일품從一品
승정대부崇政大夫 임세재林世載의
사당祠堂이다.

임세재는 1724년(경종景宗 4년)
7월 3일에 영흥도 태생胎生으로

‘승정대부행崇政大夫行 락안군수樂安郡守 순천진관병마동順天鎮管兵馬同 첨절제사僉節制
使’를 끝으로 여러 곳의 변방첨사邊方僉使와 현령군수縣令郡守 등의 지방수령地方守令
을 지내면서 영조英祖, 정조正祖 대代의 신임信任을 받던 인물이다.

영흥도에서는 임세재를 ‘보성장군寶城將軍으로 불려지는데 35세경 보성군수
寶城將軍를 지냈다 하여 불려지는 칭호稱號이며 이에 대하여 영흥도에서 구전口傳
되는 보성장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임세재는 선대先代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영흥도 국영목마장國營牧馬場의
일을 보던 목마군牧馬軍이었다.

그는 자랄 때부터 남다르게 성장成長이 빨랐고 체격이 장대長大하여 15세기
경부터 힘이 보통 사람의 몇 배가 더 세여 장사壯士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목마군牧馬軍으로 있으면서 말 타기를 좋아했는데 언젠가는 목장 안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끌어내다가 올라타고 힘껏 때려 몰며 달리다가
육중한 임세재의 몸무게에 말이 못 이겨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임세재 사당

이때 임세재는 관官에서 별罰 받을 것이 두려워 고향故鄉인 영흥도를 탈출하여 육지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육지로 나간 그는 여기저기 전전轉轉하면서 가는 곳마다 힘자랑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임세재의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어느 사람의 도움으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휘하揮下로 들어갈 것을 추천하여 주었다고 한다.

추천을 받은 사도세자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그의 생김생김이 남다르고 날 센 것을 보고 수하手下로 삼았다고 전한다.

그는 24세 때 사도세자의 배경背景으로 무과武科에 응시應試해 무난無難히 합격하여 그때부터 무관직武官職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남다른 힘과 완력이 뛰어나 당시 별군직別軍職 시위무사侍衛武士로 있으면서 1747년(영조 24년)에는 일본국 수신사日本國修信使 수행원隨行員으로 발탁되어 일본에도 다녀왔다고 전한다.

별군직소속別軍職所屬의 시위무사侍衛武士란 임금의 호위병護衛兵으로서 임세재는 영조대왕英祖大王의 시위무사로 있으면서 충성忠誠을 다한 보람으로 크게 신임信任을 얻게 되어 변방수군첨사邊防水軍僉使로 처음에 황해도 장연군 오차포吾又浦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시작으로 여러 곳의 진장鎭將을 지내고 이어서 36세에 자현대부동지중추부사資憲大夫同知中樞府事로 보성군수를, 42세에 정현대부正憲大夫(정 2품), 울진현령蔚珍懸鈴, 48세에 언양현감彦陽縣監을, 51세에 승록대부崇祿大夫(정 1품)를 제수除授받았고 60세(건륭乾隆 48년, 1783년)에 행락안군수行樂安郡守 순천진영병마동順天鎮營兵馬同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끝으로 관직을 마친 것을 그의 사당祠堂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준호구准戶口나 교지教旨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같이 임세재는 별군직 무사로서는 당시 최고最高의 품계品階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역시 임세재가 특출特出한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中
『정조실록』 4권 원년元年
7월 조條에 의하면 임세재는
영조대英祖代에 별군직소속別軍職所屬
의 무사였는데 별군직은 효종조
孝宗朝에 설치된 아래 무뢰배가
범람하는 잡청雜廳으로 인식되어
있던 곳으로 정조正祖 즉위即位初
부터 이를 정비하려는 논의論議가 있었다.

정비 목적은 도태시키거나 형벌刑罰을 가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임세재는 사족士族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왕(王-영조英祖)을 시위侍衛 한 공功이 있고 출증出衆한 여력脣力이 참작되어 모면했다. 라고 기록되고 있고 일성록日省錄 등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데 그를 요약要約 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下教 하기를…… 중략中略…… 별군직別軍職 가운데 사족 및 내력이 있는 자 이외의 잡류雜類 등은 모두 잘라내고 파면시켜라. 다만 임세재는 완력이 있고 임금을 모시는데 순수하고 재간이 있으니 파면시키지 말라고 명하였다.〉라는 기사이다.

앞의 기사 내용으로 보아 임세재는 별군직의 차임差任을 계기로 관로管路의 진출進出을 전개하였으며 여러 신료臣僚들이 파면을 요청하였음에도 정조대왕이 친親이 불허不許한 만큼 정조의 신임信任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시파時派, 벽파僻派의 당쟁黨爭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짚어서 사망한 뒤의 일이다.



사당 내 보관중인 물품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죽은 뒤주를 임세재 보고 치우라고 하자 그때 임세재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뒤주만은 치울 수 없다.”라고 하며 반대를 하였지만 결국 영조英祖가 왕명王命이니 치우라 하여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치웠다고 한다.

이때 당파 싸움으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짚어 죽게 한 영조 대왕英祖大王이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은데 대하여 항상 슬픔에 잠겨 있던 아들 정조대왕正祖大王이나 같이 신임이 깊었던 임세재에게 베풀어준 보답이 아니겠나 생각되고 또한 임세재 역시 청렴결백清廉潔白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임세재는 1783년(정조 7년) 그의 준호구准戶口에서 건륭乾隆 48년 한성 부漢城府 <고계묘考癸卯 성적호구장내成籍戶口帳內 북부준수방北部俊秀坊 구사포서계舊司圃署契 第十統 제삼호주승록 대부전행락안군수大夫前行樂安郡守 순천진관병마동첨절 제사順天鎮管兵馬同僉節制使 임세재년육십林世載年六十 甲辰生… 생략省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임세재가 호주戶主로서는 마지막 준호구准戶口인 것을 알겠고 60세이거나 60세 이상을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임세재 비문 앞에서

그의 사당에는 1693년부터 1894년까지 200년 간의 임세재 세계의 준호고准戶口가 소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고문서古文書가 옛 상자箱子 안에 담긴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그가 시위무사侍衛武士 때부터
첨사僉使 때 사용使用 하던 갑옷과 투구, 장검長劍
등이 같이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 일제 때에
일경日警이 어떻게 알고 와서 강제로 빼앗아
가져갔다고 한다.

사당 바로 옆은 임세재의 종손宗孫 집이다.

조상의 유품遺品이라 훼손되거나 또는
분실될 것이 걱정이 되지만 각계각층에서
찾아와 보시는 것이 고맙고 또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걱정 반 자랑 반으로 반겨 맞는다.

서두序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세재는
영흥도 평택임 씨 문중의 중흥조中興祖로서
후손들로부터 크게 숭양崇仰을 받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근래 어려운 중에서도
사당을 건립했고 또 200여 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비석碑石도 세우는 등 묘역
墓域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것이 엿보인다.

이 같은 일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임 씨林氏 문중門中의 원로元老들에 의해 후
손들에게 길이 전할 뿐 아니라 승조사상崇祖思想과 애향심愛鄉心을 심어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임세재 가家는 그 아들 희춘喜春이 어희장군행판관禦侮將軍行判官의
직역職域을 끝으로 아들 성연聖淵은 양반유생을 일컫는 유학幼學을 직역職域으로
지녔을 뿐 아니라 1870년대에는 한양에서 영흥도로 귀향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비문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임세재가 영英·정조대正祖代에 총애를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종일품從一品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임세재가 사망하고 정조가 사망하게 되면서 앞서의 조선왕조실록기사와 같이 다시 임세재가林世載家의 도태가 논의되고 정국政局의 주도세력主導勢力이 변하면서 결국은 손자 대에 영흥도로 귀향歸鄉하고 밀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임세재만은 목마군牧馬軍 출신出身으로 승정대부崇政大夫 종일품從一品까지 오르게 된 것이 영흥도 임씨林氏 뿐만 아니라 그 조상祖上들과 후손들, 그리고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III

옹진의

따뜻한 복지 행정 현장 탐방

- 영흥면 생활개선회, 옹진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 백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떡·한과 전달
 - 덕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명절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 북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이웃에 곰탕 세트 전달
 - 민·관 협력 옹진군 승봉도 무료 진료 실시
 - 옹진군, 모든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 옹진군(덕적, 자월, 영흥) 면허 어장 내 바지락, 동죽 종자 170톤 살포
 - 패류 자원 증강 및 어업 소득 증대 도모 -
 - 옹진군, 찾아가는 주민 건강 검진 실시
 - 옹진군,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 연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선물 전달

영흥면 생활개선회, 옹진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영흥면 생활개선회는 2022년 12월 29일 옹진군 도서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영흥면 생활개선회에서는 2020년부터 꾸준히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옹진군인재육성

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옹진군을 이끌어 나아갈 인재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백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떡·한과 전달



백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18일 '명절 나눔! 행복 나눔! 사업'으로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 180 가구에 떡과 한과 등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명절 나눔! 행복 나눔! 사업’은 백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명절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소외 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노인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백령면사무소 직원들도 떡 전달에 동참하였으며, 특히 백령면 몇 농가에서 기증한 쌀로 떡을 만들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덕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명절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옹진군 덕적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19일 설 명절을 맞이 하여 ‘사랑의 명절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52 가구에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명절 꾸러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일 세트, 한우곰탕 등을 전달함과 동시에 위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명절 인사와 함께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북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이웃에 곰탕 세트 전달



북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18일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한 취약 계층 위문’ 사업으로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 65 가구에 곰탕 세트를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북도면사무소 직원들도 위문품 전달에 동참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 · 관 협력 옹진군 승봉도 무료 진료 실시



인천광역시, 길병원과 함께 4월 12일 승봉도 주민을 대상으로 신장내과, 한의과에 대해 첫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군은 인천광역시, 민간전문병원들과

‘섬’ 지역 무료 진료 사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길병원은 ‘인천 광역시 1 섬-1 주치^{主治}’ 사업 추진에 따라 자월면 담당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월면 승봉도를 방문한 길병원 전문 의료진과 인천광역시, 그리고 옹진군 공무원은 임시진료소에서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신장내과, 한의과 진료를 진행했다.

옹진군

모든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옹진군은 이미 설치된 22개 경로당을 포함해 옹진군 전체 73개 경로당에 신속한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제세동기) 설치를 완료했다. 옹진군은 기계 보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보건소와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제세동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과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옹진군(덕적, 자월, 영흥)

면허 어장 내 바지락, 동죽 종자 170톤 살포

- 패류 자원 증강 및 어업 소득 증대 도모 -



옹진군은 관내 면허 어장에 수산 자원 조성을 통한 패류 자원 생산력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덕적, 자월, 영흥 어촌계 면허 어장 188ha에 건강하고 우량한 바지락, 동죽 종자 170톤을 살포했다.

옹진군

찾아가는 주민 건강 검진 실시



옹진군은 관내 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위해 7월 5일부터 백령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건강 검진은 만 20세 이상 옹진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골밀도 및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 37개 항목과 만성 질환 합병증(백내장, 실명 등) 검사인 안저·안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옹진군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옹진군은 벼의 주요 해충인 흑명나방에 대해 9월 2일부터 12일까지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군에서는 예산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용 무인 헬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무인 헬기 4대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단을 구성, 옹진군 벼 재배 전 지역에 멸구류, 흑명나방, 도열병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방제를 완료한 바 있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 이후 고온이 지속되며 서해안 일대 흑명나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밀 예찰을 실시한 결과, 백령도에서 흑명나방과 이화명나방의 큰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방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선물 전달



옹진군 연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한과 세트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는 독거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과 복지 상담도 진행하였다.

IV

옹진 섬마을 학교자랑

- 즐겁고, 행복한 연평초등학교의 일상 디깅(Digging)
 - 이승갑(연평초 교사)
- 옹진 섬마을 선생님 일기 - 백령도, 영흥도
 - 김상윤(영흥중 교사)
- 우리 학교는 짱이야
 - 김진광(연평초 5학년)

옹진 섬마을 학교자랑

즐겁고, 행복한 연평초등학교의 일상 디깅(Digging)

이승갑(연평초등학교 교사)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섬 중 봄철과 가을철 꽃게잡이로 분주한 섬, 연평도 아픈 상처를 딛고 평화로운 섬으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섬과 학교의 모습을 담아본다. 인천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2시간 정도 코리아킹을 타고 대연평에 도착하면 빨간 이름표와 펠각 모자를 쓴 군인들을 제법 많이 볼 수 있다. 그 군인들의 자녀들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공부하는 곳이 바로 연평초등학교이다.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로 통합된 연평초중고등학교는 연평도 중심인 중앙로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 안에 임시대피시설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로 인해 민방공 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공습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쌓은 학교 돌담길을 따라 들어서면 정겨운 학교길이 펼쳐진다.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연이, 평이(연평초등학교 학생)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환하게 웃음 짓는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침 등굣길 음악회로 신나게 하루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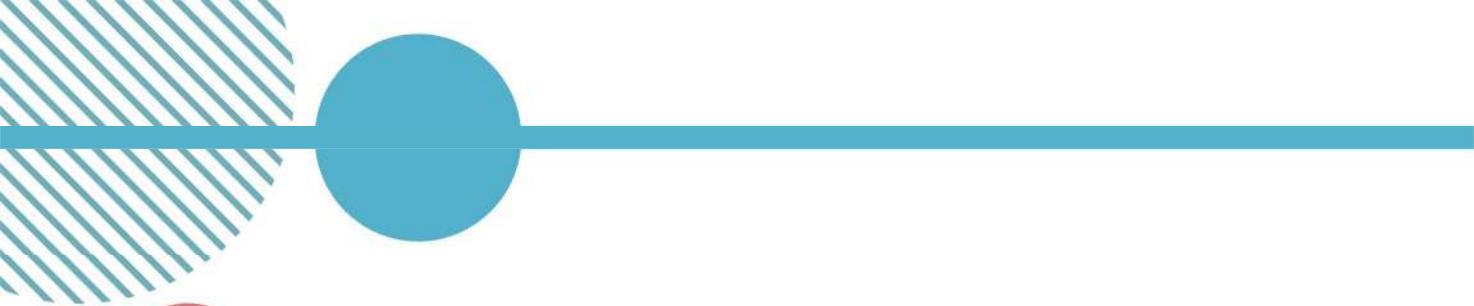
연평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등교하는 날 아침에 아침이 신나는 학교 프로그램(아침 체육, 독서, 코딩학습 등), 3~6학년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침 스포츠 활동으로 하루가 시작

된다. 아침 학교 오늘 길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는 학생, 동생 손을 잡고 오는 학생 등 일반학교의 등굣길과 비슷하다.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 활동인 창의축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찾아온 섬마을 프로젝트(샌드아트공연, 마술공연, 사칙연산 마음나누기활동,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생태지도 만들기 활동, 옹진문화원에서 온 예절교실(삼색송편 만들기)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창의인성 활동이 운영되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뜨거웠다.

문화예술진로체험활동으로 3~6학년 학생 16명은 4월에 제주도를 텁방했다. 배를 타고 출도하여 잠시 벚꽃이 만발한 인천대공원의 정취도 느끼며 시작한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은 문화시설이 없는 섬 특성상 색다른 체험을 많이 했다. 한 번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겸사겸사 다양한 연계 교육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듯 섬 밖으로 찾아가는 체험활동, 섬 안으로 찾아오는 교육활동을 통해 혹여나 학생들에게 결핍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채워가고 있다.





연평초등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자율학교, 균형발전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미래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일안보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연평도에서 만 학습할 수 있는 안보교육체험(1, 2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 평화전망대와 망향전망대 둘레길 걷기활동, 갯벌체험과 낚시활동, 백로와 갈매기의 서식지 탐방, 텃밭체험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관된 ‘꿈다락도서관’과 앞으로 조성될 ‘학교숲’이라는 공간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은 꿈과 끼를 키우길 기대한다.



옹진 섬마을 학교자랑

옹진 섬마을 선생님 일기 - 백령도, 영흥도

김상윤(영흥중 교사)

인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옹진군과 강화도 인근의 섬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젊은 교사들은 첫 발령지가 섬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한다. 1992년 나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해에 인천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첫 발령을 받았다. 그 후 2016년까지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네 곳에 근무하며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영어 교과는 항상 수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고, 담임과 부장 업무를 맡으며 진학지도와 생활지도에 애근을 해야 하는 날이 허다했다. 그런데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에게는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이 가까이 사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섬에 있는 학교에서의 근무!

옹진군에는 다양한 섬들이 있다. 그중에서 거리상 가장 먼 곳이 바로 백령도이다. ‘백령도’하면 ‘서해최북단^{西海最北端}’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실제로 기본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내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평생에 언제 다시 이런 곳에서 일해 볼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가보자.”였다. 당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어서, 딸에게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도 컸다. 곧바로 아내의 동의를 받아 전보 내신서를 썼다. 인천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30분이 걸리는 백령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는 터라, 나와 같은 경력교사는 곧바로 발령이 난다.



백령도 - 두무진

2016년 2월, 3년간 살 각오로 인천의 집을 정리하고 관사를 배정받아 이삿짐을 배로 실어 보내고, 우리 가족은 새벽 일찍 연안부두여객터미널로 향했다. 대청도와 백령도를 오가는 배는 하루에 딱 한 번 운행하는 ‘하모니 플라워’였다. 커다란 노란색 쾌속선이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배 안에는 절반이 군인인 것으로 보였다. 면바다에 다다르니 파도가 높고 장시간 여행에 멀미가 나고 속이 울렁거렸다. 결국 배는 무사히 백령도 항구에 도착했고, 배에서 내려 선착장에 올라가는데 해병대 군악대가 환영 연주를 하고, 저 앞에 백령중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반겨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떨림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첫 번째 섬마을 근무!

학교는 섬의 중간 즈음에 위치하고 있고, 중고등학교가 통합된 학교이다. 학년별로 두 학급씩 이니까 모두 여덟 학급에 학생 수가 학급 당 15~20명 정도였다. 이곳은 소규모 학교라 선생님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을 겸임한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과 중학교 3학년 수업을 배정받았다.

시내에서 삼십 명이 넘는 학급에서 수업을 하다가 열다섯에서 스무 명 정도의 학급에 들어가니까 교실이 널찍하고 참 좋았다. 학생들의 표정은 밝고 순박했다.



영흥도 – 영흥대교

첫해에는 담임을 못 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고3 학생들의 대학 입학 전형을 연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백령도는 ‘서해 5도 전형’이라는 특별한 입학전형이 있어 대학을 진학하는데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는 변변한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순전히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지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력을 쌓아나간다고 보면 된다. 2017년 입시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서울대학교를 합격 한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여 육지로 들어왔다. 백령도를 떠난 지 칠 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학생이 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

초임 발령을 받은 이십 대 젊은 선생님들은 두 주에 한 번 육지로 나가는 배가 파도가 높거나 해무가 짙어 선박 운항이 중지되면 무척 우울하고 슬픈 주말을 맞이했으나, 나는 가족이 함께 관사에 살고 백령도에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유명 관광지가 많아 주말을 참 즐겁게 보냈다.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두무진(頭武津)의 해안절벽이나, 자갈들이 마치 콩을 뿌려 놓은 듯한 ‘콩돌해변’은 우리 가족이 가장 자주 찾던 휴식처였다. 북한이 코앞에 보이는 군부대와 군인들이 가득한 이곳에는 맛집도 참 많았다.



학교 내 텃밭

부둣가 가까이 ‘진촌’에 있는 흥합 비빔밥과 장촌 마을 입구에 있는 메밀국숫집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맛집이다.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지 몰라서, 또 다른 용진군의 섬 영흥도에 있는 지금 백령도의 추억을 그리워한다.

백령도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인천으로 이사를 나왔다. 다행히 집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시내 학교에서의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 지도와 시험문제 출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유지 등은 오십이 훌쩍 넘은 내게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사 년이 지난 2021년에 영흥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영흥도는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대교가 건설되었고, 인천에서 시화공단을 지나 ‘시화방조제’를 건너고, 대부도를 지나면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를 건너면 한 시간 조금 더 걸려 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 학교에 관사가 있어 집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해서 영흥도에 오게 되었다.

영흥중고등학교의 규모는 백령도와 똑같다. 한 학년에 두 개 학급이 있고, 학급당 학생 수도 십오 명에서 이십 명 정도이다. 이곳 역시 아주 순박하고 잘 생긴, 예의 바른 학생들이 가득하다. 삼십 년이 넘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는 없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버스가 세 대이고, 매년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두 해는 갈 수 없었지만 작년에는 가을에 전교생이 함께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해외문화 체험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이곳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섬의 상당 부분에 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텃밭 가꾸기’ 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학생들과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행복한 체험을 함께 한다.

교직생활에 있어서 섬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이 많지 않다. 그래서 타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대부분 옹진군이 인천에 속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영흥도는 행정구역상 선재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선재도의 목섬을 비롯하여 십리포 해수욕장과 소사나무 군락지, 그리고 장경리 해수욕장과 국사봉 등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섬이다. 주말이 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교통 혼잡으로 대부도 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바지락을 비롯한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영흥도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올해로 3년째 영흥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올해가 마지막해이다. 내년 2월에 떠나야 한다니 벌써부터 아쉽다.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와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로 다짐한다. 이렇게 귀하고 보람 있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인천시교육청과 옹진군에 감사할 따름이다.

옹진 섬마을 학교자랑

우리 학교는 짱이야

김진광(연평초 5학년)



꽃계의 고장, 연평도. 옛날에는 조기가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마을 벽에는 조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준 임경업 장군님, 조기를 물고 있는 강아지, 조기 구별하는 방법 등이 담벼락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을 풍경들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더 예쁜 섬 마을로 변신 중입니다. 그중에 제가

다니고 있는 연평초등학교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 학교는 급식이 맛있습니다. 스테이크, 우동, 마라탕, 샐러드 등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영양 선생님이 설문을 하셔서 우리들의 최애 먹거리인 마라탕도 나와서 친구들과 동생들이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진로체험활동, 문화예술진로체험학습, 옹진문화원 예절교실, 뮤지컬 공연 등등. 많은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특히 4월에 다녀온 제주 여행은 베스트 1이었습니다.

진로체험활동 때는 유튜버, 배우, 마술사, 댄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가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춤, 그리고 유튜버 선생님의 영상이 더해져서 연평도가 1cm 정도 가라앉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문화예술진로체험학습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주도를 가는 건 드문 일이라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체험학습을 모두 무료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혜택이 있답니다.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학교로 와서 제주도로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옹진문화원에서 예절교실도 했는데 떡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함께 친구들과 나눠 먹으니 더 맛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는 체육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침 스포츠 활동에서 피구, 달리기, 발야구, 배드민턴, 뉴스포츠를 하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어느새 옷이 다 젖습니다. 아침에 땀을 흘리고 체육을 하면 정말 하루가 즐겁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수요방과후활동에서도 체육을 많이 합니다.

정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전학을 간다는 겁니다. 3학년 때까지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 저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32명입니다. 학교 안에서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희 집 주변에는 친구들이 없어, 심심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가족처럼 모두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를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답니다.

작년에는 생존 수영으로 옹진플레이도시에 가서 선생님들과 수영도 배우고 함께 놀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린이 수영장으로 생존 수영을 배우러 간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학교 정말 좋지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연평도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학교도 꼭 오셔서 사진 한 장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V

옹진문화원 일꾼들

- 인연은 아름답다
사무국장 윤삼용

- 옹진, 사람, 그리고 문화
팀장 강문관

-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옹진
대리 박소현

- 옹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원 서혜인



인연은 아름답다

사무국장 윤삼용

60여 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농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을 전공하고 농업분야에서 40여 년의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1979년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후 봉직하다 마지막으로 2014년 11월에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고 2019년 7월 퇴직하므로 공직생활 40년을 옹진군에서 마감하였다.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고향이 있다. 공직자에게도 공직자의 고향이 있다. 즉 제2의 고향인 것이다. 대개가 처음 발령지가 오래 기억이 되고 추억이 많다. 또 포근한 고향과 같다. 그러기에 초임지가 대개는 제2의 고향이 되는 것이다. 1981년도에 옹진군에 발령받고 8년간 근무하다 인천시로 발령이 났으니 옹진군이 나의 제2의 고향이 됐다.

25년 뒤 고향인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금의환향했으니 성공도 했다. 그러기에 더 옹진군 농업인과 농촌과 농업발전에 애착이 더 컼던 것 같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only1 옹진농업”이란 비전을 가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의 위상제고, 돈 버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과 시험 연구사업 추진과 시설확충,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한 무인항공기 병해충 방제, 농기계은행 확대 등에 힘썼다. 특히 옹진군이 섬이라는 이유로 농업 경영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해상운송비나 기타 보조금을 대폭 확대 인상하였으며 관광농업을 위한 옹진군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6차 산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옹진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중앙평가에서 옹진군 역사 이래 최초로 우수농업기술센터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옹진군 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그것으로 끊길 것 같았던 옹진군민과의 인연이 저의 진심 어린 옹진군사랑이 통하여

평소 잊지 않고 안부 전화와 만남 등으로 지속되어 옹진군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옹진군의 사랑과 인연으로 이렇게 또 옹진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옹진군 구석구석을 알고 옹진군민과의 튼튼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 사람이 하려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옹진문화원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문화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연에 의식주, 학문, 규범, 예술 등 먹고 즐기고 향유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공동체 다수가 누리고 즐기는 각양의 관습이 문화라고 했다. 문화의 바탕은 의식주의 근본인 농업에서 시작되었고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기에 평생 농업만 알고 농업분야의 일을 하고 살았던 농업공직자 출신으로서 농촌의 전통문화 보존사업 등을 실시한 경험으로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옹진문화원의 사무국장에 도전한 것이다.

그동안 옹진군 농업발전에 불태웠던 열정에 문화의 영역을 추가하여 옹진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옹진군 문화발전을 위해 주어진 마지막 봉사, 재능기부의 기회라 생각하고 옹진군민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 군민이 즐겁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옹진문화의 발전이 옹진군의 발전이고, 옹진문화원의 발전이 옹진문화의 발전이다.

옹진문화원의 비전인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실현을 위하여 첫째로 옹진문화원의 조직과 조직원의 안정된 근무환경과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 옛말에 응어리가 켜야 고름도 많다고 했다. 옹진문화원의 양적 질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회원 수 배가에 힘써 회원으로 하여금 문화를 전파하고 선도하는 선도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세 번째는 각 면에 산재해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구심점을 만들어 힘을 보태겠다.

즉 협회와 군 단위 동아리 등을 조직하여 지원함으로써 질적, 양적으로 발전된 문화활동에 노력할 것이다.

네 번째는 함께 활동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각종 교육이나 행사등에 비회원과 회원 다수가 참여도록 하여 함께 활동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한 문화 생활이 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는 전회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 사명감을 충전하는 행사를 개최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평가하고 위로 격려하며 자축하는 가칭) ‘옹진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각 면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며 기른 실력을 평가 발표하고 표창 격려하는 회원들과 옹진문화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배가 항해를 잘하기 위해선 선장과 각자의 임무를 맡은 항해사와 선원이 있어야 하고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순항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옹진문화원도 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 팀장 사원들이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로는 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아래로는 직원을 애정으로 대하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발전하는 옹진문화원이 되도록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옹진문화원호의 배가 잘 순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님들과 옹진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바위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옹진군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가르침으로 옹진문화가 발전하고 옹진문화원이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옹진군민의 열화와 같은 협력과 동조를 당부드리며 옹진문화원 임직원도 옹진군민의 즐겁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옹진, 사람, 그리고 문화

팀장 강문관

‘당신은 옹진 사람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옹진 사람’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옹진군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혹은 옹진군에 잠시 머물렀다 하더라도 옹진군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옹진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일례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한성부 건천동(현재 서울특별시 인현동)에서 태어나고 정읍현감, 진도군수, 전라좌도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했으며, 통영의 충렬사, 여수의 충민사, 아산의 현충사 등에 제향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서울이니 서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공을 세운 지역이 통영, 여수 등 남해안이니 남해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장군의 묘와 현충사가 위치한 아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옹진 사람이 서울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옹진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잠시 머물러 있을 뿐 곧 떠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을 옹진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 말이다. 따라서 ‘당신은 옹진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옹진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옹진군에 살고 있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옹진이라면, 그 사람을 옹진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문화도 다르지 않다. 옹진군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에 얹매여 옹진 문화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옹진군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옹진군을 생각하며 만들

어내는 결과물들은, 모두가 옹진의 문화가 된다. 현재 옹진군에 살고 있지 않아도 옹진을 생각하며 시를 쓴다면, 그 시는 옹진의 문화가 될 것이며, 옹진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옹진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 또한 옹진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옹진문화원의 직원으로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옹진 사람이 만드는 옹진 문화’이어야 한다. 옹진군에 적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진심과 진정성만은 옹진을 향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더욱 노력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의 옹진 사람과 문화를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친란하게 빛날 옹진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옹진

대리 박소현

《옹진문화》 제6호 발간에 있어 글을 내보라는 국장님의 엄명에 매년 원고를 받아서 취합하고 교정만 보던 저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마다 문화지를 발간하기 위해 원고를 내주십사 부탁만 드려봤지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삼 원고를 내주시는 문화원 회원님들과 그 외 문인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문화원은 관내 군민들에게 전통과 현대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옹진문화를 알리는 옹진문화지 발간, 관내·외 향토사 및 우리문화 역사를 고취시키는 문화유적탐방, 어린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도덕·존중·배려·공동체 의식 함양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찾아가는 예절교실, 효사상 함양을 위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심청 효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취미생활 문화강좌인 생활문화센터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통 차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찾아가는 다도·다례 강좌 등 그 외 여러 사업을 통해 옹진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문화원 사업에 대해 부족해 실망하는 분도 계시지만, 만족해하며 정말 즐겁게 프로그램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떻게 하면 옹진군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늘 옹진문화원의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대청도, 꽃계의 고장 연평도, 자연 풍광이 멋진 덕적도, 고래 등처럼 넓은 풀등이 있는 대이작도를 품은

자월도, 봄이면 벚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봉도가 있는 북도, CNN이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섬이 있는 영흥도 등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지만 저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용진군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와 용진문화의 주체이신 주민 분들을 만나 소통하며 그분들의 삶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보람된 직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4년간의 도서 지역을 다녀보면서 보고 느낀 용진군민들의 삶과 환경,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고객 지향적 태도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용진문화원 직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 실현’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옹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원 서혜인

안녕하세요.

올해 문화원에 입사한 신입사원 서혜인입니다.

옹진문화원 직원이 되기 위한 면접 중 원장님께서 ‘문화’의 정의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문화에 대해 살아가는 시대를 총괄한 말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화’에 대한 저의 정의가 참 얇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문화의 정의에 대해 검색해보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해 현재 제가 바라본 단편적인 시대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단편적인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개인 또는 집단이 만들고 변화시켜 쌓여진 산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옹진문화원의 직원으로 옹진군이 쌓아온 문화 속에서 그 가치를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니 그 참 뜻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옹진문화원 근무를 시작하게 되고 아직 옹진군에 대해 잘 모르던 찰나 지금 까지의 《옹진문화》지를 보면 옹진군의 광활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처럼 값진 자연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할 뿐 아니라 발굴하고 계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옹진군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사업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옹진군민들의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친근하고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옹진문화원의 프로그램과 행사들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근무하는 자리에서 고개를 올려 바라보며 옹진문화원의 원훈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친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씨와 태도로 군민들

에게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말에서 따오신 것 같습니다. 용진문화원이 만들어 나갈 용진문화가 용진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용진군민을 위해 겸손한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또한, 《용진문화》지를 통해 용진군 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값진 문화유산과 역사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

문화원 주요 사업

1. 문화원 자체 역점 사업

- 옹진문화 제6호 발간
- 문화 유적 탐방
- 홈페이지 유지 보수

2. 문화원 예술 진흥 사업

- 찾아가는 예술 교실
- 찾아가는 힐링 문화 생활

3. 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

- 심정 흐뭇 학생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 생활문화센터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찾아가는 다도 · 다례 강좌
- 옹진섬 민요집 · 음원 CD 재발행

4. 도서지역 양서보급

5. 위탁사업

-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6. 공모사업

- 2023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7. 특성화 사업

- 향토 유적 표지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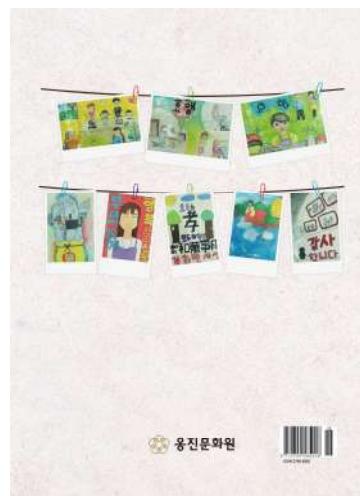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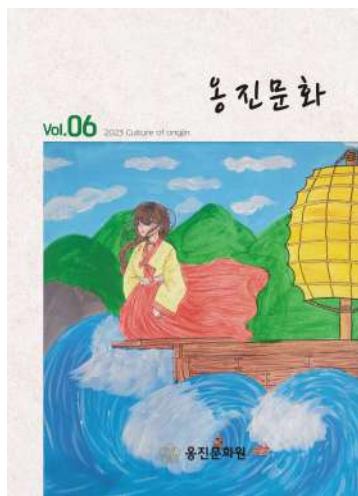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 실현

1. 문화원 자체 역점 사업

▣ 응진문화 제6호 발간

- 목 적 : 응진문화원의 연간 활동과 응진군 역사 기록지 및 주민들의 문화작품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응진문화지를 발간
- 기 간 : 4월 ~ 12월
- 추진사항
 - 6월 : 편찬 위원 구성 및 심의 회의
 - 7월 : 타 문화원 발간 사례 조사, 활용참조
 - 8월 : 문화원 임원 및 회원, 학교, 마을주민 등 자료 및 원고 수집
 - 10월 : 원고 마감(원고 초안 수정 및 교정, 응진군 추가 현황 자료 수집)
 - 11월 : 인쇄업체 선정 및 최종 편집 및 인쇄
 - 12월 : 2023 「응진문화」 제6호 발송



▣ 문화 유적 탐방

- 목 적 : 응진군 관내지역과 타 지역의 탐방을 통해 향토사 및 지역 문화를 발굴 · 보존 · 전승하고자 함
- 기 간 : 3월 ~ 11월
- 추진사항
 - 상반기 /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1박 2일) 실시
 -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부석사, 소백산 생태 탐방원, 무섬 마을 고택 및 외나무다리 등 문화유산을 탐방하여 경북 영주의 역사의식을 고취
 - 하반기 / 덕적도(1박 2일) 실시
 - 덕적군도 선상탐방, 서포리 해변, 웰빙 삼림욕장, 죄분도 신부 기념비, 능동자갈마당, 뼈뿌루해변, 죽노골해변, 장군바위 등 덕적도의 풍부한 자연을 탐방하여 덕적도의 문화적 가치를 체험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덕적도

▣ 홈페이지 유지 보수

- 목 적 : 홈페이지 유지 보수 체제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안정성 확보 및 문화원 추진 사업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소통의 창구 마련을 위함
- 기간 : 1월 ~ 12월
- 추진사항
 -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유지



2. 문화원 예술 진흥 사업

▣ 찾아가는 예절 교실

- 목 적 : 예절 교실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의 도덕·존중·배려·공동체 의식 함양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올바른 정신 함양
- 기 간 : 3월 ~ 11월
- 추진사항
 - 5월 16일 ~ 17일 대청초등학교
 - 장 소 : 대청초등학교 교실
 - 강의주제 : 소중한 나(문양의 꿈을 담은 우드), 공감과 소통&화합 (인성 윷놀이)



- 5월 17일 대청중고등학교

- 장 소 : 대청중고 도서실 및 과학실
- 강의주제 : 열두 달 세시 문화(장명루 만들기), 음식문화 체험2 (부꾸미 만들기)



- 5월 26일 이작분교

- 장 소 : 이작분교 교실
- 강의주제 : 세시 음식 만들기(삼색 송편 만들기)



- 6월 1일 연평초등학교

- 장 소 : 영흥초등학교 과학실
- 강의주제 : 세시 음식 만들기(삼색 송편 만들기)



- 6월 15일 ~ 16일 백령초등학교

· 장 소 : 백령초등학교 교실

· 강의주제 : 함께하는 사회(다식 체험), 창의체험 만들기(컵 케익 만들기), 세시 다과 만들기(강정 만들기), 세시 음식 만들기(삼색 송편 만들기)



- 6월 27일 신도분교장

· 장 소 : 신도분교 교실

· 강의주제 : 조화로운 세상 만들기(청사초롱 만들기), 세시다과 만들기 (강정만들기)



- 9월 26일 장봉분교

- 장 소 : 장봉분교 교실
- 강의주제 : 세시 음식 만들기(삼색 송편 만들기)



- 9월 27일 자월분교

- 장 소 : 자월분교 교실
- 강의주제 : 세시 음식 만들기(삼색 송편 만들기)



- 10월 11일 덕적중고등학교

- 장 소 : 덕적중고등학교 강당
- 강의주제 : 열두 달 세시 문화(장명루 만들기)



- 11월 9일 영흥중학교

- 장 소 : 영흥중학교 교실
- 강의주제 : 밝은 미래를 향하여 등불을 밝혀라(한지 등 만들기), 바른 매너 브랜딩(스칸디아모스)



찾아가는 힐링 문화 생활

- 목 적 : 도서 지역의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소외감 해소
- 기 간 : 3월 ~ 11월
- 추진사항
 - 6월 22일 북도면 공연
 - 장 소 : 북도면체육센터



- 6월 15일 연평면 공연
- 장 소 : 북도면 국민체육센터



- 7월 4일 영흥면 공연
- 장 소 : 영흥면 늘푸른센터



3.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 목 적 : 옹진군 관내 학교 참여 유도 및 문화행사 차원의 대회 개최로 옹진군이 심청의 본 고장임을 대외적으로 홍보
- 기 간 : 4월 ~ 9월
- 추진사항
 - 5월 : 제24회 심청효행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대회 관련학교 협조 요청
 - 7월 : 대회 실시
 - 8월 : 작품 심사



▣ 생활문화센터 문화 체험 프로그램

- 목 적 : 생활문화센터 및 여가공간에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체험 등, 강좌수업을 통해 여가문화 활성화
- 기 간 : 2월 ~ 12월
- 추진사항
 - 북도면 실용 토탈 공예
 - 기 간 : 3월 ~ 9월
 - 장 소 :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 북도면 핸드페인팅

· 기 간 : 3월 ~ 9월

· 장 소 :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 자월면 실용 토탈 공예

- 기 간 : 3월 ~ 9월
- 장 소 :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 자월면 핸드페인팅
 - 기 간 : 3월 ~ 9월
 - 장 소 :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 찾아가는 다도 · 다례 강좌

- 목 적 : 도서지역 특성상 제약이 많은 관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하여 보다 군민이 행복하고 문화 향유를 누리도록 지원
- 기 간 : 3월 ~ 10월

○ 추진사항

- 다도·다례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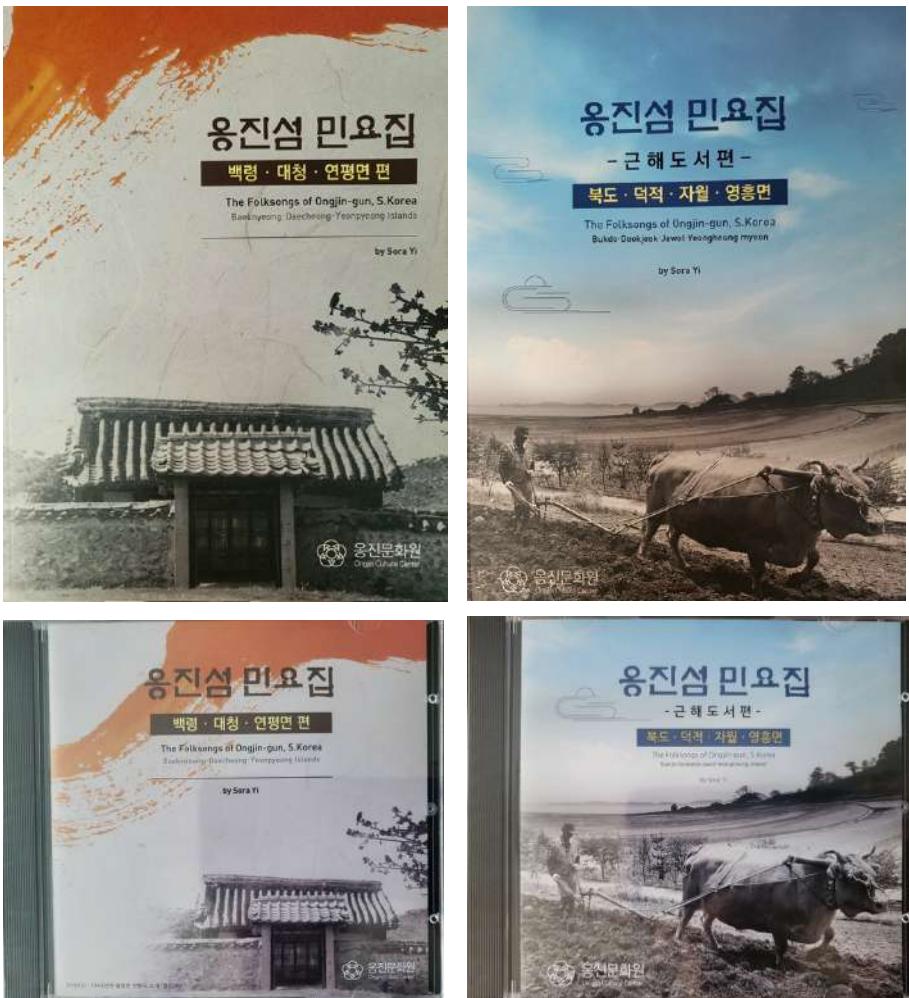
기 간 : 5월 ~ 7월

장 소 :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 응진섬 민요집 · 음원CD 재발행

- 목 적 : 응진군 지역의 희망과 염원, 기쁨의 감정이 담긴 옛 조상들의 다양한 소리를 잊혀지고, 사라지기전에 발굴보존개발하여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적 토대로 응진 민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 간 : 3월 ~ 7월
- 추진사항
 - 2월 : 도서 및 음원 CD 제작업체 계약
 - 3월 : 도서 400부 / 음반 500개 제작



4. 자체사업

▣ 도서지역 양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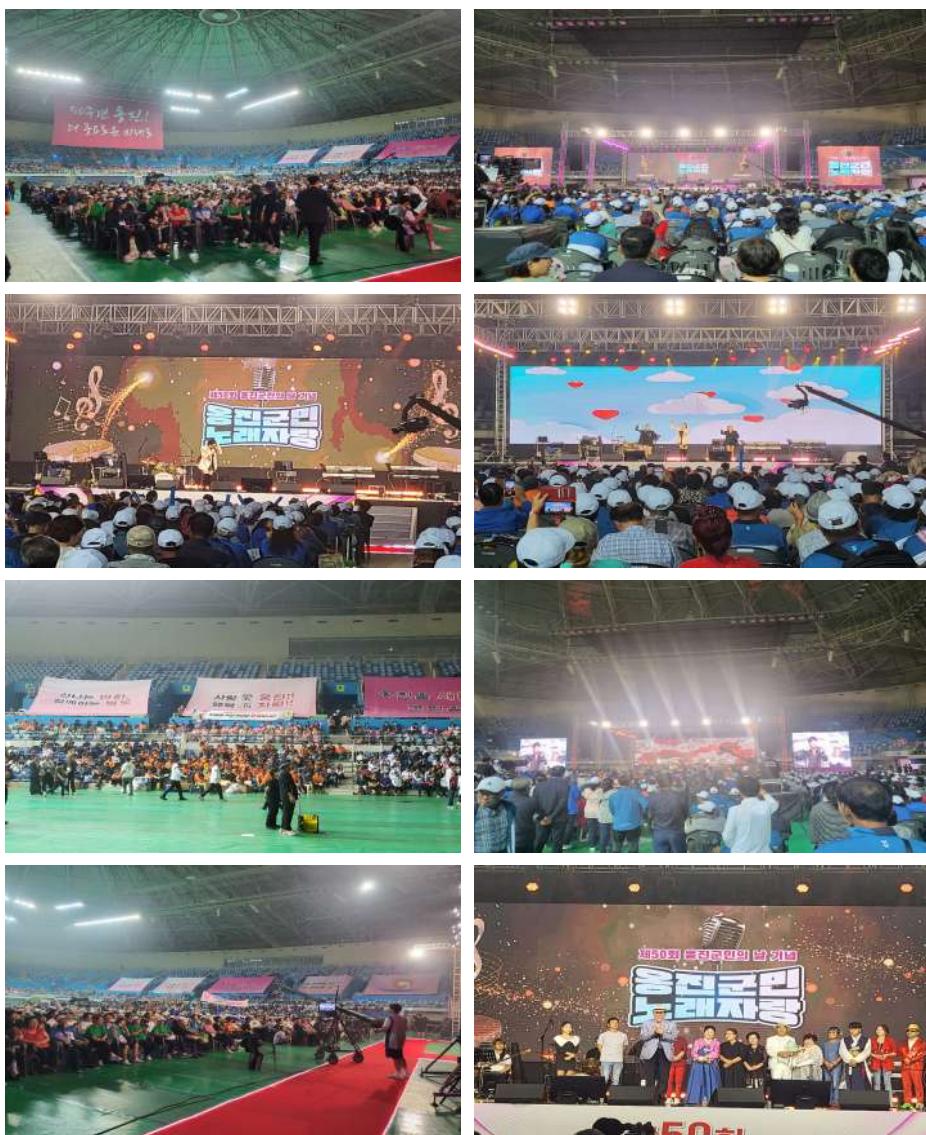
- 목 적 : 도서로만 형성된 옹진군의 특성상 군민이 접할 수 없는 양서를 선별, 현지 보급함으로써 독서를 통하여 지식함양과 인문학적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함
- 기 간 : 2월, 8월
- 추진사항
 - 1차 양서보급 - 갈매기의 꿈
2월 우편발송 보급 실시
 - 2차 양서보급 - 독서로 나를 디자인 하라
8월 우편발송을 통해 문화원 회원 및 관계자 보급 실시



5. 위탁사업

▣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 목 적 :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응진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군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흥겨운 화합의 마당 제공
- 추진사항
 - 기 간 : 2023. 9. 20.
 - 장 소 : 인천남동체육관



6. 공모사업

▣ 2023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우리동네 꽃차 테라피

- 목 적 : 지역 특성상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어르신들의 삶에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여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사항
 - 기 간 : 6월 ~ 9월
 - 장 소 :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7. 특성화 사업

2023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 향토유적지 표지판 제작

- 목 적 : 지역적(대청도)으로 향토 역사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기대되는 장소에 향토유적지에 표지판을 설치 홍보하고 보전, 보호
- 추진사항
 - 기 간 : 4월 ~ 11월
 - 장 소 : 대청도 일원 4개소





VII

2023 심청 효행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 작품

• 글짓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심청 – 조이안

어버이날 감사 표현 – 유다경

부모님께 드리는 큰 기쁨 – 계수민

나의 효도 저금통 – 김도경

부탁 – 김민성

우리 부모님께 – 서정원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 박혜빈

효행에 대한 고찰 – 정창현

• 그림

오주하, 손영원, 김리현, 김혜린, 김하솜, 홍다희, 창우현, 황유림
문지은, 김륜아, 김미솔, 이나원, 김주은, 김예은, 김미령, 김미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심청

1학년 조이안(영흥초등학교)

나는 효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이 ‘심청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심청전을 가지고 효를 이야기해 보겠다.

심청이는 가난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앞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간 심청이 돌아오지 않아서 찾으러 나갔다가 심 봉사는 그만 개울물에 빠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심 봉사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봉사는 눈을 뜨고 싶어서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심 봉사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것을 알게 된 심청은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쌀 삼백 석을 받기로 하고 인당수에 빠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기로 한 것을 보면서 심청은 정말 효심이 깊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었고, 심부름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다.

최근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더 아플까 봐 열심히 간호해 주셨다.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밤에 잠도 안 자고 지켜보셨다. 나는 엄마가 챙겨주신 약도 잘 먹고 건강한 음식들도 많이 먹으면서 금방 나았다. 또 내가 건강해지라고 엄마가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매일 해 주신다. 그런 덕분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나도 심청이의 마음을 본받아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아들이 되고 싶다.



어버이날 감사 표현

2학년 유다경(영흥초등학교)

어버이날은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버이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쓩니다. 평소 말로 전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물을 준비합니다. 크고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립니다. 바쁘신 부모님을 위해 집안 정리 정돈하기, 동생 돌봐주기, 화분에 물 주기, 분리수거하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우리 부모님이어서 고맙고 항상 열정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어버이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 부모님께 큰 감동을 드리고 우리 집 분위기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큰 기쁨

6학년 계수민(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고 행복한 하루로 기억에 남도록 특별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다. 원래는 부모님께 해드리는 어버이날이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할머니께서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무언가를 해드리고도 싶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매일 해주시는 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부모님께서 항상 밥을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밥도 차려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면서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지만 정작 부모님은 내가 해드리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도 엄청 고마워하시고 감동을 받으신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에 비해 나는 많이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어버이날이 정말 뜻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고작 편지와 선물 하나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부 전해 드릴 순 없겠지만 부모님께 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전날에 써 놓은 편지를 준비하고 오빠, 언니와 돈을 모아 케이크를 샀다. 몰래 드리려 했는데 그만 아빠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는 바람에 들켜버리고 말았다. 비록 아빠께는 들켰지만 엄마와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즐거워하셨다. 덕분에 내 기분도 좋아지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케이크와 함께 미리 내가 직접 만들었던 꽃바구니, 카네이션, 편지를 드렸다. 부모님과 할머니께서는 카네이션이 예쁘고 고맙다고 하시며 정말 좋아하셨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내가 드린 카네이션을 모자에 달고 다니신다고 하셔서 괜히 으쓱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동안 나는 예전에 드린 선물이나 편지 등을 작은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편지나 선물 같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도 많이 좋아하실 때 그동안 내가 해드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듣다.

또한 어버이날에만 해드리는 편지와 선물로 부모님이 여태껏 나에게 해주신 모든 걸 전부 채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 부모님을 도와 드리며 채워 나가 보려고 한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부모님이 많이 행복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부모님은 늘 그러셨듯이 힘들어도 내가 걱정하지 않게 웃어주셨지만 오늘은 정말 행복한 얼굴로 활짝 웃음을 짓고 계신 것 같아서 나도 많이 행복했다.

오늘 저녁에는 식구들과 함께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아빠께서는 고기를 구우시느라 고기 한 점 못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아빠께 직접 쌈을 싸서 입에 넣어드렸다. 아빠께서는 뜻밖이시라는 듯이 “오!” 하시며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수민이가 싸주니까 더 맛있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지만 아빠께서 그런 말을 해주시니 기분이 좋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와 엄마께도 쌈을 싸드렸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원래는 어버이날에 평소에 드렸던 것처럼 편지를 드리고 끝날 줄 알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작년 어버이날 때는 오늘 해드린 것보다 별로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부모님의 하루가 평소처럼 힘들지 않게 도와드리며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나는 부모님께 큰 힘이 되도록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릴 것이다. 내 방을 스스로 정리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 사용한 물건도 제자리에 놓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어른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할머니, 아빠, 엄마는 내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와 부모님께 내가 짐이 아닌 큰 힘이 돼 드리며 할머니와 부모님께 지금보다 더 기특하고 기쁨을 주는 손녀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의 효도 저금통



6학년 김도경(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오늘은 학교를 끝마치고 아빠의 차를 타고 신도를 나가게 되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빠께 여쭈어보았더니 영종도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댁은 원래는 천안에 있어 가는데 힘들었지만 이제는 영종도로 이사 오셨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아졌다. 우리 할아버지는 살짝 무뚝뚝하지만 실제와는 다르시다. 나를 잘 챙겨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주려 하신다. 내년에 할아버지네 집에서 살기로 해서 침대나 컴퓨터 등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 자체로 좋아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드디어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어버이날 기념으로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학교에서 만들어온 꽃바구니와 카네이션을 가지고 갔다. 꽃바구니에는 카네이션과 여러 예쁜 꽃들을 넣어 만들고 카네이션으로 장식된 배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꽃바구니와 카네이션 배지를 받고, ‘혹시 마음에 안 들어하시면 어찌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드린 선물을 정말 좋아하시며 고마워하셨다. 할머니께서는 꽃바구니를 식탁에 올려 물을 주신 다음,

“우리 손자가 준 선물인데 잘 키울게.”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는 할머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다.

그런데 잠깐 동안 쉬고 있는 나에게 할아버지께서 동생들 모르게 손짓을

하셨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러자 할아버지 는 내손에 몰래 용돈을 쥐어주셨다. 갑자기 주신 용돈이라 기분이 좋았지만 ‘할아버지도 어딘가에 사용할 곳이 있으실 텐데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용돈 받기를 거절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생각을 꺾지 않으시고 결국은 나에게만 용돈을 주셨다.

나는 그 용돈을 내 ‘효도저금통’에 넣기로 했다. 효도 저금통은 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필요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만든 특별한 저금통이다. 비록 지금은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필요한 순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마침 아빠께서 족구동호회 연습이 있다 하셔서 나도 따라갔다. 그 곳에서 아빠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빠께서 혼잣말로 “무릎보호대 없이는 너무 아파서 못 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 깜짝 놀랐다. 나는 아빠께서 무릎이 아픈 것도 몰라 아빠가 괜찮은지 걱정스러웠다. 아빠는 내가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데리고 백두대간 종주를 같이 해주시고 계신다. 높은 산을 오를 때 나까지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무릎이 아프단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빠께 마사지를 해 드렸다. 아빠께서는,

“아이고, 도경아 안마해 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하나도 안 아픈 것 같구나.”라고 하셨다.

솔직히 아빠가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빠는 내 마음 생각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말해주신걸 감사히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님께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실 청소를 도와드리고 열심히 집중하며 공부를 하고, 동생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부모님이 하시는 빨래도 개 드리고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의 효도저금통에는 용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관심, 정성이 가득 차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탁

1학년 김민성(영흥중학교)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해줘.”

나는 부모님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다.

당연한 건 줄 알면서 살아간 시간 동안 부모님은 나의 부탁을 들어주셨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가도 나의 부탁에 못 이기며 들어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부탁을 강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날 부모님께 무척 삐지고 짜증이 났었다.

나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것도 못해줘?”

그때는 나는 몰랐다.

나에게도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부모님도 나에게 부탁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나는 부모님의 간단한 부탁에도 쉽게 귀찮아하며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나는 부모님께 부탁을 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중요성과 당연한 건 줄로만 알았던 매일 들어주시던 부탁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웬지 모르게 코끝이 찡했다.

그 이후부터 나는 부모님께 부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그때부터 나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부탁을 들어주실 때마다 마냥 밝지만은 않은 부모님의 표정, 웬지 모르게 무거워 보이는 부모님의 어깨, 나는 그 어깨를 볼 때마다 풀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무거운 그 어깨를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바로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렸다. 그날아침 부모님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나의 효도가.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생신, 어버이날, 빼빼로데이 등등 기념 일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돈이 부족하긴 했지만 세뱃돈과 용돈을 쓰지 않고 절제하였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효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만큼은 뿌듯하단 생각 하나밖에 들지 않는다. 이제는 나는 부모님께 부탁을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노력과 그 무게만큼은 나도 알기 때문이다.

나중에 하는 효도는 너무 늦는다. 이제라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와 효도를 해보자. 효도는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부모님께

1학년 서정원(영흥중학교)

저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이지만 엄마의 힘듦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안일을 돋고 작은 일에도 저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춘기가 온 거 같아요. 사춘기 때문에 화도 요즘 많이 나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느릿느릿 움직여서 화도 많이 내셨지만 전 아직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효녀, 효자가 있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길 기원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꾸중과 힘한 말을 들었지만 요즘도 아버지랑 함께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맨날 일을 하셔 가지고 그립습니다.

저희가 식구가 다 모여서 행복하게 저녁식사를 할 때까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술을 안 하면 한 달의 10만 원~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담배를 안 하면 1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해서 놀랐습니다.

아빠의 아픈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의 힘듦을 저랑 나눠가져서 둘 다 우리 가족을 위해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어요.

1년에 12번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옛날에 갔던 강화도, 인천, 서울, 제주도, 강원도가 그리워요. 그렇지만 요번 년도에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 형, 동생, 나, 이렇게 가족 모두 여행을 가고 싶어요.

6년 만에 가는 거니 너무 기대가 될 거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일을 열심히 하고 아픈데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2학년 박혜빈(백령고등학교)

암흑이 아닌 다채로운 색들로 물든 세상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던 소녀와 팔려 가는 딸을 붙잡고자 울부짖던 아버지,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효녀심청’의 한 단락이다. 눈이 먼 심봉사와 그의 하나뿐인 딸인 심청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과거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듯이 현재에도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린다.

이렇게나 「심청전」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순간 떠오른 의문은 처음 「심청전」을 읽던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도 웃던 부녀를 지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작별에 울던 그들, 마침내 바다를 직면한 심청은 그저, 한낱 어린 소녀였다. 아직 배울 것도, 느낄 것도, 사랑할 것도 많은 내 또래의 아이, 하지만 심청은 달랐다. 바다의 윤슬보다 눈부신 효심으로 그녀는 기꺼이 치마를 뒤집어쓰고 바다에 안겼다.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행복을 염원하면서, 그 모습에 내가 심청이에게 매료되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품은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지극한 효심에 세상은 그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심청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이쯤에서 나는 묻는다.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과연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굳게 닫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막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우리의 과거를 성찰하게 한다.

어렸을 적엔 자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곤 하였다. 빠뚤빼뚤 꾹꾹 눌러 적은 손 편지는 부모님을 향한 나의 효도이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

만 시간이 흐르고 중학생이 된 나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 방문이 굳게 닫힌 채 대화 단절의 시간은 늘어만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심청각을 올랐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심청각에서 보이는 저 바다가 바로 심청이가 몸을 던졌던 인당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제야 나는 어릴 적의 나도 심청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 했음을 상기했다. 가난한 처지에도 오순도순 저녁을 나누던 심청이의 모습은 내 모습과는 달리 따스하고 정다웠음을 깨달았으며 반성하게 되었다. 그날부로 나는 닫아놓았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부모님이 오시면 마중 인사를, 평소에는 잘 챙기지도 않았던 식사를 손수 준비해 보았다. 그리고 나니 평소 부모님의 기분이 어떠셨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전보다 더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부모님의 노고와 은혜가 당연치 않게 여겨져 더욱 뭉클하고 감사해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 펜을 듈다.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글로 나는 부모님께 이 은혜를 보답드린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효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아주 작은 행동 변화에서 비롯된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합니다.', 혹은 '사랑해요.'와 같은 짧은 인사말도 효도가 될 수 있다. 진심을 담아하는 일이라면 부모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을 나는 이제 안다. 기억도 안 날 적부터 부모님의 품 아래서 들었던 「심청전」은 내게 소중한 가족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들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 안에서 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렇기에 나는 다른 이들도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란다. 지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도 않고 부모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기 달라서 하루하루를 후회치 않도록. '과연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겠단 다짐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효행에 대한 고찰



2학년 정창현(영흥고등학교)

효행이 뭘까. 나 자신은 ‘효행’을 정의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효자보다 불효 자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불효와 효는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변인들을 보면 세 종류로 나뉘는 것 같다.

첫째 유형은 서로 살뜰히 챙기는 부모와 자식관계이다. 이들은 가끔은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가 된다. 전화를 자주 하고 대화의 양이 많다. 필자는 부끄럽게도 이 유형에 속하기엔 아직이다.

둘째 유형은 부모‘만’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유형이다. 어쩌다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른다. 자식입장으로서 가장 죄송한 관계이다.

셋째 유형은 서로 무관심한 부모와 자식관계이다. 이들은 대화의 수가 적고 각자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이런 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부모와 자식의 행동 지침’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의 대화가 많았다.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대화 내용이 기억난다.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반장 선거를 했는데 누가 뽑혔다는 이야기 등을 주제로 대화했었다.

중학생 때도 대화는 계속되었다. 남들이 자주 겪는 사춘기도 나에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또, 가끔 여행을 다닌다거나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따라가곤 했다.

고등학생 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대화의 질도 바뀌었다. 그러나 대화의 양은 그대로였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대화를 쭉 해왔었다.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전한다. 서로 이야기를 계속해라. 주제는 상관

없다. 서로 간의 유대감이 생긴다. 대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물어보기만 해도 대화가 생긴다. 필자를 믿고 대화의 효과를 기대해도 된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일상에 답이 있다. 식사자리에서 10분, 차로 이동하는 시간에 10분만 해도 충분하다. 만약 당신이 부모고, 자식이 말이 없는 성격일 수 있다. 이럴 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라’다. 부모가 부모의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면 자식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부모들이 힘써주길 바란다.

내가 부모님과 유대를 쌓고 친밀감이 형성되었던 방법, 대화를 잘 이용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부모들과 자식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2023 심청 ‘효’ 학생 그림 그리기 입상 작품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상 오주하(영흥초)



초등부 저학년 우수상 손영원(백령초)



초등부 저학년 장려상 김리현(영흥초)



초등부 저학년 장려상 김혜린(백령초)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상 김하솜(백령초)



초등부 고학년 장려상 홍다희(덕적초)



초등부 고학년 우수상 창우현(북포초)



초등부 고학년 장려상 황유림(영흥초)



중등부 최우수상 문지은(대청중)



중등부 우수상 김륜아(대청중)



중등부 장려상 김미슬(영흥중)



중등부 장려상 이나원(영흥중)



고등부 최우수상 김주은(백령고)



고등부 우수상 김예은(영흥고)



고등부 장려상 김미령(영흥고)



고등부 장려상 김미나(영흥고)

VIII

임원 및 회원명단



옹진문화원 회원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1	원장	태동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31	회원	이근덕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	이사	전미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2	회원	이명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	이사	최창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3	회원	이병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4	이사	송영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34	회원	이순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	이사	김경협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5	회원	이순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6	이사	김진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6	회원	이용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7	이사	박용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7	회원	이윤행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8	이사	장정돈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8	회원	이원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9	이사	최대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9	회원	전창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0	이사	강신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40	회원	정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1	이사	장윤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41	회원	차광윤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2	이사	김용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2	회원	천공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3	이사	서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3	회원	추연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4	이사	서옥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4	회원	최선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5	이사	이해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5	회원	최영광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6	이사	강도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6	회원	홍광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7	이사	김희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7	회원	김성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18	이사	정철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8	회원	김영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19	이사	김현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49	회원	서은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0	이사	임선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50	회원	이명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1	이사	장성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51	회원	이성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2	이사	김기룡	인천광역시 연수구	52	회원	조종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3	감사	박용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53	회원	차애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4	회원	김순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4	회원	최옥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5	회원	박관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5	회원	김재홍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6	회원	박인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6	회원	김종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7	회원	손현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7	회원	김진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	회원	신영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8	회원	김효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9	회원	유연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9	회원	박세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0	회원	이길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60	회원	변영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61	회원	심현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1	회원	박은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2	회원	심효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2	회원	신애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3	회원	이인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3	회원	서혜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4	회원	이정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4	회원	신재석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5	회원	임정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5	회원	이영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6	회원	정옥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6	회원	이원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7	회원	김능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97	회원	이지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8	회원	김순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98	회원	이충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9	회원	김순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99	회원	임경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0	회원	김옥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0	회원	장연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1	회원	도민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1	회원	진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2	회원	류석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2	회원	최한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3	회원	박혜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3	회원	현혜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4	회원	이은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4	회원	황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5	회원	임현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5	회원	강명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76	회원	장덕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6	회원	강태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77	회원	정대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7	회원	강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78	회원	정희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8	회원	구옥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79	회원	조철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9	회원	권경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0	회원	주영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0	회원	김길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1	회원	지형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1	회원	김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2	회원	최광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2	회원	김은금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3	회원	황명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3	회원	김정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4	회원	강일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4	회원	김현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5	회원	김금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5	회원	민종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6	회원	김남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6	회원	신금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7	회원	김영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7	회원	신효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8	회원	김영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8	회원	안춘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9	회원	김태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9	회원	윤윤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90	회원	김형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20	회원	이미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121	회원	이민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1	회원	박종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2	회원	이순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2	회원	범안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3	회원	임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3	회원	백철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4	회원	장미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4	회원	손동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5	회원	정순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5	회원	손순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6	회원	정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6	회원	송현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7	회원	차안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7	회원	서정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8	회원	최선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8	회원	신미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9	회원	강미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59	회원	신영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0	회원	강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0	회원	양선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1	회원	강응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1	회원	오명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2	회원	곽인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2	회원	오연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3	회원	권석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3	회원	유선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4	회원	길정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4	회원	유신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5	회원	김경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5	회원	유이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6	회원	김기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6	회원	육광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7	회원	김명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7	회원	윤하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8	회원	김병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8	회원	이민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9	회원	김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69	회원	이소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0	회원	김수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0	회원	이영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1	회원	김연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1	회원	이의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2	회원	김은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2	회원	이종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3	회원	김장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3	회원	임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4	회원	김정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4	회원	장성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5	회원	김종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5	회원	정연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6	회원	김좌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6	회원	정영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7	회원	문경복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7	회원	정찬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8	회원	문옥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8	회원	조세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9	회원	박순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9	회원	조연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50	회원	박오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80	회원	조인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181	회원	조해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05	회원	서은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2	회원	천종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06	회원	서향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183	회원	최기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07	회원	송영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184	회원	최문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08	회원	신명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5	회원	최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09	회원	신혜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6	회원	최현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0	회원	심상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187	회원	홍용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1	회원	오영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188	회원	곽윤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212	회원	윤인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189	회원	권태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213	회원	윤지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190	회원	김관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214	회원	이명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191	회원	김성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215	회원	이문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192	회원	김성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16	회원	임경남	경기도 시흥시
193	회원	김양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17	회원	임금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94	회원	김용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18	회원	장광덕	인천광역시 연수구
195	회원	김인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219	회원	장미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96	회원	김정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220	회원	장종철	경기도 양주시
197	회원	김정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21	회원	정민영	경기도 부천시
198	회원	노만익	인천광역시 서구	222	회원	정영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199	회원	문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223	회원	조한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0	회원	문용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24	회원	최계철	인천광역시 서구
201	회원	박용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225	회원	최금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	회원	박정수	인천광역시 중구	226	회원	최두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3	회원	변원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227	회원	태수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204	회원	서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